

삼국연의

三國演義 · 모종강본

제1권 (제1회 ~ 제12회)

나관중 (羅貫中, 약 1330-1400)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2

책 정보

원전

나관중 『삼국연의(三國演義)』 모종강본(毛宗崗本, 1660년대 청대),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三國演義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2

번역 정책

- 인명·지명·관직은 한국 한자음(劉備 → 유비, 涿郡 → 탁군)

- 자·호·별명은 본명으로 통일(玄德 → 유비, 翼德 → 장비, 雲長 → 관우)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 "且說" → "한편"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1회 — 도원에서 호걸 셋이 결의하고, 황건적을 베어 영웅이 첫 공을 세우다	6
제2회 — 장익덕이 분노하여 독우를 채찍질하고, 하국구가 환관을 죽이려 모의하다	21
제3회 — 온명원에서 동탁이 정원을 꾸짖고, 금구슬을 보내 이숙이 여포를 설득하다	42
제4회 — 한나라 황제를 폐하여 진류왕을 황제로 세우고, 동탁을 도모하여 맹덕이 칼을 바치다	60
제5회 — 거짓 조서를 내려 제후들이 조공에게 응하고, 관문을 격파하며 삼영이 여포와 싸우다	76
제6회 — 금궐을 불태워 동탁이 흉행을 저지르고, 옥새를 숨겨 손견이 약속을 어기다	97
제7회 — 원소가 반하에서 공손찬과 싸우고, 손견이 강을 건너 유표를 공격하다	113
제8회 — 왕사도가 교묘하게 연합계를 쓰고, 동태사가 봉의정에서 크게 소란을 피우다	130
제9회 — 폭흉한 여포를 제거하여 사도를 돕고, 장안을 범하여 이각이 가후의 말을 듣다	148
제10회 — 왕실을 위해 마등이 의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조조가 군사를 일으키다	166

제11회 — 유황숙이 북해에서 공융을 구하고, 여온후가 북양에서 조조를 격파하다	182
제12회 — 도공조가 서주를 세 번 양보하고, 조맹덕이 여포와 크게 싸우다	204

제1회 — 도원에서 호걸 셋이 결의하고, 황건적을 베어 영웅이 첫 공을 세우다

宴桃園豪傑三結義 斬黃巾英雄首立功

굽이쳐 흐르는 장강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거센 물결은 영웅들을 모두
휩쓸어 가네.

웅고 그림과 성패는 돌이켜보니 모두 덧없는 일이라.

푸른 산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저녁 노을은 몇 번이나 붉게 물
들었나.

백발의 어부와 나무꾼은 강가에 앉아, 가을 달과 봄바람을 마주하는 일
이 익숙하구나.

탁한 술 한 항아리 놓고 기쁘게 만났으니, 옛날과 지금의 수많은 일들
이 모두 웃음 섞인 이야기 속에 있네.

이야기는 이러하다. 천하의 큰 흐름이란 오래 나누어지면 반드시 합
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나누어지게 마련이다. 주나라 말
기에 일곱 나라가 다투다 진나라에 합쳐졌고,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는

초나라와 한나라가 다투다 다시 한나라로 통일되었다. 한나라는 고조가 백사를 베고 의병을 일으킨 이래로 천하를 하나로 모았다. 이후 광무제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중흥을 이루었으나, 세월이 흘러 현재 시대에 이르러 결국 세 나라로 나뉘게 되었다.

천하가 어지러워진 원인을 따져보자면, 아마도 환제와 영제 두 황제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환제는 선량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환관들을 맹목적으로 믿었다. 환제가 세상을 떠나고 영제가 즉위하자 대장군 두무와 태부 진번이 함께 보좌하였다. 이때 조절 같은 환관들이 권력을 휘두르자, 두무와 진번이 이들을 처단하려 모의했으나 일이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아 도리어 화를 입고 말았다. 그 뒤로 환관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

건녕 2년 4월 보름, 영제가 온덕전에 들렀다. 황제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전각 구석에서 광풍이 몰아치더니 커다란 푸른 뱀 한 마리가 대들보 위에서 날아 내려와 의자 위를 휘감았다. 황제가 놀라 뒤로 넘어지자 좌우의 관리들이 급히 황제를 구해 궁 안으로 모셨고, 백관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잠시 후 뱀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곧이어 거센 천둥과 폭우가 쏟아지더니 우박까지 내리쳤다. 이 기상 이변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멈췄는데, 그 사이 수많은 집이 무너져 내렸다.

건녕 4년 2월에는 낙양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바닷물이 넘쳐흘러 해안가 주민들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사라졌다. 광화 원년에는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6월 초하루에는 검은 기운이 열 길 넘게 치솟아 온덕전 안으로 날아 들어왔다. 가을 7월에는

옥당에 무지개가 나타나더니 오원산의 언덕이 모조리 무너져 내렸다. 이처럼 불길한 징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황제는 조서를 내려 신하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물었다. 이때 의랑 채옹이 상소를 올려, 무지개가 떨어지고 닭이 변하는 등의 현상은 모두 환관들이 정사에 간섭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직언했다. 황제가 상소를 읽고 탄식하며 옷을 갈아입으려 일어날 때, 뒤에서 이를 몰래 훑쳐보던 조절이 이 사실을 주변에 모두 알렸다. 결국 조절은 다른 구실을 만들어 채옹을 죄에 빠뜨린 뒤 고향으로 쫓아버렸다.

그 후 장양, 조충, 봉서, 단규, 조절, 후람, 건석, 정광, 하련, 광승 등 열 명의 환관이 서로 끼리끼리 결탁하여 악행을 저질렀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십상시'라 불렀다. 황제는 장양을 몹시 신뢰하여 '아버님'이라 부르기까지 했다. 조정의 정치가 날로 타락하자 천하의 민심은 어지러워졌고, 도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한편, 거록군에 세 형제가 있었으니, 이름은 장각, 장보, 장량이다. 장각은 본래 과거에 낙방한 선비였는데,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눈이 푸르고 얼굴이 아이처럼 앳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명아주 지팡이를 짚은 채 장각을 동굴 안으로 불러 천서 세 권을 건네며 말했다. “이것은 태평요술이라 한다. 네가 이것을 얻었으니 마땅히 하늘을 대신해 교화를 펼쳐 세상을 구제할 것이다. 만약 딴 마음을 품는다면 반드시 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장각이 노인의 성함을 여쭙니, 노인은 “나는 남화노선이다”라고 답하고는 말이 끝나자마자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졌다. 장각은 이 책을 얻은 뒤 밤낮으로 익혀 바람과 비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태평도인’이라 불렀다. 중평 원년 정월, 전염병이 유행하자 장각은 부적을 적신 물을 나누어 주며 병을 고쳐 주었고, 스스로를 ‘대현량사’라 칭했다. 장각에게는 제자가 오백여 명이나 있었는데, 사방을 떠돌며 모두 부적을 쓰고 주문을 외울 줄 알았다. 이후 제자가 점점 늘어나자 장각은 서른여섯 개의 조직을 만들었다. 큰 조직은 만 명이 넘고 작은 조직은 육칠천 명에 달했는데, 각 조직마다 우두머리를 세워 장군이라 불렀다. 또한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누런 하늘이 일어날 것이다. 갑자의 해에 천하가 크게 길할 것이다”라는 거짓 예언을 퍼뜨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흰 흙으로 집 대문에 ‘갑자’라는 두 글자를 쓰게 했다. 청주, 유주, 서주, 기주, 형주, 양주, 연주, 예주 등 여덟 주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대현량사 장각의 이름을 받들었다. 장각은 부하 마원의의를 보내 금과 비단을 몰래 챙겨 환관 봉서와 결탁하게 하여 조정 내부에서 내응하도록 했다. 장각이 두 동생과 상의하며 말했다.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민심인데, 이제 민심이 우리에게 기울었으니 이 기세를 몰아 천하를 얻지 못한다면 참으로 아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는 즉시 노란 깃발을 몰래 만들고 거사를 일으킬 날을 정하는 한편, 제자 당주를 보내 봉서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했다. 그러나 당주는 곧장 도성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고발했다. 영제는 대장군 하진을 불러 군사를 일으켜 마원의의를 잡아 처형하게 했고, 이어 봉서 일당을 모두 옥에 가두었다. 장각은 일이 탄로 난 것을 알고 밤낮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그는 스스로 ‘천공장군’이라 칭했고, 장보는 ‘지공장군’, 장량은 ‘인공장군’이라 불렀다. 장각은 사람들에게 외쳤다. “이제 한나라의 운수가 다하였으니, 위대한 성인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모두 하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가야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 사방의 백성들 중 머리에 노란 수건을 두르고 장각을 따라 반란을 일으

킨 자가 사오십만 명에 달했다. 도적의 기세가 워낙 거세어 관군은 그 기세에 눌려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졌다. 하진이 황제에게 급히 조서를 내려 각지에 방비를 갖추고 도적을 토벌하여 공을 세우라고 보고하는 한편, 중랑장 노식, 황보승, 주준을 보내 정예병을 이끌고 세 갈래로 나누어 토벌하게 했다.

한편, 장각의 군대가 유주의 경계까지 침범해 들어왔다. 유주의 태수 유언은 강하 경릉 출신으로 한나라 노공왕의 후손이었다. 당시 도적떼가 들이닥친다는 소식을 들은 유언은 교위 추정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추정이 말했다. "적군은 많은데 우리 군사는 적으니, 태수께서 속히 군사를 모집하여 적에 맞서야 합니다." 유언이 그 말에 찬성하자, 즉시 방을 붙여 의병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방이 탁현에까지 이르렀을 때, 탁현에서 한 영웅이 나타났다. 그는 글공부에는 그리 밝지 않았으나, 성품이 너그럽고 온화했으며 말수가 적고 희로애락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평소 큰 뜻을 품고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는 것을 즐겼는데, 키는 7척 5촌에 귀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두 팔은 무릎을 넘었으며, 눈을 돌려 자신의 귀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얼굴은 옥처럼 빛났고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붉었다. 그는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이자 한나라 경제의 현손으로, 성은 유씨요 이름은 비이며 자는 현덕이다. 옛날 유승의 아들 유정이 한나라 무제 때 탁록정후에 봉해졌으나, 나중에 종묘제사에 바치는 황금(주금, 酎金)이 규정에 미치지 못한 일에 연루되어 작위를 잃는 바람에 그 후손 중 한 갈래가 탁현에 남게 된 것이다. 유비의 조부는 유웅이고 아버지는 유홍이다. 유홍은 효렴으로 추천되어 관직에 몸담기도 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 유비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어 홀로 되었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여 짚신을 만들고 자리를 짜서 생계를 이어갔다. 집은 탁현 누상촌에 있었다. 그 집 동남쪽에는 높이가 5장이나 되는 커다란 뽕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커다란 수레 덮개처럼 보였다. 관상가들은 "이 집에서 반드시 귀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비가 어릴 적 나무 아래에서 마을 아이들과 놀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장차 천자가 되면, 저 나무를 수레 덮개로 삼으리라." 숙부 유원기가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겨 "이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유비의 집이 가난한 것을 보고 자주 도와주었다. 유비가 15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권유로 공부를 하러 떠나 정현과 노식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공손찬 등과 벗이 되었다. 유언이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 방을 붙였을 때, 유비의 나이는 이미 스물여덟 살이었다.

방을 본 유비는 크게 탄식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물었다. "대장부라면 나라를 위해 힘을 써야 하거늘, 어찌하여 탄식만 하고 계시오?" 유비가 그를 돌아보니, 키는 여덟 자에 달하고 눈은 표범처럼 크고 둥글었으며, 턱은 제비처럼 가름하고 수염은 호랑이처럼 뽕뽕했다.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웅장하고 기세는 달리는 말처럼 힘이 넘쳤다. 유비는 그의 생김새가 범상치 않음을 보고 이름을 물었다. 그가 말했다. "제 성은 장씨요, 이름은 비이며, 자는 익덕이라 합니다. 대대로 탁군에 살며 꽤 넓은 농장이 있어 술을 팔고 돼지를 잡으며 생계를 잇고 있는데,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방금 공께서 방을 보며 탄식하시는 것을 보고 여쭙었습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나는 본래 한나라 황실의 종친인 유비라고 합니다. 이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적을 물리쳐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나, 힘이 부족함을 한탄하며 탄식했을 뿐입니다." 장비가 말

했다. "내게 재산이 좀 있으니, 고을의 용맹한 자들을 모집하여 공과 함께 큰일을 도모해 보는 것이 어떻겠소?" 유비는 매우 기뻐하며 장비와 함께 마을 주막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한창 술을 마시던 중, 한 거한이 수레 하나를 밀고 주막 문 앞에 멈춰 서더니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곧장 주모를 불러 외쳤다. "어서 술을 가져오너라! 어서 마시고 성안으로 들어가 군에 입대해야겠다." 유비가 그를 살펴보니, 키는 아홉 자에 수염은 두 자나 길게 늘어져 있었다. 얼굴은 잘 익은 대추처럼 붉고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붉었으며, 눈은 봉황의 눈처럼 길고 눈썹은 누에가 누워 있는 듯했다. 모습이 당당하고 위풍이 넘쳤다. 유비는 그를 불러 함께 앉기를 청하며 이름을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내 성은 관씨요, 이름은 우이며, 자는 장생이라 하오. 나중에 운장으로 고쳤소. 하동 해량 사람인데, 본래 그곳의 세도가가 권세를 믿고 남을 괴롭히기에 내가 그를 죽이고 강호를 떠돌며 떠돌아다닌 지 5, 6년이 되었소. 이제 이곳에서 군사를 모집해 적을 물리친다는 말을 듣고 응모하러 왔소." 유비가 자신의 뜻을 말하자 관우는 크게 기뻐했다. 세 사람은 함께 장비의 장원으로 가서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 의논하였다.

장비가 말했다. "우리 장원 뒤편에 복숭아꽃이 활짝 핀 복숭아밭이 있습니다. 내일 그곳에서 천지에 제사를 지내며 우리 세 사람이 형제의 의를 맺읍시다. 마음을 합쳐 힘을 모아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유비와 관우도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 날, 복숭아밭에서 유비는 검은 소와 흰 말을 준비해 제사상을 차렸다. 세 사람은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 뒤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비록 성은 다르나 오늘 형제의 의를 맺었으니,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고 위태로운 이를 구하겠습니다.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하겠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는 않으나, 오직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늘과 땅이시여, 이 마음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만약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는다면 하늘과 땅이 함께 벌할 것입니다!" 맹세를 마친 뒤 관우와 장비는 유비를 형으로 모셨고, 관우가 그다음, 장비가 막내 형제가 되었다. 천지에 제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소를 잡고 술을 차려 마을의 용사 300여 명을 불러 모아 북송아밭에서 흥겹게 술을 마셨다. 다음 날 무기를 정비하려 했으나, 타고 다닐 말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손님 두 명이 한 무리의 일꾼을 거느리고 말 떼를 몰아 장원으로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유비가 말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세 사람은 장원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알고 보니 두 손님은 중산 출신의 큰 상인인 장세평과 소쌍이었다. 그들은 매년 북쪽으로 말을 팔러 다니던 중, 최근 도적이 들끓는 바람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유비는 두 사람을 장원으로 모셔 술을 대접하며, 도적을 토벌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두 상인은 크게 기뻐하며 좋은 말 50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비용으로 쓸 금은 500냥과 빈철 1,000근을 선물로 주었다. 유비는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즉시 뛰어난 장인을 불러 쌍검을 만들었다. 관우는 무게가 82근이나 나가는 '냉염거'라는 별칭의 청룡언월도를 만들었고, 장비는 한 장 여덟 자(丈八) 길이의 점강창을 만들었다. 세 사람은 각자 갑옷을 갖추어 입고 마을 용사 500여 명을 모아 추정을 찾아갔다. 추정은 그들을 유주 태수인 유언에게 인도했다. 세 사람이 인사를 마친 뒤 서로의 이

름을 알렸는데, 유비가 자신이 황실의 종친임을 밝히자 유언은 크게 기뻐하며 유비를 조카로 삼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황건적의 장수 정원지가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탁군을 침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주 태수 유언은 교위 추정에게 명하여 유비 일행 세 사람과 군사 500명을 이끌고 나가 적을 격파하게 했다. 유비 일행은 기쁜 마음으로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여 대흥산 아래에 이르러 적군과 마주쳤다. 적들은 모두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에 노란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양측 군대가 대치하자 유비가 말을 몰고 나갔다. 유비의 왼쪽에는 관우가, 오른쪽에는 장비가 자리했다. 유비가 채찍을 휘두르며 크게 꾸짖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역적놈들아, 어찌 어서 항복하지 않느냐!" 정원지는 크게 분노하여 부장 등무를 보내 싸우게 했다. 이때 장비가 한 장 여덟 자나 되는 장팔사모(丈八蛇矛)를 앞세워 돌진하더니, 창을 휘두르는 순간 등무의 심장을 찔러 말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정원지는 부장 등무가 패하는 것을 보고는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곧장 장비를 공격했다. 관우가 큰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맞서 나갔다. 정원지는 관우의 기세에 깜짝 놀라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관우의 칼날에 몸이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후대의 시인이 이 두 사람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영웅의 기개가 오늘날 빛을 발하니, 창과 칼을 휘두르며 그 위력을 시험하리라. 처음 세상에 나와 위엄을 떨치며, 천하에 이름을 떨칠 준비를 마쳤도다.

황건적 무리는 정원지가 베이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모두 등을 돌리고 달아났다. 유비가 군사를 몰아 추격하자 항복하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았고, 유비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유언은 직접 마중을 나가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상을 내렸다.

다음 날, 청주 태수 공경으로부터 황건적이 성을 포위하여 곧 함락 될 위기에 처했으니 구원병을 보내달라는 긴급한 서신이 도착했다. 유비는 유언과 이 일을 상의했다. 유비가 말했다. "제가 가서 구하겠습니다." 유언은 추정에게 군사 오천 명을 주어 유비, 관우, 장비와 함께 청주로 구원하러 가도록 명했다.

적들은 구원병이 도착한 것을 보고 병력을 나누어 뒤섞여 싸웠다. 유비는 병력이 적어 적을 당해내기 어려웠기에, 30리쯤 물러난 곳에 진을 쳤다. 유비가 관우와 장비에게 말했다. "적의 수는 많은데 우리 쪽은 적습니다. 반드시 기습 작전을 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관우에게 천 명의 군사를 주어 산 왼편에 매복시키고, 장비에게도 천 명의 군사를 주어 산 오른편에 매복하게 했다. 나중에 징을 울리면 동시에 나타나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유비는 추정과 함께 군사를 몰아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적진으로 진격했다. 적들이 맞서 싸우자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슬그머니 후퇴했다. 적들은 기세를 몰아 추격해 왔는데, 적들이 막 산 고개를 넘어서는 순간 유비의 군대에서 일제히 징을 울렸다. 그러자 좌우에 매복했던 두 군대가 동시에 나타났고, 유비의 본대가 몸을 돌려 다시 적을 공격했다. 세 방향에서 협공을 당하자 황건적은 크게 무너졌다. 유비의 군대는 적을 몰아 청주 성 아래까지 쫓아갔고, 태수 공경 역시 민병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전투를 도왔다. 적들은 대패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았고, 마침내 청주의 포위망을 풀 수 있었다.

후세의 사람들이 유비를 찬양하며 지은 시는 이러하다.

전략을 짜고 계산을 함에 신통한 공이 있으니, 두 마리 호랑이도 결국 한 마리 용에게는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위대한 업적을 남길 것이니, 마땅히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릴 주인공이 될 것이다.

공경이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격려를 마친 뒤, 추정이 돌아가려 하자 유비가 말했다. "최근 중랑장 노식이 반란군의 우두머리 장각과 광종에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식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으니, 그를 도우러 가겠습니다." 이에 추정은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고,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본인 부대원 500명을 이끌고 광종으로 향했다. 노식의 진영에 도착한 유비는 막사로 들어가 예를 갖춘 뒤, 찾아온 목적을 상세히 밝혔다. 노식은 크게 기뻐하며 유비를 막사 앞에 머물게 하고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장각의 황건적 무리는 15만 명에 달했고, 노식은 5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 광종에서 맞섰으나 아직 승부를 가리지 못한 상태였다. 노식이 유비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적을 포위하고 있네. 적의 동생들인 장량과 장보가 영천에서 황보숭, 주준과 대치하고 있다네. 자네는 자네가 거느린 병력을 이끌고 영천으로 가서 소식을 알아본 뒤, 적을 토벌할 날짜를 잡아보게. 내가 관군 천 명을 더 보내 지원하겠네."

유비는 명령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천으로 달려갔다. 한편, 황보숭과 주준이 군사를 이끌고 적을 막아내고 있었

는데, 황건적은 싸움이 불리해지자 장사로 퇴각하여 풀을 쌓아 진영을 만들었다. 황보숭과 주준이 서로 꾀를 내어 말했다.

"적이 풀을 쌓아 진영을 만들었으니, 화공을 써야 하오."

두 사람은 즉시 군사들에게 풀 한 줍씩을 묶게 하여 몰래 매복시켜 두었다. 그날 밤, 갑자기 큰 바람이 일었다. 밤이 깊어 두경(二更)이 지난 뒤, 일제히 불을 놓았다. 황보숭과 주준이 각각 병사를 이끌고 적의 진영을 공격하니,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다. 황건적 무리는 혼비백산하여 말은 안장도 채 갖추지 못하고 사람은 갑옷도 입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다.

싸움이 날이 밝을 때까지 이어지자, 장량과 장보는 패하여 흩어진 잔군을 이끌고 길을 틀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았다. 선두에서 한 장수가 번쩍이며 나타났는데, 키는 칠 척에 눈은 가늘고 수염은 길었다. 관직은 기도위였으며, 패국 초군 사람으로 성은 조요, 이름은 조조, 자는 맹덕이다. 조조의 아버지 조숭은 본래 하후씨였으나, 중상시 조등의 양자가 되었기에 조씨 성을 따랐다. 조숭이 조조를 낳았는데,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은 아만이요, 길리라고도 불렀다. 조조는 어릴 적 사냥을 즐기고 노래와 춤을 좋아했으며, 권모술수에 능하고 기지가 넘쳤다. 조조에게는 숙부가 하나 있었는데, 조조가 절도 없이 놀아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조숭에게 이 사실을 일렀다. 조숭이 조조를 꾸짖자, 조조는 문득 꾀를 내었다. 숙부가 오는 것을 보고는 땅에 쓰러져 마치 중풍에 걸린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놀란 숙부가 조숭에게 알렸으나, 조숭이 급히 살펴보니 조조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조숭이 말했

다. "숙부가 네가 중풍에 걸렸다고 하더니, 이제 다 나았느냐?" 조조가 대답했다. "저는 원래 그런 병이 없습니다. 그저 숙부님께 사랑받지 못하니 저를 속이려 하신 것뿐입니다." 조숭은 그 말을 믿었다. 그 후로 숙부가 조조의 잘못을 말해도 조숭은 듣지 않았다. 덕분에 조조는 마음껏 방탕하게 지낼 수 있었다. 당시 교현이라는 사람이 조조에게 말하기를, "천하가 어지러워질 터인데, 세상의 흐름을 읽는 재능이 있는 자가 아니면 구제할 수 없습니다. 천하를 평안하게 할 이가 바로 당신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남양의 하옹 또한 조조를 보고는 "한나라 황실이 망해가니, 천하를 안정시킬 이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여남의 허소는 사람을 알아보는 명성이 높았다. 조조가 그를 찾아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묻자 허소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묻자 허소가 말했다. "당신은 태평한 시대라면 유능한 신하가 될 것이요, 어지러운 시대라면 간사하고 영리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스무 살 때 효렴으로 추천되어 낭이 되었고, 낙양 북도위로 임명되었다. 처음 부임하자마자 현의 네 성문에 오색 막대기 열 몇 개를 설치하고, 금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부유한 집안이라 해도 가리지 않고 엄격히 다스렸다. 중상시 건석의 숙부가 밤에 칼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순찰하던 조조에게 붙잡히자, 조조는 즉시 막대기로 그를 매질했다. 이 일로 안팎에서 감히 법을 어기는 자가 없으니 그 위명이 자자했다. 이후 돈구령을 지내다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기도위로 임명되었고, 마보병 오천 명을 이끌고 영천으로 달려가 전투를 도왔다. 마침 장량과 장보가 패하여 도망치던 차에 조조가 앞을 가로막고 크게 한바탕 싸워 적의 머리 만여 개를 베고 깃발과 북, 말 등을 엄청나게 탈취했다. 장량과 장보는 죽을 힘을 다해 싸운 끝에 겨우

탈출했다. 조조는 황보숭과 주준을 문안한 뒤,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장량과 장보를 추격해 갔다.

한편,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영천으로 향했다. 멀리서 함성이 들리고 하늘을 밝힐 듯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급히 군사를 이끌고 달려갔으나, 적들은 이미 패하여 흩어진 뒤였다. 유비는 황보숭과 주준을 만나 노식이 처한 사정을 상세히 들었다. 황보숭이 말했다. "장량과 장보의 세력이 다하고 힘이 빠졌으니, 반드시 광종으로 가서 장각에게 의탁할 것이오. 유비는 즉시 밤을 도와 그곳으로 달려가 지원하십시오." 유비는 명을 받들고 곧장 군사를 돌려 돌아갔다. 길을 가던 중, 유비는 한 무리의 군마가 창살이 달린 수레 한 대를 호송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수레에 갇힌 죄수는 다름 아닌 노식이었다. 유비는 크게 놀라 말에서 뛰어내려 그 이유를 물었다. 노식이 대답했다. "내가 장각을 포위하여 거의 승리할 뻔하였으나, 장각이 요술을 부리는 바람에 즉시 이기는 못했다네. 그러자 조정에서 황문 좌풍을 보내 상황을 살피게 하더니, 내게 뇌물을 요구하더군. 내가 '군량도 부족한데 어찌 칙사께 바칠 여윳돈이 있겠습니까?'라고 답했더니, 좌풍이 이를 원망하며 조정에 보고했네. 내가 견고한 진영을 치고도 싸우지 않아 군심을 해치고 나태하다는 내용이었지. 이에 조정이 크게 노하여 중랑장 동탁을 보내 내 병권을 뺏고 나를 압송하여 죄를 묻게 하려는 것이라네." 이 말을 들은 장비는 크게 분노하여, 노식을 구하기 위해 호송하던 군사들을 베어버리려 했다. 유비가 급히 말리며 말했다. "조정에는 엄연한 법과 공론이 있는데, 네가 어찌 경솔하게 행동하느냐?" 결국 군사들은 노식을 에워싼 채 그대로 떠나버렸다.

관우가 말했다. "노식 중랑장이 이미 붙잡혔고 다른 사람이 군사를 맡았으니,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차라리 탁군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유비가 그 말에 따르기로 하고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다. 이틀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산 너머에서 땅을 흔드는 듯한 함성이 들려왔다.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함께 말을 달려 높은 언덕에 올라 살펴보니, 한나라 군대가 크게 패하고 있었다. 뒤편에서는 황건적들이 산과 들을 가득 메운 채 몰려오고 있었는데, 깃발에는 '천공장군'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유비가 말했다. "저들은 장각의 군대! 서둘러 싸워야 한다." 세 사람은 말을 달려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장각은 마침 동탁을 패퇴시키고 기세를 몰아 달려오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의 공격을 받아 군대가 크게 혼란에 빠져 50여 리를 패퇴했다. 세 사람은 동탁을 구해 진영으로 돌아왔다. 동탁이 세 사람에게 현재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고 묻자, 유비가 "평민입니다"라고 답했다. 동탁은 유비를 매우 가볍게 여기며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유비가 물려나자 장비가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우리가 직접 피 튀기는 싸움에 뛰어들어 저놈을 구해주었는데, 저자가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인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 분이 풀리지 않겠다!" 그러고는 칼을 들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 동탁을 죽이려 했다. 과연 상황은 이러하다.

세상 인심과 이익을 좇는 형세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으니, 영웅이 지금은 한낱 평민(백신) 신세임을 그 누가 알아보겠는가? 시원시원한 장비 같은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배신자들을 모조리 처단할 수 있을 텐데! 결국 동탁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회 — 장익덕이 분노하여 독우를 채 찍질하고, 하국구가 환관을 죽이려 모의 하다

張翼德怒鞭督郵 何國舅謀誅宦豎

한편, 동탁은 자가 중영이며 농서 임조 사람이다. 하동태수 자리에 오른 뒤로 줄곧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다. 그날 동탁이 유비를 소홀히 대하자, 성격 급한 장비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 했다. 유비가 급히 관우와 함께 말리며 말했다. "그는 조정의 관리인데 어찌 함부로 죽이려 하느냐?" 장비가 대꾸했다. "저놈을 죽이지 못하면 오히려 저놈의 부하가 되어 명령을 들어야 하는데, 그건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둘째 형님이 여기 남으시겠다면 저는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은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는데 어찌 헤어질 수 있겠느냐? 차라리 다 함께 다른 곳으로 가자." 장비가 말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 분이 좀 풀리겠습니다." 이에 세 사람은 그날 밤 곧장 군사를 이끌고 주준에게 투항했다. 주준은 이들을 매우 극진히 대접하며 군사를 합쳐 장보를 토벌하러 나섰다. 이때 조조는 황보숭을 따라

장량을 토벌하기 위해 곡양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이곳에서는 주준이 장보를 공격하고 있었다. 장보는 팔구만 명에 달하는 도적 떼를 이끌고 산 뒤편에 진을 치고 있었다. 주준은 유비에게 선봉이 되어 적과 맞서 싸우라고 명했다. 장보가 부장 고승을 보내 싸움을 걸어오자, 유비는 장비를 보내 그를 격퇴하게 했다. 장비가 말을 달려 창을 내지르며 고승과 맞붙더니, 몇 합 채 되지 않아 고승을 찔러 말에서 떨어뜨렸다. 유비의 군대가 기세를 몰아 돌격하려 할 때, 장보가 말 위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든 채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하늘에서 검은 기운이 쏟아져 내려왔다. 그 검은 기운 속에서 마치 수많은 군사가 몰려오는 듯한 형상이 나타났다. 유비가 급히 군사를 돌리자 군대가 크게 혼란에 빠졌고, 결국 패하여 돌아와 주준과 대책을 논의했다. 주준이 말했다. "놈이 요술을 부리니, 내일 돼지나 양, 개를 잡아 그 피를 준비하게 하시오. 그리고 병사들을 산등성이에 매복시켰다가 적이 몰려올 때 고갯마루에서 피를 뿌리면 그 요술을 물리칠 수 있을 것ियो."

유비는 명령을 내려 관우와 장비에게 각각 군사 천 명씩을 거느리게 한 뒤, 산 뒤편의 높은 언덕에 매복시킨 뒤 돼지, 양, 개, 그리고 각종 오물과 피를 듬뿍 준비하게 했다. 다음 날, 장보가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걸어오자 유비가 맞서 나갔다. 싸움이 시작되자 장보가 요술을 부렸는데, 갑자기 바람과 천둥이 몰아치고 모래와 돌이 날아다니며 검은 기운이 하늘을 뒤덮더니, 수많은 병사와 말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다. 유비가 급히 말을 돌려 피하자 장보가 군사를 몰아 뒤쫓아왔다. 장보의 군사가 산마루를 넘으려는 찰나, 매복해 있던 관우와 장비의 군사가 신호를 보내며 준비했던 오물들을 한꺼번

에 뿌려댔다. 그러자 하늘을 떠다니던 종이 인형과 풀로 만든 말들이 속수무책으로 땅에 떨어졌고, 거세던 바람과 천둥도 멈추었으며 날리던 모래와 돌도 가라앉았다. 장보가 요술이 풀린 것을 보고 급히 군사를 물러나게 하려 했다. 이때 왼쪽에서는 관우가, 오른쪽에서는 장비가 달려들고 뒤쪽에서는 유비와 주준이 함께 추격해 들어오니, 적군은 대패하고 말았다. 유비가 장보의 깃발을 보고 말을 달려 쫓아가자, 장보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유비가 쏜 화살이 장보의 왼쪽 팔에 명중했으나, 장보는 화살을 맞은 채 겨우 탈출하여 양성으로 숨어들어 성을 굳게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주준은 군사를 이끌고 양성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한편, 황보숭의 소식을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다. 첩자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황보숭 장군께서 크게 승리하셨습니다. 조정에서 동탁이 거둬 패하자 황보숭 장군에게 그 직무를 대신하게 했는데, 장군께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각이 죽은 뒤였습니다. 장량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우리 군에 맞섰으나, 황보숭 장군께서 일곱 차례 싸움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곡양에서 장량을 베었습니다. 또한 장각의 관을 파내어 시신을 도륙하고 목을 베어 수도로 보냈으며, 남은 무리는 모두 항복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황보숭 장군을 차기장군에 임명하고 기주목을 맡겼습니다. 또한 황보숭 장군이 노식이 공을 세웠으나 죄가 없다고 상소를 올린 덕분에 조정에서 노식의 관직을 복구해 주었습니다. 조조 역시 공을 인정받아 제남상으로 임명되었으며, 곧바로 부임지로 떠날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주준은 이 소식을 듣고 군마를 재촉하여 온 힘을 다해 양성을 공격했다. 적의 형세가 위태로워지자, 적의 장수 엄정이 장보를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바치며 투항했다. 이로써 주준은 여러 군을 평정하고 승전보를 올리는 상소를 올렸다.

한편, 황건적의 잔당인 조홍, 한충, 손중 세 사람이 수만 명의 무리를 모아 바람만 불면 마을을 약탈하고 불태우며, 장각의 원수를 갚겠다고 날뛰었다. 조정에서는 주준에게 승전한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주준은 어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다. 당시 적들은 완성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는데, 주준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자 조홍은 한충을 보내 맞서 싸우게 했다. 주준은 유비, 관우, 장비에게 성의 남서쪽 모퉁이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한충은 정예병을 모두 이끌고 남서쪽 모퉁이로 적을 막으러 왔다. 그사이 주준은 철기병이천 명을 직접 이끌고 북동쪽 모퉁이를 단숨에 점령했다. 성을 잃을까 두려워진 적들은 급히 남서쪽을 버리고 돌아갔다. 유비가 뒤를 쳐서 공격하자 적들은 대패하여 완성 성 안으로 도망쳤다. 주준이 병력을 나누어 사방을 겹겹이 에워싸자 성 안의 식량이 끊겼고, 한충은 사람을 보내 항복을 청했다. 그러나 주준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유비가 말했다. "옛날 고조께서 천하를 얻으신 것은 항복하는 자들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한충의 항복을 거절하십니까?"

주준이 대답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옛날 진나라와 초나라가 싸울 때는 천하가 크게 혼란스러워 백성들이 섬길 주군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항복을 받아주고 상을 내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어 오직 황건적만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항복을 받아준다면 선한 일을 권장할 수 없습니다. 적들이 이득을 볼 때는 약탈을 일삼다가, 손해를 볼 때

만 행복한다면 이는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속셈이니 결코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유비가 다시 말했다. "행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방이 철통처럼 에워싸여 있어 적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기로 싸울 것입니다. 만 명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도 막기 힘든데, 하물며 성 안에 죽기를 각오한 수만 명의 적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동남쪽 군사를 거두어 북서쪽을 집중 공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적들은 반드시 성을 버리고 달아날 것이니, 싸울 의지가 없는 적을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준이 그 말을 옳게 여겨 곧바로 동남쪽의 군사들을 거두어 북서쪽을 향해 일제히 공격했다. 그러자 한충은 과연 군사를 이끌고 성을 버린 채 달아났다. 주준과 유비, 관우, 장비가 삼군을 이끌고 추격하며 몰아붙이니, 한충은 화살에 맞아 죽고 남은 무리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한창 추격하던 중, 조홍과 손중이 도적 떼를 이끌고 나타나 주준과 맞붙었다. 주준은 조홍의 세력이 강한 것을 보고 군사를 거두어 잠시 물러났다. 조홍은 이 기세를 몰아 완성까지 다시 빼앗았다. 주준은 1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막 공격하려는데, 갑자기 정동쪽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 선두에 선 장수는 이마가 넓고 얼굴이 큼직하며, 호랑이처럼 건장하고 곰처럼 듬직한 체구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오군 부춘 출신으로, 성은 손이고 이름은 견이며 자는 문태라, 손무의 후손이다. 열일곱

살 때 아버지와 함께 전당에 갔다가, 해적 열댓 명이 상인의 재물을 빼앗아 해안가에서 나누는 것을 보았다. 손견이 아버지에게 "저 도적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더니, 곧바로 힘차게 칼을 들고 해안으로 뛰어올라가 큰 소리로 외치며 동서로 손짓을 했다. 마치 사람을 부르는 듯한 그 모습에 도적들은 관군이 들이닥친 줄 알고 재물을 모두 버려둔 채 달아났다. 손견이 뒤쫓아가 도적 한 명을 베었다. 이 일로 이름이 알려져 교위로 추천되었다.

그 후 회계 지역에서 허창이라는 요괴 같은 도적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양명황제라 칭하며 수만 명의 무리를 모았을 때, 손견은 군 사마와 함께 용사 천여 명을 모집하여 주와 군의 군사들과 합류해 이를 격파하고 허창과 그의 아들 허소를 베었다. 자사 장민이 그 공을 표창하여 손견을 염독승, 우이승, 하비승으로 임명했다. 이제 황건적이 일어나자, 손견은 고향의 젊은이들과 여러 상인, 그리고 회수와 사수 지역의 정예병 천오백여 명을 이끌고 지원하러 나섰다.

주준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명령을 내렸다. "손견은 남문을, 유비는 북문을, 나는 서문을 공격하라. 동문은 적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열어두어라."

손견이 가장 먼저 성벽에 올라 적군 스무 명 남짓을 베어 넘기자,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이때 조홍이 말을 타고 달려와 창을 휘두르며 손견을 직접 겨냥했다. 손견은 성 위에서 몸을 날려 조홍의 창을 빼앗은 뒤, 그를 찔러 말에서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조홍의 말을 타고 이리저리 누비며 적들을 베어 나갔다.

한편, 손중이 적들을 이끌고 북문으로 돌파하려다 유비와 딱 마주쳤다. 손중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도망갈 궁리만 했다. 그 순간 유비가 활을 당겨 쏜 화살이 손중에게 정통으로 박혔고, 손중은 그 대로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뒤이어 주준의 대군이 밀려들며 적들을 몰살하니, 베어낸 적의 머리가 수만 급에 달했고 항복한 자들은 셀 수조차 없었다. 이로써 남양 일대의 열댓 개 군이 모두 평정되었다.

전쟁을 마친 주준이 수도로 돌아가자, 황제는 그를 차기장군과 하남윤으로 봉했다. 주준은 표문을 올려 손견과 유비 등의 공을 보고했다. 손견은 연줄이 있어 다른 군의 사마로 임명되어 떠났으나, 유비는 오랫동안 소식을 기다려도 임명 소식이 없었다.

세 사람은 마음이 울적하여 거리를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는데, 마침 낭중 장군이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유비가 그를 보고 다가가 그동안 세운 공적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장군은 깜짝 놀라며 유비를 따라 조정으로 들어가 황제에게 아뢰었다.

"예전에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십상시가 관직을 사고팔았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이 아니면 임용하지 않고, 원수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으니 천하가 이토록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십상시를 베어 그 머리를 남쪽 교외에 매달고, 사자를 보내 천하에 공표해야 합니다. 공을 세운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린다면 천하가 저절로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러자 십상시가 황제에게 고했다.

"장군이 주군을 속이고 있습니다."

황제는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장군을 쫓아내게 했다. 십상시들이 모여 의논했다.

"저 자는 분명 황건적을 토벌한 공이 있는데도 관직을 받지 못해 원망을 품은 모양이다. 우선은 상서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변변찮은 미관말직이나마 이름을 올려주고, 나중에 다시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유비는 정주 중산부 안희현의 현위로 임명되어, 정해진 날짜에 부임지로 떠나게 되었다. 유비는 군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친근한 수행원 스무 명 남짓만을 데리고 관우, 장비와 함께 안희현에 도착했다. 유비는 한 달 동안 현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작은 것도 침해하지 않았으니, 백성들이 모두 그 인품에 감복했다. 부임한 후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 유비가 많은 사람 앞에 앉아 있으면 관우와 장비는 곁에서 시중을 들었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전혀 지치지 않았다.

현위로 부임한 지 채 네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조정에서 군공이 있는 관리들을 정리하라는 조서가 내려왔다. 유비는 이것이 자신을 내쫓으려는 뜻인지 의심하며 마음을 졸였다. 마침 감독관인 독우가 관할 지역을 살피러 현에 도착했다. 유비는 마중을 나가 독우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독우는 말 위에 앉은 채 채찍으로 가리키는 시늉만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이 모습을 본 관우와 장비는 모두 분노했다.

독우가 역참에 도착하자 그는 남쪽을 향해 높은 자리에 앉았고, 유비는 계단 아래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독우가 물었다. "유 현위는 출신이 어디인가?" 유비가 대답했다. "저는 중산정왕의 후손입니다. 탁군에서 황건적을 토벌할 때 크고 작은 전투를 서른 차례 넘게 치러 약간의 공을 세웠고, 그 덕분에 지금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독우가 크게 호통을 쳤다. "네놈이 감히 황실의 친척이라 사칭하며 공적을 속이다니! 지금 조정에서 조서가 내려온 것은 바로 너처럼 직위를 남용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유비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저자세로 물러났다.

현으로 돌아온 유비는 현의 관리들과 이 일을 상의했다. 관리가 말했다. "독우가 위세를 부리는 것은 결국 뇌물을 받으려는 속셈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백성들에게 아주 작은 것도 침해한 적이 없는데, 어찌 재물을 가져다 바칠 수 있겠는가?" 다음 날, 독우는 먼저 현의 관리들을 불러내어 현위가 백성을 해쳤다고 거짓으로 고발하라고 협박했다. 유비가 몇 번이나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해보았으나, 그때마다 문지기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고발장을 올리지 못하게 했다.

한편, 장비는 답답한 마음에 술을 몇 잔 들이켜고는 말을 타고 관역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문앞에서 선에서 예순은 되어 보이는 노인 대여섯 명이 통곡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비가 그 이유를 묻자 노인들이 대답했다.

"독우가 현의 관리들을 핍박하며 유 공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찾아와 간곡히 호소하려 해도 들여보내 주지 않고, 오히려 문지기들이 저희를 때리고 쫓아냅니다!"

장비는 크게 분노하여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었다. 그는 곧장 말에서 내려 관역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갔다. 문지기들이 가로막으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장비는 곧장 후당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독우가 대청에 앉아 현의 관리들을 땅바닥에 묶어놓고 있었다. 장비가 크게 호통을 쳤다.

"백성을 해치는 도둑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독우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장비는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관역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는 현청 앞 말뚝에 그를 묶어버렸다. 그리고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 독우의 두 다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장비가 휘두른 버드나무 가지는 열댓 가지가 넘게 부러져 나갔다.

유비가 한창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현청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유비가 곁에 있는 이들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장비 장군이 어떤 사람을 현청 앞에 묶어놓고 매질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유비가 급히 달려가 보니, 묶여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독우였다. 유비가 놀라 그 이유를 묻자 장비가 말했다.

"백성을 괴롭히는 이런 도적놈은 매질해서 죽여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자 독우가 울며 소리쳤다. "유비 공,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유비는 본래 어진 사람이었기에 급히 장비를 꾸짖으며 매질을 멈추게 했다.

이때 곁에 있던 관우가 다가와 말했다. "형님께서는 그동안 큰 공을 많이 세우셨는데도 고작 현위라는 낮은 관직을 얻으셨고, 이제는 도리

어 독우에게 이런 모욕까지 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곳은 가시덤불 속과 같아서 난새나 봉황이 깃들 곳이 못 됩니다. 차라리 독우를 죽이고 관직을 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가, 더 큰 뜻을 도모할 방도를 찾는 것이 낫겠습니다."

유비는 관직을 상징하는 인수를 가져다 독우의 목에 걸어주며 꾸짖었다.

"네가 백성을 해친 죄를 따지면 마땅히 죽여야 하나, 이번에는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주마. 나는 이제 인수를 반납하고 이곳을 떠나겠다!"

독우는 정주 태수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보고했고, 태수는 상급 관청에 문서를 올렸으며 사람을 보내 그들을 붙잡게 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대주로 가서 유희에게 몸을 의탁했다. 유희는 유비가 한나라 황실의 종친임을 알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들을 집에 숨겨 주었다.

한편, 십상시가 막강한 권력을 움켜쥐자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 뜻에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 죽여버리자"라고 하였다. 조충과 장양은 사람을 보내 황건적을 격파한 장수와 병사들에게 금과 비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관직에서 파면해 달라고 상주하였다. 황보숭과 주준이 이를 주려 하지 않자, 조충 등은 그들의 관직을 박탈해 달라고 상소하였다. 황제는 다시 조충 등을 차기장군으로 봉하고, 장양을 비롯한 열세 명의 환관에게 모두 열후의 작위를 내렸다. 조정의 정치는 갈수록 어지러워졌고, 백성들은 탄식하며 원망하였다.

그러던 중 장사에서 도적 구성이 난을 일으켰고, 어양에서는 장거와 장순이 반란을 일으켰다. 장거는 스스로 천자라 칭하였고, 장순은 대장군이라 칭하였다. 급박한 상황을 알리는 상소문이 눈송이처럼 쏟아져 들어왔으나, 십상시는 이를 모두 숨겨두고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영제가 후원에서 십상시와 함께 연회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간의대부 유도가 불쑥 황제 앞으로 달려오더니 큰 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했다. 영제가 그 이유를 묻자 유도가 대답했다.

"천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아직도 환관들과 함께 술을 드시고 계십니까!"

영제가 되물었다.

"나라는 태평성대인데, 무슨 위급한 일이 있다는 말이나?"

유도가 다시 외쳤다.

"사방에서 도적들이 일어나 주와 군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화근은 십상시가 관직을 팔아 백성을 해치고, 황제를 속이며 권세를 휘두른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정의 강직한 선비들은 모두 떠나갔으니, 재앙이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자 십상시들이 모두 관을 벗고 황제 앞에 엎드려 말했다.

"대신들이 저희를 용납하지 않으니, 저희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디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고향으로 돌아가 가산을 모두 내놓아 군비로 보태겠습니다."

말을 마친 십상시들은 통곡하기 시작했다. 영제는 화가 나서 유도를 꾸짖었다.

"너에게도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찌하여 나만 미워하느냐!"

영제는 무사들을 불러 유도를 끌어내어 참수하게 했다. 유도는 죽어 가면서도 크게 외쳤다.

"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가련한 한나라의 천하여, 사백 년 넘게 이어온 역사가 오늘로 끝이 나는구나!"

무사가 유도를 끌고 나와 막 형을 집행하려 할 때, 한 대신이 크게 꾸짖으며 가로막았다. "손대지 마시오! 내가 가서 간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니 그는 바로 사도 진담이었다. 진담은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 황제에게 간언했다. "유간의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이려 하십니까?" 황제가 말했다. "가까운 신하를 비방하고 짐을 모욕하였느니라." 진담이 말했다. "천하의 백성들은 십상시의 살점을 뜯어먹고 싶어 하는데, 폐하께서는 그들을 부모처럼 공경하시며 아무런 공도 없는 그들에게 모두 열후의 작위를 내리셨습니다. 하물며 봉서 같은 무리들은 황건적과 결탁하여 내란을 일으키려 하는데, 폐하께서 지금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사직은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황제가 말했다. "봉서가 난을 일으켰다는 일은 분명하지 않다. 십상시 중에 어찌

충성스러운 신하가 한둘도 없겠느냐?" 진담은 계단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간언을 이어갔다. 이에 분노한 황제가 그를 끌어내라고 명하니, 진담과 유도는 모두 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날 밤, 십상시는 즉시 옥중에서 그들을 살해할 모의를 하였고, 황제의 조서를 위조하여 손견을 장사태수로 임명해 구성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쥬 날도 채 되지 않아 승전보가 전해지니, 강하 지역이 평정되었다. 조정에서는 손견을 오정후로 봉하고, 유우를 유주목으로 봉했다. 유우는 군사를 이끌고 어양으로 가서 장거와 장순을 토벌하러 나갔다. 대주의 유희가 유비를 추천하는 글을 보내자, 유우는 크게 기뻐하며 유비를 도위로 삼았다.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적의 소굴에 단숨에 도달하여 며칠 동안 격전을 벌였고, 적의 기세를 크게 꺾어 놓았다. 장순은 특히 흉포하고 성격이 잔인했으나, 부하 병사들의 마음이 변하여 장순 휘하의 두목이 장순을 암살하고 그 머리를 바치며 무리를 이끌고 항복해 왔다. 장거 역시 형세가 기울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이로써 어양 지역이 모두 평정되었다. 유우는 유비가 큰 공을 세웠다고 조정에 보고하였고, 조정에서는 독우를 매질한 죄를 사면해 주고 유비를 하밀승으로 삼았다가 다시 고당위로 승진시켰다. 공손찬 또한 유비의 이전 공적을 보고하며 그를 별부사마로 추천하고 평원현령으로 삼게 했다. 유비는 평원에 머물며 꽤 많은 식량과 군마를 확보하여 예전의 위용을 다시 갖추어 나갔다. 한편, 유우는 도적을 평정한 공으로 태위에 봉해졌다.

중평 6년 여름 4월, 영제가 병이 위중해지자 대장군 하진은 궁으로 불러 들어가 뒷일을 의논했다. 하진은 누이가 궁에 들어가 귀인이 된 데다 황자 유변을 낳으면서 하후가 황후가 되었기에, 이를 계기로 권력

을 쥐고 중책을 맡게 된 인물이었다. 영제는 또한 왕미인을 총애하여 황자 유협을 낳았다. 하후 황후는 이를 시기하여 독약을 써서 왕미인을 죽였다. 황자 유협은 동태후의 궁에서 길러졌다. 동태후는 영제의 어머니로, 해독정후 유장의 아내였다. 본래 환제가 후사가 없었기에 해독정후의 아들을 데려다 황제로 세웠으니 그가 바로 영제였다. 영제가 대통을 이어받자 양모를 궁으로 모셔와 태후로 높였다. 동태후는 일찍이 영제에게 황자 유협을 태자로 세우라고 권했다. 영제 역시 유협을 편애하여 그를 세우고자 했다.

당시 영제의 병세가 위독한 상황에서 중상시 견석이 아뢰기를, "만약 유협을 세우려 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하진을 처단하여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라고 했다. 영제는 그 말을 옳게 여겨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하진이 궁문에 다다랐을 때, 사마 판은이 하진에게 은밀히 말했다. "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견석이 대장군을 죽이려 모의하고 있습니다." 하진은 크게 놀라 급히 사가로 돌아가 여러 대신을 불러 모은 뒤, 환관들을 모조리 처단하려 했다. 그때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몸을 일으켜 나서며 말했다. "환관의 세력이 충제와 질제 시절부터 시작되어 조정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데, 어찌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만약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면 반드시 멸족의 화를 당할 것이니, 부디 자세히 살펴 결정하십시오." 하진이 보니 그는 바로 전군교위 조조였다. 하진이 꾸짖었다. "네놈 같은 애송이가 조정의 큰일을 어찌 알겠느냐!"

하진이 망설이고 있을 때 판은이 다시 달려와 말했다. "황제가 이미 승하하셨습니다. 지금 견석이 십상시와 모의하여 임금의 죽음을 비밀

로 한 채, 조서를 위조하여 하진 대장군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는 후환을 없애고 황자 유협을 즉위시키려는 계략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자가 도착하여, 하진에게 뒷일을 결정하기 위해 속히 입궁하라고 명했다. 조조가 말했다. "오늘의 계획은 먼저 군주의 자리를 바로 세운 뒤에 도적들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진이 물었다. "누가 감히 나와 함께 군주의 자리를 바로 세우고 도적을 물리치겠느냐?" 그러자 한 사람이 다시 나서며 외쳤다. "정예병 5천 명을 빌려주신다면, 관문을 뚫고 들어가 새 임금을 세우고 환관들을 모조리 처단하여 조정을 깨끗이 청소하고 천하를 평안케 하겠습니다!" 하진이 보니 그는 사도 원봉의 아들이자 원외의 조카인 원소였다. 원소의 자는 본초이며, 당시 사례교위였다. 하진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어림군 5천 명을 뽑았다. 원소는 갑옷을 갖춰 입었다. 하진은 하옹, 순유, 정태 등 대신 30여 명을 거느리고 차례로 궁에 들어가 영제의 시신 앞에 선 태자 유변을 부축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렸다.

백관이 예를 갖추어 인사를 마치자, 원소는 궁 안으로 들어가 견석을 붙잡았다. 견석은 당황하여 황제의 정원 꽃그늘 아래로 도망쳤으나, 중상시 곽승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견석이 거느리던 금군들은 모두 항복했다. 원소가 하진에게 말했다. "환관들이 무리를 지어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세를 몰아 그들을 모조리 처단해야 합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안 장양 일행은 황급히 하태후에게 달려가 고했다. "처음 모의하여 대장군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자는 견석 한 사람뿐이며, 저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군께서 원소의 말을 듣고 저희를 모두 죽이려 하시니, 부디 마님께서 저희를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하태후가 말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 주마." 그러고는 하진을 들여보내라는 명을 내렸다. 태후는 하진을 불러 은밀히 일렀다. "나와 그대는 출신이 미천하여 장양 같은 자들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 이제 견석이 어지러운 일을 벌이다 죽었으니, 어찌 남의 말만 믿고 환관들을 모두 죽이려 하는가?"

하진은 태후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 관리들에게 말했다. "견석이 나를 해치려 모의했으니 그 가문을 멸하는 것은 마땅하나, 나머지 환관들에게는 함부로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러자 원소가 말했다. "풀의 뿌리까지 뽑아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화근이 되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진이 대답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그대는 더 말하지 말게." 관리들은 모두 물러갔다.

다음 날, 태후는 하진에게 상서사 업무를 맡기고 다른 이들에게는 각각 관직을 내려 봉했다. 동태후는 장양 등을 궁으로 불러들여 상의하며 말했다. "하진의 누이는 처음 내가 끌어준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그의 아들이 황제로 즉위하니, 안팎의 신료들이 모두 그의 심복이 되었구나. 위세가 너무 지나치니 내가 앞으로 어찌해야 하겠느냐?" 장양이 아뢰었다. "마마께서는 조정에 나가 발을 드리우고 정사를 돌보셔야 합니다. 황자를 왕으로 봉하고, 국구인 동중을 중직에 앉혀 군권을 장악하게 하며, 저희 같은 신하들을 중용하신다면 큰일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동태후는 크게 기뻐했다. 다음 날 조례를 열자 동태후는 교지

를 내려 황자를 진류왕으로 봉하고, 동중을 표기장군으로 삼았으며, 장양 등도 함께 정사에 참여하게 했다.

한편, 하태후는 동태후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보고 궁중에서 연회를 열어 동태후를 초대했다.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오르자 하태후가 일어나 잔을 받들어 들고 다시 절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 부인인데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다. 옛날 여후는 권력을 휘두르다 종족 천여 명을 몰살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궁 안에 머물러야 하며, 조정의 큰일은 대신과 원로들이 스스로 상의하여 결정하게 두는 것이 국가의 다행입니다. 부디 발을 드리우고 정사를 살피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그러자 동태후가 크게 노하며 말했다. “네가 왕미인을 독살하고 질투를 품고 있구나! 이제 네 아들이 임금이 되었고 네 오라비 하진의 세력이 강해지니, 감히 함부로 말을 내뱉는구나! 내가 명을 내려 표기장군에게 네 오라비의 목을 치라 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다!” 하태후 역시 화가 나서 말했다. “나는 좋은 뜻으로 권한 것인데 어찌 화를 내느냐?” 동태후가 쏘아붙였다. “네 집안은 고기나 술이나 파는 천한 집안인데, 대체 무슨 식견이 있다고 그러느냐!”

두 황후가 서로 권력을 다투자, 장양 등 환관들은 각각 양쪽 태후를 권하여 저마다의 궁으로 돌아가시게 했다. 하황후는 밤사이에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여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하진은 궁에서 나와 삼공을 불러 함께 의논하기를, 내일 아침 일찍 조회를 열어 조정 대신들로 하여금 '동태후는 원래 번비(藩妃) 출신이라 궁에 오래 머무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하간으로 옮겨 안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해진 날짜 안에 즉시 도성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상주하게 하기로 정했다.

하진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동태후를 모셔 나가게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군을 동원해 표기장군 동중의 저택을 포위하고 인장과 관인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사태가 급박함을 깨달은 동중은 후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들이 곡을 하고 나서야 군사들이 물러갔다. 장양과 단규는 동태후의 세력이 이미 꺾인 것을 보고, 금과 구슬, 진귀한 노리개로 하진의 동생 하곡과 그의 어머니 무양군을 매수했다. 그들에게 아침저녁으로 하황후를 찾아가 동태후를 감싸는 말을 잘 하도록 시켰고, 덕분에 십상시는 다시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6월, 하진은 몰래 사람을 보내 하간의 역참에서 동태후를 독살한 뒤, 시신을 거두어 낙양으로 돌아와 문릉에 장사 지냈다. 하진은 병을 핑계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사례교위 원소가 하진을 찾아가 말했다.

"장양과 단규 등이 밖에서 대장군께서 동태후를 독살하고 큰일을 도모하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환관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두무가 환관들을 처단하려 했으나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 오히려 화를 입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대장군의 형제들과 부곡, 장수들은 모두 영웅적인 인재들이니, 만약 힘을 다한다면 일은 손바닥 안의 일처럼 쉬울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이 도우시는 기회이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진이 "일단 좀 더 의논해 보겠소"라고 답하자, 측근들이 장양에게 이 사실을 비밀리에 보고했다. 장양 일행은 다시 하묘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막대한 뇌물을 보냈다. 하묘는 하태후에게 들어가 이렇게 고했다.

"대장군께서 새 임금을 보필하면서 인자함을 베풀기는커녕 살육에만 전념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서로운 징조도 없는데 십상시를 죽이려 드는 것은 난리를 일으키려는 수작입니다."

하태후는 이 말을 듣고 하묘의 뜻을 받아들였다.

잠시 후, 하진은 궁에 들어가 하태후에게 환관들을 처단하겠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하태후가 말했다. "환관들이 궁궐을 관리하는 것은 한 나라 때부터 내려온 관례다. 선황제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옛 신하들을 죽이려 한다면 이는 종묘를 경시하는 처사다." 하진은 본래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었기에, 태후의 말을 듣고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며 물러났다.

이때 원소가 하진을 맞이하며 물었다. "큰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진이 대답했다. "태후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를 어찌면 좋겠소?" 그러자 원소가 말했다. "그렇다면 사방의 영웅과 인재들을 불러 모아 군사를 일으켜 낙양으로 오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환관들을 모조리 처단하면 됩니다. 지금은 사태가 급박하니 태후께서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 계획이 정말 뛰어나구려!" 하진은 즉시 격문을 작성하여 각 지방에 보내, 영웅들을 낙양으로 불러 모았다.

주부 진림이 말했다. "안 됩니다! 속담에 '눈을 가리고 제비와 참새를 잡으려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미물조차 속여서 뜻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국가의 중대사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대장군께서는 황제의 위엄을 등에 업고 군권의 요직을 장악하셨으니, 마치 용이 날아오르고 호랑이가 걷는 듯 기세가 당당하여 마음먹은 대로 천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환관들을 처단하고자 하신다면, 마치 뜨거운 화로에 털을 갖다 대는 것처럼 순식간에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저 신속하게 발동하여 권위를 세우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다면 하늘과 사람의 뜻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지방의 대신들에게 격문을 보내 불러 모은다면, 그들이 도성 근처까지 몰려와 영웅들이 한데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다른 마음을 품게 되어, 결국 무기를 들고 대립하는 형국이 되고 적에게 빌미를 내주게 되니, 공을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난리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겁쟁이나 할 법한 생각이다!"

그때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더니 말했다. "이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인데, 어찌 그리 말이 많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니 바로 조조였다.

이에 시를 읊는다. "곁에 있는 간사한 무리를 없애려거든, 조정의 지혜로운 신하가 내놓는 계책을 들어야 하리라."

조조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회 — 온명원에서 동탁이 정원을 꾸 짚고, 금구슬을 보내 이숙이 여포를 설득 하다

議溫明董卓叱丁原 餽金珠李肅說呂布

한편, 조조가 하진에게 말했다.

"환관의 폐단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다만 황제께서 그들에게 권력과 총애를 주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그들의 죄를 다스리려 하신다면, 우두머리 악인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저 옥리 한 명에게 맡기면 충분할 것을, 어찌하여 번거롭게 외부 병사들까지 불러들이려 하십니까? 그들을 모조리 죽이려 들면 일이 반드시 새어 나갈 것이니, 저는 그 일이 반드시 실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진이 노하며 말했다.

"맹덕, 너도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냐?"

조조는 물러나며 말했다.

"천하를 어지럽힐 자는 반드시 하진이로구나."

하진은 곧 몰래 사신에게 밀조를 들려 보내, 밤낮없이 각 지역의 진영으로 달려가게 했다.

한편, 전장군이자 태향후이며 서량 자사인 동탁은 예전에 황건적의 난을 진압할 때 공을 세우지 못해 조정으로부터 죄를 물을 뻔했으나, 십상시에게 뇌물을 바쳐 화를 면했다. 그 후 조정의 권세가들과 결탁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고, 서주의 대군 20만 명을 거느리게 되자 늘 신하답지 못한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황제의 조서를 받게 되자 크게 기뻐하며 군마를 정비해 차례로 행군을 시작했다. 동탁은 사위인 중랑장 우보에게 섬서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등을 거느리고 군사를 이끌어 낙양으로 향했다.

동탁의 사위이자 책사인 이유가 말했다. "지금 비록 조서를 받긴 했으나, 그 과정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보내 상소문을 올려 명분을 바로 세운다면 큰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동탁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상소문을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천하가 이토록 어지럽고 반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모두 환관인 장양 등이 하늘의 도리를 업신여기고 무례하게 굴기 때문입니다. 신이 듣기로, 끓는 물을 퍼올렸다 다시 부어 끓는 것을 막느니 차라리 아궁이의 땀감을 치우는 것이 낫고, 종기는 터뜨리는 것이 비록 아프더라도

독을 키우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신이 감히 종과 복을 울리며 낙양으로 들어가 장양 등을 제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사직과 천하에 큰 다행이 될 것입니다!"

하진이 상소문을 받아 이를 대신들에게 보여주었다. 시어사 정태가 간언하며 말했다. "동탁은 굶주린 이리나 승냥이 같은 자입니다. 그런 자를 도성 안으로 불러들였다가는 반드시 사람들을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하진이 대답했다. "그대는 의심이 너무 많아 큰일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구려." 노식 또한 간언했다. "제가 평소 동탁의 됃됨이를 보아하니 겉으로는 선량해 보여도 마음은 잔인한 자입니다. 그가 일단 금궁에 들어오면 반드시 큰 화근이 생길 것입니다. 차라리 그가 오지 못하게 막아 난리가 나는 것을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듣지 않았다. 결국 정태와 노식은 모두 관직을 버리고 떠나갔다. 조정의 대신들 중 떠나간 이가 절반을 넘었다. 하진은 사람을 보내 먼지에서 동탁을 맞이하려 했으나, 동탁은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장양을 비롯한 환관들은 외부 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의논하며 말했다. "이것은 하진의 계책이다. 우리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멸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즉시 장락궁 가덕문 안에 칼과 도끼를 든 무사 50명을 매복시킨 뒤, 하태후를 찾아가 고했다. "지금 대장군이 조서를 위조해 외부 군대를 낙양으로 불러들여 저희를 멸하려 하니, 부디 마마께서 가련히 여기시어 구해주시옵소서." 태후가 말했다. "그대들은 대장군의 관저로 가서 죄를 빌도록 하라." 그러자 장양이 말했다. "만약 대장군의 관저로 간다면 저희는 온

가족이 가루가 될 것입니다. 부디 마마께서 대장군을 궁으로 불러들여 이를 말려주시옵소서. 만약 대장군이 따르지 않는다면, 저희는 마마 앞에 나아가 죽음을 청하겠습니다." 태후는 결국 조서를 내려 하진을 부르라고 명했다.

하진은 조서를 받자마자 곧장 움직이려 했다. 이때 주부 진림이 간언했다. "태후의 이번 조서는 필시 십상시의 계책일 것이니,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입니다." 하진이 말했다. "태후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무슨 화가 있겠느냐?" 원소가 말했다. "이미 계책이 새 나가고 일이 드러났는데, 장군께서는 아직도 궁으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조조가 거들었다. "먼저 십상시를 불러낸 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다. 내가 천하의 권력을 쥐고 있는데, 십상시 따위가 감히 어찌할 수 있겠느냐?" 원소가 말했다. "장군께서 정 가시겠다면, 저희가 무장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따라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에 원소와 조조는 각각 정예병 500명을 뽑았고, 원소의 동생 원술에게 그 병사들을 이끌게 했다. 원술은 갑옷을 갖춰 입고 병사들을 이끌어 청새문 밖에 배치했다. 원소와 조조는 검을 차고 하진을 호위하며 장락궁 앞까지 갔다.

그때 황문의 전령이 황제의 뜻을 전했다. "태후께서 특별히 대장군만을 부르셨으니, 다른 사람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이 명령에 원소와 조조 등은 모두 궁문 밖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하진은 위풍당당하게 궁 안으로 들어갔다. 가덕전 문 앞에 다다르자 장양과 단규가 마중 나와 좌우에서 하진을 에워쌌다. 하진이 크게 놀라자 장양이 매서

운 목소리로 하진을 꾸짖었다. "동태후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함부로 독살하였느냐? 국모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병을 핑계로 나오지도 않더니! 너는 본래 고기나 술을 팔던 미천한 자였으나, 우리가 천자께 추천하여 이토록 영화롭고 귀하게 만들어 주었다. 보답하기는커녕 도리어 해칠 모의를 하다니! 네가 우리를 매우 더럽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깨끗한 자는 대체 누구란 말이나?" 하진이 당황하여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 했으나, 궁문은 이미 모두 닫혀 있었고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달려 나와 하진을 베어 두 동강을 내버렸다.

후대의 시인이 이를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한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 천명이 다했으니, 대책 없는 하진이 삼공의 자리에 올랐구나. 충신들의 간언을 몇 번이나 듣지 않더니, 결국 궁궐 안에서 칼날을 피하지 못했네."

장양 일당이 하진을 죽인 뒤, 원소가 한참 동안 하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궁궐 문밖에서 크게 소리쳤다. "대장군님, 수레에 오르십시오!" 그러자 장양 일당이 하진의 머리를 담장 너머로 던지며 이렇게 외쳤다. "하진이 반역을 꾀하다 이미 처단되었다! 그 외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사면해주겠다!" 원소가 매서운 목소리로 다시 크게 외쳤다. "환관들이 대신을 암살했다! 악당들을 처단하려는 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도와라!" 하진의 부하인 오광이 청쇄문 밖에서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원술은 군사를 이끌고 궁궐 안으로 돌진하여 환관들을 마주하자,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죽여버렸다. 원소와 조조도 관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다. 조충, 정광, 하운, 곽승 네 명은 취화루 앞으로 몰려가 갈가리 찢겨 죽임을 당했다.

궁궐 안은 하늘을 찌를 듯한 불길이 치솟았다. 장양, 단규, 조절, 후람은 태후와 태자, 그리고 진류왕을 납치하여 내성으로 옮긴 뒤 뒷길을 통해 북궁으로 도망쳤다. 한편, 관직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던 노식은 궁궐에서 난리가 일어난 것을 보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채 누각 아래서 있었다. 멀리서 단규가 태후를 위협하며 끌고 오는 것을 본 노식이 크게 꾸짖었다. "단규 이 역적놈아, 감히 어찌 태후를 납치하려 하느냐!" 단규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돌려 달아났다. 태후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자 노식이 급히 구해낸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한편, 오광이 내정으로 들이닥쳤을 때 하묘 역시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오광이 크게 외쳤다. "하묘가 환관들과 공모하여 제 형을 해쳤으니, 함께 죽어야 한다!" 사람들이 모두 "형을 해친 역적을 베어 버리자!"라고 외치며 달려들었다. 하묘는 도망치려 했으나 사방에서 포위당해 결국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원소는 다시 군사들에게 명하여 십상시의 가족들을 살살이 찾아내 죽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몰살하였는데, 수염이 없는 사람까지 실수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조조는 궁궐의 불을 끄며 태후에게 정사를 돌봐달라고 청하는 한편, 병사를 보내 장양 일당을 추적하고 소제를 찾아 나섰다.

한편, 장양과 단규는 소제와 진류왕을 끼고 연기를 무릅쓰며 불길을 헤치고 밤새도록 북망산으로 달아났다. 약 삼경(한밤중) 무렵이 되자 뒤편에서 큰 함성과 함께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하남 중부의 연리 민공이 "역적들은 거기 서라!"라고 크게 외치며 추격해 왔다. 장양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얼른 강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제와 진

류왕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어 감히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강가 풀숲 사이에 엎드려 숨죽였다. 군사들은 흩어져 황제를 찾으려 했으나 소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소제와 진류왕은 사경(새벽 1~3시) 무렵까지 풀숲에 엎드려 있었는데, 이슬은 내려앉고 배는 고파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들킬까 봐 소리를 죽인 채 풀숲에 몸을 숨겼다. 진류왕이 말했다.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 어서 다른 살길을 찾아야 하오." 이에 두 사람은 옷을 서로 묶어 몸을 지탱하며 강가로 기어 올라갔다. 사방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어둠까지 깔려 있어 길을 찾기가 막막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가 무리를 지어 나타나더니 황제의 앞에서 빛을 내며 맴돌기 시작했다. 진류왕이 말했다. "하늘이 우리 형제를 돕는구나!" 두 사람은 반딧불이의 빛을 따라 걸었고, 점차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경(새벽녘)에 이르자 발이 너무 아파 더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산등성이 근처의 풀더미를 발견한 소제와 진류왕은 그 옆에 몸을 누었다. 풀더미 앞에는 커다란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 집 주인은 밤중에 두 개의 붉은 해가 저택 뒤로 떨어지는 꿈을 꾸고 놀라 잠에서 깼다. 그는 옷을 걸치고 문밖으로 나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저택 뒤쪽 풀더미 위로 붉은 빛이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가 보니, 바로 두 사람이 풀가에 누워 있는 것이었다.

집 주인이 물었다. "어린 소년들이여, 어느 집 자식들이냐?" 소제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진류왕이 소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지금의 황제 폐하이시다. 십상시의 난을 피해 이곳으로 피난을 오

셨고, 나는 황제의 동생인 진류왕이다." 집 주인이 크게 놀라며 다시 절을 올렸다. "저는 전임 사도 최열의 동생인 최의라고 합니다. 십상시가 관직을 팔고 어진 이를 시기하는 것을 보고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소제를 부축해 저택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무릎을 꿇은 채 음식과 술을 대접했다.

한편, 민공이 단규를 뒤쫓아 따라잡은 뒤 황제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단규는 길 중간에서 황제를 놓쳤으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공은 즉시 단규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말 안장에 매단 뒤, 병사들을 나누어 사방으로 흩어져 찾게 했다. 그러고는 자신도 말 한 마리를 타고 길을 따라 홀로 추격했다. 그러다 우연히 최의의 장원에 이르렀는데, 최의가 잘린 머리를 보고 사연을 묻자 민공이 상세히 설명했다. 최의가 민공을 이끌고 황제를 뵈자, 황제와 신하들은 통곡했다. 민공이 말했다. "나라는 하루라도 임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폐하, 부디 도성으로 돌아가소서." 최의의 장원에는 마른 말 한 마리뿐이라 황제와 함께 나누어 타야 했고, 민공은 진류왕과 한 말에 같이 올라탔다. 장원을 떠나 채 3리도 못 갔을 때, 사도 왕윤과 태위 양표, 좌군교위 순우경, 우군교위 조맹, 후군교위 포신, 중군교위 원소 등 수백 명의 군사들과 무리가 수레를 뒤따라왔다. 황제와 신하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우선 사람을 보내 단규의 머리를 도성으로 보내 호령하게 했다. 그리고 좋은 말을 새로 구해 황제와 진류왕이 탈 수 있게 한 뒤, 황제를 호위하며 도성으로 향했다. 예전에 낙양의 아이들이 "황제는 황제가 아니고, 왕은 왕이 아니니, 천 승 만 기가 북망산으로 달려가리라"라고 노래했는데, 이제 보니 과연 그 예언이 들어맞은 것이었다.

황제의 행렬이 채 몇 리도 가지 못했을 때, 갑자기 깃발이 하늘을 뒤덮고 먼지가 하늘을 가리더니 한 무리의 군마가 달려왔다. 백관들은 안색이 변했고 황제 또한 크게 놀랐다. 원소가 말을 달려 나아가 누구냐고 물었다. 화려한 깃발 사이로 장수 한 명이 달려 나오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천자는 어디 계시는가!" 황제는 몸을 떨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이때 진류왕이 말을 몰아 앞으로 나서며 꾸짖었다. "오는 자가 누구냐?" 동탁이 대답했다. "서량 자사 동탁이오." 진류왕이 다시 물었다. "그대는 황제를 보위하러 왔는가, 아니면 납치하러 왔는가?" 동탁이 응답했다. "오직 보위하기 위해 왔을 뿐이오." 진류왕이 말했다. "보위하러 왔다면 천자가 여기 계시거늘, 어찌 말에서 내리지 않는가?" 동탁은 깜짝 놀라 황급히 말에서 내려 길가에 엎드려 절했다. 진류왕은 말로써 동탁을 달래며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게 대처했다. 동탁은 속으로 그 기개가 놀라워 이미 황제를 갈아치울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날 궁으로 돌아온 동탁은 하태후를 만나 함께 통곡했다. 궁궐 안을 살펴보니 전국옥새가 사라지고 없었다. 동탁은 성 밖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매일 철갑을 두른 기병을 이끌고 성안으로 들어와 저잣거리를 제멋대로 휘저으니,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다. 동탁은 궁궐을 드나들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후군교위 포신이 원소를 찾아가 동탁에게 반드시 판 마음이 있을 것이니 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자, 원소는 "조정이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으니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했다. 포신이 왕윤을 찾아가서도 같은 말을 했으나, 왕윤은 "일단 의논해보겠다"라고만 했다. 결국 포신은 자기 부대의 군사들을 이끌고 태산으로 떠나버렸다.

동탁은 하진의 부하들을 포섭하여 그 군사들을 모두 자기 수하로 만들었다. 동탁이 이유에게 은밀히 말했다. “나는 지금의 황제를 폐위하고 진류왕을 세우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유가 대답했다. “지금 조정에는 주인이 없으니, 바로 이때를 이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일 온명원에서 백관을 불러 모아 폐립에 관한 뜻을 알리십시오. 만약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베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위엄과 권력을 세우는 일이 오늘 결정될 것입니다.” 동탁은 매우 기뻐했다.

다음 날, 동탁은 성대한 연회를 열어 공경들을 두루 초대했다. 공경들은 모두 동탁을 두려워했으니, 누가 감히 참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동탁은 백관이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정원 문 앞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린 뒤 칼을 찬 채 자리로 들어갔다. 술이 몇 차례 돌 무렵, 동탁은 술과 음악을 멈추게 한 뒤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모든 관리는 조용히 들으시오.” 모든 관리가 귀를 기울였다. 동탁이 말했다. “천자는 만백성의 주인이다. 위엄과 의기가 없다면 종묘와 사직을 받들 수 없다. 지금의 황제는 나약하니,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진류왕이 대위를 잇는 것이 낫다. 나는 황제를 폐위하고 진류왕을 세우려 하는데,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관리의 말을 다 듣고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자리에서 한 사람이 탁자를 밀치고 일어나 연회 앞으로 나아가더니 크게 외쳤다. “안 되오! 절대 안 되오! 네놈이 대체 누구기에 감히 망언을 내뱉느냐? 천자는 선 황제의 적통이며 지금까지 아무런 허물이 없거늘, 어찌 함부로 폐립을 논한단 말이나? 네놈이 반역을 꾀하려는 것이냐!” 동탁이 그를 보니, 바로 형주자사 정원이었다. 동탁이 노하여 꾸짖었다. “내 뜻을 따르는

자는 살 것이요, 거스르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고는 칼을 뽑아 정원을 베려 했다. 이때 이유가 정원의 등 뒤를 보니, 한 남자가 기개가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방천화극을 손에 든 채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었다. 이유가 급히 다가가 말했다. “오늘은 술을 마시는 자리이니 국정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도당에서 공론을 펼쳐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정원에게 말을 타고 떠나라고 권했다.

동탁이 백관을 향해 물었다. "내가 말한 것이 공도에 합당한가?"

그러자 노식이 말했다. "명공께서 틀리셨습니다. 옛날 태갑이 어리석었을 때, 이윤이 그를 동궁으로 유배 보낸 적이 있습니다. 창읍왕이 즉위한 지 겨우 스물일곱 날 만에 삼천여 가지의 악행을 저질렀기에, 광광이 태묘에 고하여 그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지금의 황제께서는 비록 어리시나 총명하고 어질며 지혜로우셔서 조금의 허물도 없으십니다. 공께서는 외직을 맡은 자사로서 평소 국정에 관여한 적도 없으시고, 이윤이나 광광 같은 큰 재능을 가진 분도 아니신데, 어찌 감히 황제를 세우고 폐하는 일에 억지로 나서려 하십니까?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윤과 같은 뜻이 있다면 폐위할 수 있으나, 그런 뜻이 없다면 그것은 찬탈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동탁이 크게 노하여 칼을 뽑아 들고 노식을 죽이려 했다. 이때 의랑 팽백이 간언했다. "노식 상서는 해내에서 명망이 높은 분입니다. 지금 먼저 그를 해치신다면 천하를 공포에 떨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제야 동탁이 칼을 거두었다. 사도 왕윤이 말했다. "황제를 폐위하고 세우는 문제는 술자리에서 상의할 일이 아니니, 다른 날 다시 논의합시다."

말이 끝나자 백관은 모두 흩어졌다.

동탁이 칼을 쥔 채 정원 문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창을 든 채 정원 문 밖을 이리저리 달리는 것이 보였다. 동탁이 이유에게 물었다. "저 자는 누구냐?" 이유가 대답했다. "정원의 양아들인 여포라는 자입니다. 주공께서는 일단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동탁은 즉시 정원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다음 날, 정원이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싸움을 걸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동탁은 화가 나 이유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맞으러 나갔다. 두 진영이 마주 서자, 여포가 금관을 쓰고 꽃무늬가 수놓인 전포를 입었으며, 사자 문양의 갑옷에 보석이 박힌 허리띠를 매고 말을 달려 창을 휘두르며 정원을 따라 진영 앞으로 나타났다. 정원이 동탁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나라가 불행하여 환관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만백성이 고통에 빠졌다. 네놈은 한 치의 공도 없으면서 어찌 감히 황제를 바꾸겠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조정에 어지러움을 일으키려 하느냐?"

동탁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여포가 말을 타고 곧장 달려들었다. 동탁이 당황하여 달아나자 정원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며 공격했다. 동탁의 군대는 대패하여 30여 리를 물러난 뒤에야 진을 치고 모여 의

논했다. 동탁이 말했다. "내가 보니 여포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천하를 얻는 데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그때 막사 앞에서 한 사람이 나와 말했다. "주공,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인은 여포와 고향이 같아 그의 용맹함은 알지만, 지략이 없고 이익을 보면 의리를 저버리는 성격임을 잘 압니다. 소인이 말재주를 발휘하여 여포가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탁이 크게 기뻐하며 그를 살펴보니, 바로 호분중랑 이숙이었다. 동탁이 물었다. "네가 어떻게 그를 설득하겠느냐?" 이숙이 말했다. "주공께 하루에 천 리를 달린다는 '적토마'라는 명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 말과 함께 금과 보석을 내주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보태어 설득하여, 여포가 반드시 정원을 배신하고 주공께 투항하게 만들겠습니다."

동탁이 이유에게 물었다. "이 말이 되겠느냐?" 이유가 답했다. "주공께서 천하를 얻으려 하시는데, 말 한 마리가 아까우십니까?" 동탁은 기쁘게 승낙하며 적토마와 함께 황금 천 냥, 명주 수십 알, 옥띠 하나를 더 내려주었다.

이숙이 예물을 챙겨 여포의 진영으로 찾아갔다. 길목을 지키던 군사들이 그를 에워싸자, 이숙이 말했다.

"여 장군에게 급히 알려라. 옛 친구가 찾아왔다고 말이다."

군사들이 소식을 전하자 여포가 들어오라고 명했다. 이숙이 여포를 보고 반갑게 말했다.

"아우, 그동안 별일 없었는가!"

여포가 읊하며 대답했다.

"오랫동안 뵈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계십니까?"

이숙이 대답했다.

"지금 호분중랑장 직을 맡고 있다네. 자네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르겠네. 여기 하루에 천 리를 달리고, 물을 건너거나 산을 오를 때도 마치 평지를 걷는 듯한 명마가 한 필 있네. 이름은 '적토'라고 하는데, 특별히 자네에게 선물로 주어 그 위엄을 높이는 데 보태고자 하네."

여포가 즉시 말을 끌어오게 하여 살펴보니, 과연 그 말은 온몸이 솟불처럼 붉고 잡색 털이 하나도 없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이는 한 길이었고, 발굽에서 목까지 높이는 여덟 자에 달했다. 말이 울부짖는 기세는 마치 하늘로 솟구쳐 바다로 뛰어들 듯했다. 후대의 어떤 시인은 적토마를 두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천 리를 질주하며 먼지를 일으키고, 물을 건너고 산을 오를 때 보랏빛 안개가 피어오르네. 고삐를 단숨에 끊어내며 옥으로 만든 재갈을 흔드니, 마치 불룡이 구만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하구나."

여포는 이 말을 보자마자 크게 기뻐하며 이숙에게 말했다. "형님께 서 이 좋은 말을 주시니, 제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이숙이 대답했다. "나는 의리를 위해 왔으니 어찌 보답을 바라겠는가?" 이숙은

여포에게 술을 대접했다. 술기운이 한창 올랐을 때 이숙이 말했다. "나와 자네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네 아버님과는 자주 뵈던 사이였네." 여포가 말했다. "형님, 취하셨군요!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 어찌 형님과 만나셨단 말씀입니까?" 이숙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네, 내가 말하는 것은 오늘 정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네." 여포가 당황하며 말했다. "제가 정원의 밑에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입니다." 이숙이 말했다. "자네는 하늘을 떠받치고 바다를 짊어질 재능을 가졌으니, 천하에 누가 자네를 경외하지 않겠는가? 공명과 부귀는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는 것만큼 쉬운 일인데, 어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며 남의 밑에 있단 말인가?" 여포가 말했다. "그저 따를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이숙이 웃으며 말했다.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동지를 틀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가려 섬드는 법'이라네. 기회를 빨리 잡지 못하면 후회해도 이미 늦은 법이지." 여포가 물었다. "형님께서는 조정에 계시니, 누가 세상의 영웅인지 보셨습니까?" 이숙이 대답했다. "내가 여러 대신을 살펴보았으나 모두 동탁만 못하네. 동탁은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공경하고 선비를 예우하며, 상과 벌이 분명하니 결국 큰 업적을 이룰 것이네." 여포가 말했다. "저도 그를 따르고 싶으나, 길이 없어 한스럽습니다." 이숙은 금과 구슬, 옥대를 가져와 여포 앞에 늘어놓았다. 여포가 놀라며 물었다. "이것들은 어찌 된 일입니까?" 이숙은 곁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 가게 한 뒤 여포에게 말했다. "이것은 동탁 공께서 자네의 명성을 오래 전부터 흠모하여, 특별히 나를 통해 바치라고 하신 것이네. 이 적토마 또한 동탁 공께서 주신 것이라네." 여포가 말했다. "동탁 공께서 이토록 저를 아껴주시니, 제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이숙이 말했다. "나처럼 재주 없는 사람도 호분중랑장 자리에 있는데, 자네가 그

분께 간다면 그 귀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네." 여포가 말했다.
"아직 작은 공도 세우지 못해 찾아볼 명분이 없으니 한스럽습니다." 이
숙이 말했다. "공을 세우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쉬운 일인데,
자네가 마음을 먹지 않을 뿐이네." 여포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
가 말했다. "제가 정원을 죽이고 군사를 이끌어 동탁에게 가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숙이 말했다. "자네가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참으로 큰 공이 될 것이네! 다만 일이 급하니 속히 결정해야 하네." 여
포는 이숙과 내일 항복하기로 약속했고, 이숙은 작별을 고하고 떠났
다.

그날 밤 2경쯤 되었을 때, 여포가 칼을 들고 정원의 막사로 거침없이
들어갔다. 정원은 촛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다가 여포가 오는 것을 보
고 말했다. "내 아들이, 무슨 일이냐?" 여포가 대답했다. "대장부인 내
가 어찌 당신의 아들 노릇을 하겠습니까!" 정원이 놀라 물었다. "봉선
아, 어찌하여 마음이 변했느냐?" 여포는 정원에게 달려들어 칼로 그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리고는 크게 외쳤다. "좌우군들은 들어라! 정원이
인자하지 못하여 내가 이미 죽였다. 나를 따를 자는 여기 남고, 따르지
않을 자는 스스로 떠나라!" 그러자 군사들 중 태반이 흩어졌다.

다음 날, 여포는 정원의 머리를 들고 이숙을 찾아갔다. 이숙은 곧장
여포를 동탁에게 인도했다. 동탁은 크게 기뻐하며 술을 차려 대접했
다. 동탁이 먼저 절을 하며 말했다. "내가 장군을 얻으니, 마치 가물었
던 싹이 단비를 만난 것 같소." 여포는 동탁의 맞은편에 앉아 절을 하
며 말했다. "공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제가 공을 양아버지로 모

시키고 싶습니다." 동탁은 금갑과 비단 도포를 여포에게 하사했고, 두 사람은 술을 마음껏 마신 뒤 헤어졌다.

이후 동탁의 위세는 날로 커져 스스로 전장군직을 맡아 군사를 이끌었다. 또한 동생 동민을 좌장군 호후에 봉하고, 여포를 기도위 중랑장 도정후에 봉했다.

이유는 동탁에게 황제를 교체할 계획을 서둘러 세우라고 권했다. 동탁은 성 안에서 연회를 열어 대신들을 불러 모으고, 여포에게 갑옷을 입은 병사 천여 명을 거느리게 하여 좌우를 호위하게 했다. 이날 태부 원외와 백관이 모두 도착했다. 술이 몇 차례 돌았을 때, 동탁이 갑자기 칼을 뽑아 들며 말했다.

"지금의 황제는 어리석고 약하여 종묘사직을 받들 자격이 없다. 나는 이윤과 곽광의 옛 사례를 따라, 황제를 폐위하여 홍농왕으로 삼고 진류왕을 황제로 세울 것이다.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베어버리겠다!"

신하들은 겁에 질려 감히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중군교위 원소가 몸을 일으켜 나서며 말했다.

"지금의 황제께서는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덕을 잃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통을 폐하고 서자를 세우려 하시니, 이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동탁이 노하여 외쳤다.

"천하의 일은 내 손에 달려 있다! 내가 지금 행하려 하는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느냐? 내 칼이 무더 보이기라도 한다는 말이나?"

그러자 원소 역시 칼을 뽑아 들며 맞섰다.

"당신의 칼이 날카롭다면, 내 칼이라고 어찌 날카롭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은 연회장에서 서로 칼을 겨누며 대치했다.

의로운 정원이 앞장서다 목숨을 잃고, 원소는 기세등등하게 맞서나 형세는 위태롭구나.

과연 원소의 목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회 — 한나라 황제를 폐하여 진류왕 을 황제로 세우고, 동탁을 도모하여 맹덕 이 칼을 바치다

廢漢帝陳留為皇 謀董卓孟德獻刀

한편, 이야기는 이러하다. 동탁은 원소를 죽이려 했으나, 이유가 이를 말리며 말했다. "아직 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원소는 보검을 손에 든 채 백관에게 작별을 고하고 밖으로 나가, 부절(符節)을 동문(東門)에 걸어 둔 뒤 기주로 달아나 버렸다. 동탁이 태부 원외에게 말했다. "그대의 조카가 무례를 범했으나, 그대의 체면을 보아 일단 용서해 주겠소. 황제를 폐하고 새로 세우는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원외가 대답했다. "태위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옳습니다." 동탁이 다시 말했다. "만약 이 중대한 논의를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요." 신하들은 겁에 질려 모두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연회가 끝난 뒤, 동탁이 시중 주비와 교위 오경에게 물었다. "원소가 떠난 것이 어떠한 것 같소?" 주비가 말했다. "원소가 분노하며 떠났으니, 만약 급히 추격한다면 반드시 큰 변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원씨 가문은 4대에 걸쳐 은혜를 베풀어 왔기에, 그를 따르는 제자와 엽부하들이 천하에 가득합니다. 만약 그가 호걸들을 모아 세력을 키운다면, 영웅들이 그를 따르며 일어날 것이니 산동 지역은 더 이상 대감의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를 사면하고 한 군의 태수로 임명하십시오. 그러면 원소도 죄를 면한 것에 기뻐하여 반드시 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경도 거들었다. "원소는 꺾는 좋으나 결단력이 부족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태수로 임명하여 민심을 얻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동탁은 그 말을 따라, 바로 그날 사람을 보내 원소를 발해태수로 임명했다. 9월 초하루, 동탁은 황제에게 가덕전으로 올라와 문무백관과 함께 대회를 열 것을 청했다. 동탁은 칼을 뽑아 손에 쥐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천자가 어리석고 약하니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하다. 이제 책무한 통이 있으니 마땅히 낭독해야겠다."

그러고는 이유에게 책문을 읽게 했다.

"효령황제께서 일찍이 신민들을 버리고 떠나셨고, 황제께서 뒤를 이어 천하의 우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천성이 경망스럽고 위엄이 없어 상중임에도 예법을 지키지 않고 나태하게 행동하였으니, 덕이 없음이 드러나 대위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황태후 또한 어

머니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해 정사를 어지럽혔습니다. 영락태후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후, 사람들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강의 도리와 천지의 질서가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류왕 협은 성덕이 뛰어나고 법도가 엄숙하며, 상중에도 슬픔을 잃지 않고 말에 사악함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명성은 이미 천하에 알려졌으니, 마땅히 대업을 이어받아 만세의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황제를 폐하여 홍농왕으로 삼고, 황태후는 정사를 돌려주기를 청합니다. 진류왕을 황제로 받들어 하늘의 뜻에 부응하고 사람의 뜻을 따름으로써, 살아 있는 백성들의 염원을 달래고자 합니다."

이유가 책문을 다 읽자, 동탁이 좌우의 부하들에게 호령하여 황제를 내려오게 했다. 그리고 황제의 옥새와 관직의 띠를 풀어버린 뒤, 황제가 북쪽을 향해 마주 보고 길게 무릎을 꿇은 채 신하로서 명령을 기다리게 했다. 이어 태후에게도 옷을 갈아입고 명을 기다리라고 소리쳤다. 황제와 태후는 모두 통곡하였고, 조정의 신하들도 비통함을 금치 못했다.

그때 계단 아래에 있던 한 대신이 분노하며 크게 외쳤다. "역적 동탁아, 감히 하늘을 속이는 음모를 꾸미다니! 내 반드시 목의 피를 뿌려 너를 응징하리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상아 홀(象簡)을 휘둘러 동탁을 향해 내리쳤다. 동탁이 크게 노하여 무사들에게 명령해 그를 붙잡게 하니, 그는 바로 상서 정관이였다. 동탁은 정관을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정관은 죽는 순간까지 욕설을 멈추지 않았으며,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 기개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훗날 사람들이 시를 지어 그를 기리며 이렇게 탄식했다. "역적 동탁이 몰래 황제를 폐할 음모를 품으니, 한나라의 종묘사직이 폐허가 되었구나. 조정의 모든 대신이 비겁하게 몸을 사릴 때, 오직 정공만이 진정한 대장부였노라."

동탁이 진류왕을 불러 대전에 들게 했다. 신하들이 조례를 마치자, 동탁은 하태후와 홍농왕, 그리고 황제의 후궁인 당비를 영안궁에 머물게 하고 궁궐 문을 폐쇄하여 신하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명령했다. 가련하게도 소제는 즉위한 지 겨우 네 달 만인 9월에 폐위되고 말았다. 동탁이 새로 세운 진류왕 협(자는 백화)은 영제의 둘째 아들로, 지금의 헌제이며 당시 나이는 아홉 살이었다. 연호는 초평으로 고쳤다. 동탁은 상국이 되어 이름을 말하지 않고도 예우를 받았으며, 조정에 나갈 때도 서두르지 않았고, 칼을 차고 신을 신은 채 대전에 오를 정도로 그 위세와 권력이 비할 데가 없었다.

이유가 동탁에게 명망 있는 인물들을 등용하여 인망을 얻으라고 권하며 채옹의 재능을 추천했다. 동탁이 그를 부르라 명했으나 채옹은 응하지 않았다. 동탁이 크게 노하여 사람을 보내 채옹에게 "만약 오지 않는다면 네 일족을 멸하겠다"라고 위협했다. 채옹은 겁이 나 어쩔 수 없이 명을 받들어 찾아갔다. 동탁은 채옹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한 달 사이에 관직을 세 번이나 옮겨주었고, 시중으로 임명하여 매우 친하게 대했다.

한편, 소제와 하태후, 당비는 영안궁에 갇힌 채 옷과 음식조차 점점 떨어져 가는 처지가 되었으니, 소제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 그러

던 어느 날, 소제가 우연히 뜰 안을 날아다니는 제비 한 쌍을 보고 시한 수를 읊었다.

"연기처럼 푸른 풀잎 사이로 제비 한 쌍 나풀나풀 날아다니네. 낙수의 푸른 물결과 길 위의 풍경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데, 멀리 보이는 푸른 구름 속 저곳이 바로 나의 옛 궁전이로구나. 누가 충의를 품고 나타나 내 마음속 원통함을 풀어줄 것인가!"

동탁은 늘 사람을 시켜 몰래 살피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를 입수하여 동탁에게 가져왔다. 동탁이 말했다.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 시를 지었으니, 죽여도 명분이 있겠구나." 동탁은 즉시 이유에게 무사 열 명을 거느리고 궁에 들어가 황제를 살해하라고 명령했다.

황제와 황후, 후궁들이 마침 누각 위에 있을 때 궁녀가 이유가 도착했다고 알리자 황제는 크게 놀랐다. 이유가 독주를 황제에게 올리자 황제가 왜 이러느냐고 물었다. 이유가 말했다. "봄날 날씨가 화창하여 동상궁께서 특별히 장수 축하 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태후가 말했다. "축하하는 술이라니, 네가 먼저 마셔 보아라." 이유가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좌우에 있는 자들에게 단도와 흰 천을 가져오게 한 뒤 황제 앞에 펼쳐 보이며 말했다. "축하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면, 이 두 물건을 받아 가져라!"

당비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제가 황제를 대신해 술을 마실 테니, 부디 모자의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이유가 꾸짖었다. "네가 대체

누구인데 감히 왕을 대신해 죽겠다는 것이냐?" 그러고는 술을 들어 하태후에게 건네며 말했다. "당신이 먼저 마셔 보시오!"

태후는 하진이 무책임하게 적을 도성 안으로 끌어들여 오늘 같은 재앙을 불러왔다고 크게 꾸짖었다. 이유가 황제를 재촉하자 황제가 말했다. "태후 마마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주시오." 황제는 크게 통곡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 노래는 이러했다.

"천지는 변하고 해와 달도 뒤집혔구나. 만 승을 탄 황제는 버려지고 성벽 뒤로 물러나네. 신하에게 쫓기니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세가 기울었으니 빈 눈물만 흐르는구나!"

당비도 노래를 지어 부르며 슬퍼했다.

"하늘은 무너져 내리고 땅은 꺼지려 하는데, 황제의 딸로 태어나 함께 따르지 못하니 한스러워라. 삶과 죽음의 길이 갈라져 이제는 영영 헤어져야 하니, 이토록 갑작스러운 이별을 어찌할꼬. 마음속에 슬픔만 가득하구나!"

노래를 마친 이들은 서로를 껴안고 통곡했다. 그러자 이유가 꾸짖으며 말했다. "상국께서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거늘, 어찌 이리 지체하느냐! 대체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냐?" 태후가 크게 소리치며 꾸짖었다. "동탁 같은 도적놈이 나와 내 자식을 핍박하니, 하늘이 도우실 리 없다! 너희가 악당을 돕는다면 반드시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이유는 크게 분노하여 두 손으로 태후를 붙잡아 그대로 누각 아래로 내던졌다. 그리고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당비를 목 졸라 죽이게 하고, 소제

에게는 독주를 부어 마시게 하여 죽인 뒤, 동탁에게 돌아가 보고했다. 동탁은 이들을 성 밖에 묶으라고 명령했다.

이후 동탁은 매일 밤 궁궐에 드나들며 궁녀들을 겁탈하고 용상에서 잠을 잤다. 한 번은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양성 땅까지 갔는데, 마침 2월이라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남녀노소 모두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동탁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에워싸고 모조리 죽이게 했다. 또한 부녀자와 재물을 약탈하여 수레에 가득 실었으며, 수레 아래에는 잘린 머리 천여 개를 매달아 낙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마치 도적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하여 돌아온 것처럼 떠벌렸다. 성문 아래에서는 잘린 머리들을 불태워 구경하게 하고, 약탈한 부녀자와 재물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월기교위 우부는 자가 덕유(德瑜)인데, 동탁의 잔혹한 행태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예전에 조정에서 입는 관복 안에 작은 갑옷을 끼입고 단도를 숨겨 두었다가, 기회를 봐서 동탁을 살해하려 했다. 어느 날 동탁이 조정에 들어서자, 우부는 그를 맞이하며 다가가 갑자기 칼을 뽑아 동탁을 향해 곧장 찔렀다. 하지만 동탁의 힘이 워낙 세서 두 손으로 칼을 움켜쥐어 막아냈고, 마침 여포가 들어와 우부를 붙잡아 넘어뜨렸다. 동탁이 "누가 너에게 반역을 가르쳤느냐?"라고 묻자, 우부는 눈을 부라리며 크게 외쳤다.

"당신은 나의 임금이지 아니며, 나 또한 당신의 신하가 아니니 내가 어찌 반역을 했다는 말인가! 당신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니, 사람마다 당신을 죽여 벌하기를 원한다! 차라리 당신을 수레에 매달아 사지를 찢어 죽여 천하에 갇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동탁은 크게 노하여 그를 끌어내어 능지처참하라고 명령했다. 우부는 죽는 순간까지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후대의 어떤 이가 그를 찬양하며 시를 지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한나라 말기 충신 우부를 말하노니, 하늘을 찌를 듯한 호기는 세상에 둘 데 없구나. 조정에서 도적을 죽인 그 이름 여전히 남아 있으니, 만고에 진정한 대장부라 일컬을 만하도다!"

동탁은 이때부터 항상 갑옷을 입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출입하며 자신을 호위하게 했다. 한편 원소는 발해에 머물고 있었는데, 동탁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왕윤에게 밀서를 전달했다. 밀서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동탁 같은 도적놈이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폐위했으니,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감께서 그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고도 못들은 척하신다면, 어찌 나라에 보답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군사를 모으고 병사들을 훈련하며 왕실을 바로 잡으려 준비 중이지만, 아직 함부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감께서 마음이 있다면 틈을 타서 동탁을 제거할 방도를 찾아보십시오. 만약 저를 부리실 일이 생긴다면 즉시 명을 받들겠습니다."

왕윤은 밀서를 받고 한참을 생각했으나 마땅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왕윤은 시반각자에서 옛 신하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이 늙은이의 변변찮은 생일이니, 저녁에 부디 여러분을 저희 집으로 모셔 가볍게 술 한잔 나누고 싶습니다." 관리들이 모두 "반드시 가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날 저녁, 왕윤이 후당에 잔치를 베풀자 공경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술이 몇 차례 돌 무렵, 왕윤이 갑자기 얼굴을 가리고 크게 울기 시작했다. 관리들이 놀라서 물었다. "사도께서 생신을 맞이하셨는데 어찌하여 슬피 우십니까?" 왕윤이 말했다. "오늘 모인 것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탁이 의심할까 두려워 핑계를 댄 것뿐입니다. 동탁이 임금을 속이고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의 안위가 하루아침에 위태로워졌습니다. 고조께서 진나라와 초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차지하셨거늘,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나라가 동탁의 손에 망하게 되었던 말입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리에 있던 관리들도 모두 함께 울었다.

그때 자리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조정의 관리들이 밤새도록 울고, 낮에도 밤새도록 울면 동탁을 울어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왕윤이 그를 보니 바로 효기교위 조조였다. 왕윤이 화를 내며 꾸짖었다. "그대의 조상들도 한나라의 녹을 먹었거늘, 어찌 나라를 구할 생각은 않고 도리어 웃음을 보이는가?" 조조가 말했다. "제가 다른 일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동탁을 죽일 계책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을 비웃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재주가 부족하나, 당장 동탁의 목을 베어 도성 문에 매달아 천하에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왕윤이 자리를 피하며 물었다. "조조, 그대의 고견은 무엇인가?" 조조가 말했다. "요즘 제가 몸을 낮추어 동탁을 섬기는 것은 실로 틈을 타서 그를 치기 위함입니다. 지금 동탁이 저를 꽤 믿고 있어 가까이 지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듣자하니 사도께 칠성보도라는 칼이 한 자루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제게 빌려주시면 동탁의 집으로 들어가 그를 암살하겠습니다. 설령 죽더라도 한이 없습니다!" 왕윤이 말했다. "조조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천하에 큰 다행이겠소!" 하고는 직접 술을 따라 조조에게 대접했다. 조조가 술을 따라 맹세하자 왕윤은 즉시 보도를 꺼내 그에게 주었다. 조조는 칼을 숨긴 뒤 술을 다 마시고는 곧바로 일어나 관리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관리들도 잠시 더 앉아 있다가 모두 흩어졌다.

다음 날, 조조는 보검을 차고 상부(相府)로 가서 승상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하인이 "작은 별채에 계십니다"라고 답하자, 조조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 만났다. 동탁은 침상에 앉아 있었고, 여포가 그 곁에 서립해 있었다. 동탁이 말했다. "맹덕은 어찌 이리 늦게 왔는가?" 조조가 대답했다. "말이 기운이 없어 늦어졌습니다." 동탁은 여포를 돌아보며 말했다. "서량에서 올라온 좋은 말이 있으니, 봉선 네가 직접 가서 한 마리를 골라 맹덕에게 선물로 주거라." 여포가 명령을 받고 물러갔다. 조조는 속으로 '이 도적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즉시 칼을 뽑아 그를 찌르려 했다. 하지만 동탁의 힘이 셀까 두려워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동탁은 몸집이 커서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든 탓에, 몸을 돌려 누우며 안쪽을 향해 자리를 잡았다. 조조는 다시 생각하기를 '이놈은 이제 끝이다!'라고 결심하고 급히 보검을 손에 쥐었다. 막 칼을 찌르려던 찰나, 뜻밖에도 동탁이 고개를 들어 옷거울(衣鏡)에 비친 모습을 보다가 등 뒤에서 칼을 뽑는 조조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급히 몸을 돌려 물었다. "맹덕,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포가 이미 말을 끌고 각 밖까지 도착하자, 조조는 깜짝 놀라 급히 칼을 쥐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조조에게 보검이 한 자루 있으니, 은혜로우신 상공께 바치고자 합니다.” 동탁이 칼을 받아 살펴보니, 길이 한 자가 넘고 일곱 가지 보석이 박혀 있으며 매우 날카로우니 과연 보검이었다. 동탁은 그 칼을 여포에게 건네주어 받게 했다. 조조가 칼집을 풀어 여포에게 건네자, 동탁은 조조를 데리고 각 밖으로 나가 말을 살펴보았다. 조조가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말을 한 번 타 볼 수 있겠습니까?” 동탁이 안장과 고삐를 챙겨주자, 조조는 말을 끌고 상부 밖으로 나가 채찍을 휘두르며 동남쪽을 향해 달려갔다. 여포가 동탁에게 말했다. “방금 조조의 모습이 마치 암살하려는 것 같았는데, 들통이 날 것 같으니 칼을 바친 모양입니다.” 동탁이 대답했다. “나도 의심스럽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침 이유가 도착하자, 동탁은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유가 말했다.

"조조는 아내도 없이 홀로 낙양의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 불러오도록 하십시오. 만약 조조가 의심 없이 순순히 온다면 칼을 바치려는 것이겠지만, 만약 핑계를 대며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암살하려는 속셈일 것이니, 즉시 잡아들여 문초하면 됩니다."

동탁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즉시 옥졸 네 명을 보내 조조를 불러오게 했다. 한참이 지나 돌아온 이들이 보고했다.

"조조는 숙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급히 동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문지기가 까닭을 묻자, 조조는 '승상이 급한 공무로 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는 말을 달려 가버렸습니다."

이유가 말했다.

"조조가 반역의 마음을 품고 도망친 것이니, 암살하려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동탁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그토록 중용했는데, 오히려 나를 해치려 하다니!"

이유가 말했다.

"분명 공모자가 있을 것입니다. 조조를 붙잡기만 하면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탁은 즉시 관청에 방을 붙여 조조의 얼굴을 그려 넣고, 조조를 붙잡는 자에게는 천금을 상으로 주고 만호후에 봉할 것이며, 그를 숨겨주는 자는 똑같이 처벌하겠다고 공포했다.

한편, 조조는 성 밖으로 도망쳐 필사적으로 초군으로 달려갔다. 중모현을 지나던 중 관문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붙잡혀 현령 앞에 끌려갔다. 조조가 말했다. "저는 황보라는 복성을 쓰는 상인입니다." 현령이 조조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더니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예전에 낙양에서 관직을 구하던 시절, 당신이 조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늘 어찌 이리 속이려 드는가? 일단 감옥에 가두었다가 내일 수도로

압송하여 포상금을 청구하겠다." 그리고는 관문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고 떠났다.

밤이 깊자, 현령은 측근들을 불러 조조를 몰래 데리고 나와 뒷마당에서 심문했다. 현령이 물었다. "승상께서 그대를 박하게 대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했는가?"

조조가 대답했다. "제비나 참새가 어찌 기러기와 고니의 큰 뜻을 알겠소! 이미 나를 붙잡았으니, 이제 나를 풀어주고 상을 받으러 가시오."

현령은 좌우의 사람들을 물리나게 한 뒤 조조에게 말했다. "나를 알보지 마시오. 나는 평범한 관리와는 다르나,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요."

조조가 말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한나라의 녹봉을 먹어왔는데, 나라에 보답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소? 내가 몸을 굽혀 동탁을 섬기는 것은, 틈을 타서 그를 제거하고 나라의 해를 없애기 위함이었소. 이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늘의 뜻이오!"

현령이 물었다. "맹덕, 이번에 떠나려 한다면 어디로 갈 셈인가?"

조조가 답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거짓 조서(矯詔)를 꾸며 내려, 천하의 제후들을 불러 모아 군사를 일으켜 동탁을 함께 처단하려 하오. 그것이 나의 소원이요."

현령은 그 말을 듣고 직접 결박을 풀어 그를 부축해 자리에 앉히더니, 다시 절하며 말했다. "공이야말로 진정 천하의 충의로운 선비입니다!" 조조 역시 절을 하며 현령의 성명을 물었다. 현령이 대답했다. "제 성은 진이고 이름은 궁이며, 자는 공태라고 합니다. 노모와 처자식은 모두 동군에 있습니다. 지금 공의 충의에 감복하여, 기꺼이 관직을 버리고 공을 따라 함께 달아나고 싶습니다." 조조는 매우 기뻐했다. 그날 밤 진궁은 여비와 짐을 챙기고 조조와 함께 옷을 갈아입은 뒤, 각자 칼 한 자루씩을 등에 메고 말을 타고 고향을 향해 떠났다.

사흘을 걸어 성고 지역에 이르니 어느덧 날이 저물고 있었다. 조조가 채찍으로 숲속 깊은 곳을 가리키며 진궁에게 말했다. "이곳에 여백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라고. 가서 집안 소식도 묻고 하룻밤 묵어가면 어떻겠소?" 진궁이 "그게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장원 앞에 도착해 말에서 내려 여백사를 만나러 들어갔다. 여백사가 말했다. "조정에서 방을 붙여 여러분을 급히 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조조의 부친은 이미 진류로 피신하셨는데, 어찌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조조가 그간의 일을 설명하며 말했다. "만약 진현령이 아니었다면 벌써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백사가 진궁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현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조씨 일가는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현령께서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오늘 밤은 바로 초가집에서 묵으시면 됩니다." 말을 마친 여백사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뒤에 나온 여백사가 진궁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좋은 술이 없으니, 서쪽 마을에 가서 술 한 병을 사 올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말을 마친 여백사는 서둘러 나귀를 타고 떠났다.

조조와 진궁이 한참 동안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집 뒤편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조가 말했다. "여백사는 저와 아주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이대로 가기에는 무언가 의심스럽습니다. 몰래 가서 들어보아야겠습니다." 두 사람이 살금살금 초가집 뒤로 다가가니, 사람들이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뭉어서 죽여버리는 게 어떻겠소?" 조조가 속삭였다. "웁은 말씀입니다! 지금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조조는 곧바로 진궁과 함께 칼을 뽑아 들고 안으로 들어닥쳤다. 그리고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베어버려, 한꺼번에 여덟 명을 죽였다. 부엌 근처를 뒤지다 보니 돼지 한 마리를 묶어놓고 막 잡으려던 참이었다. 진궁이 말했다. "맹덕이 너무 의심이 많아 좋은 사람을 잘못 죽였군요!" 두 사람은 급히 장원을 나와 말에 올라타고 떠났다. 채 이 리도 못 갔을 때, 여백사가 나귀 안장 앞에 술 두 병을 매달고 과일과 채소를 손에 든 채 다가오며 외쳤다. "조카님, 사또께서는 어찌 하여 이리 급히 가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죄를 지은 몸이라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여백사가 말했다. "이미 집안사람들에게 일러 돼지 한 마리를 잡게 했으니, 조카님과 사또께서 어찌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어서 돌아가서 대접을 받으십시오."

조조는 개의치 않고 말에 올라타 길을 떠났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못해 갑자기 칼을 뽑아 들고 되돌아오더니, 여백사를 향해 외쳤다. "방금 온 자들은 누구냐?" 여백사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조조는 칼을 휘둘러 여백사를 나귀 위에서 베어버렸다. 진궁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해였는데, 지금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조조가 말했다. "여백사가 집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본다면, 어찌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만약 무리를 이끌고 쫓아온다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진궁이 말했다. "알면서도 죽이는 것은 천하의 의리에 크게 어긋나는 짓입니다!" 그러자 조조가 말했다. "차라리 내가 천하 사람들을 저버릴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진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몇 리를 더 나아간 조조는 달빛이 밝은 가운데 객점 문을 두드려 하룻밤 묵기로 했다. 말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인 뒤 조조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이를 지켜보던 진궁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조조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관직까지 버리고 그를 따라왔건만, 알고 보니 참으로 모질고 잔인한 자로구나! 오늘 이 자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반드시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것이다.' 진궁은 칼을 뽑아 조조를 죽이려 했다.

과연 그렇다. 독한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선한 선비가 아니니, 조조와 동탁은 본래 같은 부류였다.

결국 조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회 — 거짓 조서를 내려 제후들이 조 공에게 응하고, 관문을 격파하며 삼영이 여포와 싸우다

發矯詔諸鎮應曹公 破關兵三英戰呂布

한편, 진궁은 막 조조를 죽이려던 참에 문득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나라를 위해 그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그를 죽이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다. 차라리 그를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겠다." 진궁은 칼을 차고 말에 올라타, 날이 밝기도 전에 홀로 동군으로 떠나버렸다.

조조는 잠에서 깨어 진궁이 보이지 않자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어질지 못하다고 의심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구나. 어서 서둘러 움직여야지, 이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조조는 즉시 밤을 도와 진류에 도착하여 아버지를 만났고, 그간의 일을 상세히 설명하며 가산을 털어 의병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재산이 적으면 일을 이루기 어려울 게다. 이 근처에 위

홍이라는 효렴이 있는데, 재산을 아끼지 않고 의로운 일을 돕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일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조는 잔치를 베풀어 위홍을 집으로 초대해 정중히 모신 뒤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한나라 황실에는 주인이 없고, 동탁이 권력을 독점하여 황제를 기만하고 백성을 괴롭히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을 다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으나 힘이 부족하여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귀하께서는 충의를 아는 선비이시니,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위홍이 대답했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으나 영웅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조조 맹덕께서 큰 뜻을 품으셨다니, 기꺼이 제 전 재산을 내놓아 돕겠습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먼저 조작된 조서를 만들어 각 지방에 급히 보냈다. 그리고 나서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충의'라는 두 글자가 적힌 흰 깃발을 내걸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의병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비오듯 몰려들었다.

어느 날, 양평 위국 출신의 악진이 조조에게 찾아와 투항했다. 또한 산양 거록 출신의 이전도 조조에게 찾아와 몸을 의탁했다. 조조는 두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 자기 결의 관리로 삼았다. 한편, 패국 초 출신의 하후돈은 하후영의 후손으로, 어릴 때부터 창술과 봉술을 익혔다. 그는 열네 살 때 스승에게 무예를 배우고 있었는데, 누군가 스승을 욕하자 그를 죽이고 타지로 도망쳤다. 그러다 조조가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

식을 듣고, 사촌 동생 하후연과 함께 각각 천 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조조에게 달려왔다. 이 두 사람은 본래 조조와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였다. 조조의 아버지 조숭이 원래 하후씨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 조씨 가문의 성을 이어받았기에, 두 사람은 한 집안 혈족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조조의 친족인 조인과 조홍이 각각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도움을 주었다. 조인의 자는 자효이고, 조홍의 자는 자렴인데, 두 사람 모두 군사들을 다루는 데 능숙하고 무예 또한 뛰어났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마을의 인력을 모아 군마를 정비했다. 위홍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 갑옷과 깃발 등을 마련했으며, 사방에서 군량을 보내오는 사람들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았다.

한편, 원소는 조조가 받은 조서를 전달받고 나서 휘하의 문무백관을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발해를 떠나 조조와 만나 맹약을 맺으러 갔다. 조조는 조서를 바탕으로 격문을 작성하여 여러 군에 보냈다. 격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조조 등은 삼가 큰 대의를 받들어 천하에 알립니다. 동탁은 하늘을 속이고 땅을 망령되게 하여 나라를 멸망시키고 임금을 시해했습니다. 궁궐을 더럽히고 어지럽혔으며, 백성들을 잔혹하게 해치고 살생을 일삼았습니다. 그 성질이 흉포하고 어질지 못하여 죄악이 하늘을 찌를 듯 쌓여 있습니다! 이제 천자의 밀지를 받들어 의로운 군사를 크게 모으니, 반드시 중원을 깨끗이 청소하고 흉악한 무리들을 소탕하고자 합니다. 부디 의로운 군대를 일으켜 함께 공분을 터뜨려 주십시오. 왕실을 보필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격문이 닿는 대로 속히 실행에 옮겨 주십시오!"

조조가 격문을 돌려 의병을 일으키자, 각 지역의 제후들도 모두 이에 응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첫 번째로 후장군 남양 태수 원술, 두 번째로 기주 자사 한복, 세 번째로 예주 자사 공주, 네 번째로 연주 자사 유대, 다섯 번째로 하내 태수 왕광, 여섯 번째로 진류 태수 장막, 일곱 번째로 동군 태수 교모, 여덟 번째로 산양 태수 원유, 아홉 번째로 제북 상 포신, 열 번째로 북해 태수 공융, 열한 번째로 광릉 태수 장초, 열두 번째로 서주 자사 도겸, 열세 번째로 서량 태수 마등, 열네 번째로 북평 태수 공손찬, 열다섯 번째로 상당 태수 장양, 열여섯 번째로 오정후이자 장사 태수인 손견, 열일곱 번째로 기향후이자 발해 태수인 원소가 가담하였다.

각지에서 모여든 군마는 그 수가 제각각이었는데, 어떤 군대는 3만 명에 달했고 어떤 군대는 1, 2만 명 정도였다. 이들은 모두 문관과 무관을 거느리고 낙양을 향해 진격해 왔다.

한편, 북평 태수 공손찬이 정예병 만 오천 명을 이끌고 덕주 평원현을 지나가고 있었다. 한창 길을 가던 중, 멀리 뽕나무 숲 사이로 황색 깃발이 보이고 기병 몇 명이 마중 나오는 것이 보였다. 공손찬이 살펴보니 바로 유비였다. 공손찬이 물었다. "현재는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가?" 유비가 대답했다. "예전에 형님의 보살핌 덕분에 평원현령이 되었습니다. 마침 큰 군대가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인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형님께서서는 부디 성안으로 드시어 말에서 내려 쉬십시오." 공손찬이 관우와 장비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들은 누구인가?" 유비가 말했다. "이들은 관우와 장비로, 저와 의형제를 맺은 이들입니다." 공손찬이 말했다. "그렇다면 황건적을 함께 물리쳤던 이들인

가?" 유비가 답했다. "모두 이 두 사람의 힘 덕분입니다." 공손찬이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가?" 유비가 대답했다. "관우는 마궁수로, 장비는 보궁수로 있습니다." 공손찬이 탄식하며 말했다. "이토록 뛰어난 영웅들이 이런 낮은 자리에 머물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지금 동탁이 난을 일으켜 천하의 제후들이 힘을 합쳐 그를 토벌하러 가는 중이다. 현재도 이 낮은 관직을 버리고 함께 적을 토벌하여 한나라 황실을 돕는 것이 어떻겠는가?" 유비가 말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러자 장비가 말했다. "그때 내가 저 도적놈을 죽일 수만 있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관우가 말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마음을 다잡고 떠나야 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말을 타고 공손찬과 함께 도착했다. 이어 조조도 나타났다. 다른 제후들도 차례로 모여들어 각자 진영을 치고 막사를 세우니, 그 행렬이 이백 리에 달했다. 조조는 소와 말을 잡아 제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군사를 일으킬 방책을 논의했다.

태수 왕광이 말했다. "지금 대의를 받들고 있으니 반드시 맹주를 세워야 합니다. 모두가 그 명령에 따라야 비로소 군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원소는 4대째 삼공을 배출한 가문이라 문하에 옛 부하들이 많고, 한나라 명상들의 후손이니 맹주가 되기에 적합합니다."

원소가 몇 번이나 사양했으나, 제후들이 모두 "원소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입을 모으자 그제야 원소가 승낙했다.

다음 날, 세 층으로 된 제단을 쌓고 다섯 방향에 깃발을 늘어세운 뒤, 그 위에 흰 깃발과 황색 도끼, 병부와 장인의 인장을 갖추어 원소를 제단 위로 모셨다. 원소는 의관을 정제하고 칼을 찬 채 늙은 모습으로 올라가,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하며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한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황실의 법도가 무너졌습니다. 역신 동탁은 틈을 타서 해악을 끼치며 지존의 권위를 위협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원소 일행은 사직이 무너질까 두려워 의병을 모아 이 국난에 함께 뛰어들고자 합니다. 우리 동맹군 모두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을 합치고, 충성을 다하되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맹세를 어긴다면 하늘의 벌을 받아 대를 잇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님들의 명령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글을 다 읽은 뒤 맹세의 피를 나누는 의식이 끝났다. 제후들은 그 기개 넘치는 연설에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쏟아냈다. 의식이 끝나고 단 아래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원소를 부축하여 자리에 앉혔다. 제후들은 작위와 나이에 따라 양옆으로 줄을 지어 앉았다. 조조가 술을 몇 차례 돌리며 말했다.

"오늘 맹주를 세웠으니, 이제 각자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힘을 합쳐 나라를 바로잡읍시다. 서로의 세력이 강하고 약함을 따져 다투지 맙시다."

그러자 원소가 말했다.

"제가 비록 재능은 부족하나, 여러분이 맹주로 추대해 주셨으니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겠습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고 군대에는 기율이 있으니, 모두가 이를 준수하고 결코 어기지 마십시오."

제후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원소가 말을 이었다.

"내 동생 원술이 군량을 총괄하여 각 진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한 명의 선봉장이 사수관까지 직행하여 적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각자 요충지를 지키며 후방을 지원하십시오."

이때 장사 태수 손견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앞장서서 선봉을 맡겠습니다."

원소가 말했다.

"손견은 용맹하고 굳센 자이니 이 임무를 맡기에 적당하오."

손견은 즉시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사수관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다. 관문을 지키던 장수들은 급히 전령을 보내 낙양의 동탁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렸다.

동탁은 권력을 독점한 뒤 매일같이 연회를 즐기며 지내고 있었다. 이유가 급보를 받고 동탁에게 보고하자, 깜짝 놀란 동탁은 급히 장수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여포가 당당하게 나서며 말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 밖의 제후들은 제 눈에 풀뿌리처럼 하찮게 보일 뿐입니다. 제가 호랑이와 이리 같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그들의 목을 모두 베어 성문에 걸어버리겠습니다."

동탁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게 여포가 있으니 이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포의 뒤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습니까? 온후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후들의 머리를 베는 것은 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입니다."

동탁이 보니, 그 사람은 키가 아홉 자에 달하고 몸집이 호랑이처럼 당당하며 팔다리가 표범처럼 탄탄한 관서 출신의 무장이었다. 성은 화, 이름은 웅이었다. 동탁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를 교위로 임명하고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이숙, 호진, 조잠을 함께 보내 밤을 도와 관문으로 출동하게 했다.

한편 제후들 중 제북 상 포신은 손견이 선봉으로 나서 공을 독차지 할까 봐 걱정되어, 몰래 동생 포충에게 기병과 보병 3천 명을 주어 셋

길로 보내 관문 아래에서 전투를 벌이게 했다. 이때 화웅이 기병 500명을 이끌고 관문에서 내려오며 크게 호통쳤다.

"적장들은 도망가지 마라!"

포충이 급히 후퇴하려 했으나, 화웅의 칼날에 허무하게 목이 잘려 말 아래로 떨어졌고, 수많은 장수들이 사로잡혔다. 화웅은 사람을 보내 포충의 머리를 가져가 동탁에게 승전보를 전했고, 동탁은 화웅을 도독으로 삼았다.

한편, 손견이 네 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관문 앞까지 이르렀다. 네 장수를 살펴보니, 첫째는 우복평 토은 출신의 정보로, 자는 덕모이며 철회 사모를 휘둘렀다. 둘째는 영릉 출신의 황개로, 자는 공복이며 철편을 사용했다. 셋째는 요서 령지 출신의 한당으로, 자는 의공이며 커다란 칼을 휘둘렀다. 넷째는 오군 부춘 출신의 조모로, 자는 대영이며 쌍도를 사용했다. 손견은 은빛이 찬란한 갑옷을 입고 붉은 머리띠를 두른 채, 고풍스러운 정조도를 차고 화려한 갈기 말을 타고 있었다. 그는 관문을 가리키며 크게 꾸짖었다. "악독한 놈아, 어찌 진작 항복하지 않았느냐!"

화웅의 부장 호진이 병사 5천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맞서 싸웠다. 이때 정보가 말을 달려 창을 내지르며 호진을 직접 공격했다. 두 사람이 몇 합을 겨루기도 전에 정보가 호진의 목을 찔렀고, 호진은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손견이 군사를 몰아 성 앞까지 거침없이 진격했으나, 성 위에서는 화살과 돌이 비 오듯 쏟아졌다. 손견은 군사를 거두어

양동 지역으로 돌아와 진을 쳤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 원소에게 승전보를 전하게 하고, 동시에 원술에게는 군량을 재촉하게 했다.

어떤 이가 원술에게 말했다. "손견은 강동의 맹호와 같은 인물입니다. 만약 그가 낙양을 함락하고 동탁을 죽인다면, 이는 늑대를 제거하고 호랑이를 얻는 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군량을 보내지 않으면 그의 군대는 반드시 흩어질 것입니다." 원술은 이 말을 받아들여 군량과 풀을 보내지 않았다. 손견의 군대는 먹을 것이 떨어지자 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첩자를 통해 화웅에게 전해졌다. 이숙이 화웅을 위해 계책을 내놓으며 말했다. "오늘 밤 제가 군사를 이끌고 셋길로 성밖을 나가 손견의 진영 뒷부분을 습격하겠습니다. 그때 장군께서 앞 진영을 공격하신다면 손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들이 배불리 먹게 한 뒤, 밤을 틈타 관문을 내려갔다. 그날 밤은 달빛이 밝고 바람이 맑았다. 손견의 군대가 견고한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는데, 북소리를 울리며 곧장 진격했다. 손견이 당황하여 급히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탔을 때, 마침 화웅과 맞닥뜨렸다. 두 말이 서로 맞붙어 싸운 지 몇 합 되지 않아, 뒤이어 이숙의 군대가 도착하여 군사들에게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다. 손견의 군대는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흩어졌다. 여러 장수가 각자 뒤엉켜 싸우는 와중에 조모만이 손견을 붙잡고 포위망을 뚫어 달아났다. 뒤에서는 화웅이 추격해 왔다. 손견이 화살을 집어 연달아 두 발을 쏘았으나 화웅이 모두 피해 버렸다. 세 번째 화살을 쏠 때는 힘을 너무 세게 주는 바람에 활이 부러지고 말아, 결국 활을 버리고 말을 달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조모가 말했다. "주군, 머리에 쓰신 붉은 수건 때문에 적에게 들킬 수 있

습니다. 차라리 수건을 벗어 저에게 주십시오." 손견이 수건을 벗어 조모의 투구와 바꾼 뒤 두 갈래 길로 나누어 달아났다. 화웅의 군대는 붉은 수건을 쓴 자만을 쫓아갔고, 덕분에 손견은 좁은 길을 통해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조모는 화웅의 추격이 너무 거세지자, 붉은 수건을 붙이 채 꺼지지 않은 어느 집의 기둥에 걸어두고는 숲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화웅의 군사들은 멀리서 붉은 띠를 두른 것을 발견하고는 사방을 에워싼 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화웅이 화살을 쏘아보고 나서야 그것이 계책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앞으로 나아가 붉은 수건을 가져왔다. 그때 조모가 숲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쌍도를 휘두르며 화웅을 베려 했으나, 화웅이 크게 호통을 치며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조모는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화웅은 날이 밝을 때까지 싸우다가 비로소 군사를 이끌고 관문 위로 올라갔다.

한편, 정보, 황개, 한당은 손견을 찾아와 상황을 살핀 뒤 군마를 정비하고 진을 쳤다. 손견은 조모를 잃은 슬픔에 잠겨 밤을 도와 사람을 보내 원소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소식을 들은 원소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손견이 화웅에게 패하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로구나!"

원소는 즉시 여러 제후를 모아 회의를 열었다. 제후들이 모두 도착했을 때 공손찬만 뒤늦게 도착했는데, 원소는 그를 막사 안으로 맞아들여 자리에 앉혔다. 원소가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는 포 장군의 동생이 명령을 어기고 멋대로 군사를 움직이다가 목숨을 잃고 많은 병사까지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견마저 화웅에게 패했으니, 이 기세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후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원소가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니, 공손찬의 뒤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의 용모가 범상치 않았는데, 모두 그 자리에서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원소가 물었다. "공손 태수, 뒤에 서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공손찬이 유비를 불러내며 말했다. "이들은 저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형제 같은 사이로, 지금은 평원 현령을 맡고 있는 유비입니다."

조조가 물었다. "혹시 황건적을 물리쳤다는 그 유비입니까?"

공손찬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유비에게 절을 올리게 했다. 공손찬은 유비가 세운 공로와 그의 출신을 상세히 설명했다.

원소가 말했다.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라니, 어서 자리에 앉게 하시오." 원소가 자리를 권하자 유비는 사양하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원소가 다시 말했다. "내가 그대의 관직이나 명성을 높게 평가해서 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황실의 자손임을 존중해서 하는 말이요."

그제야 유비는 자리 끝에 앉았고, 관우와 장비는 두 손을 맞잡고 유비의 뒤에 서서 보좌했다.

갑자기 전령이 달려와 보고했다. "화웅이 철기병을 이끌고 관문을 내려왔습니다! 손견 태수의 붉은 머리띠를 장대로 꿰어 들고는, 진영 앞으로 와서 대놓고 싸움을 청하며 크게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원소가 말했다. "누가 가서 싸우겠느냐?"

이때 원소의 뒤편에서 용맹한 장수 유섭이 나서며 말했다. "소장이 가겠습니다." 원소는 기뻐하며 즉시 유섭을 출전시켰다. 그러나 곧바로 보고가 들어왔다. "유섭이 화웅과 세 합도 채 붙어보지 못하고 화웅에게 목이 베였습니다!"

모두가 크게 놀랐다. 태수 한복이 말했다. "내게는 화웅을 벨 수 있는 훌륭한 장수 판봉이 있습니다." 원소는 급히 출전을 명령했다. 판봉이 커다란 도끼를 손에 들고 말을 타고 나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이 달려오며 보고했다. "판봉 역시 화웅에게 목이 베였습니다!"

모두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원소가 탄식하며 말했다. "아깝구나, 나의 장수인 안량과 문추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여기 있었다면 화웅이 어찌 두려웠겠는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서 한 사람이 크게 외치며 나타났다. "소장이 가서 화웅의 머리를 베어 장군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살펴보니, 키는 구 척에 수염은 두 척이나 길었고, 눈은 봉황처럼 날카로우며 눈썹은 누에 모양이었다. 얼굴은 잘 익은 대추처럼 붉고 목소리는 커다란 종소리처럼 웅장했다. 그는 장막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원소가 누구냐고 묻자, 공손찬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유비의 의형제인 관우입니다." 원소가 지금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묻자 공손찬이 말했다. "유비를 따라 마궁수로 있습니다."

그때 장막 안에서 원술이 크게 호통을 쳤다. "네놈이 우리 제후들에게 대장이 없다고 업신여기는 것이냐? 일개 마궁수 주제에 어찌 감히 함부로 말을 내뱉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조조가 급히 말리며 말했다. "원술님, 노여움을 가라앉시오. 이 사람이 저토록 큰소리를 치는 것은 반드시 용맹과 계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단 출전시켜 보고,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그때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원소가 말했다. "고작 마궁수 한 명을 내보냈다가 화웅에게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다."

조조가 다시 말했다. "이 사람의 품채가 범상치 않은데, 화웅이 그가 마궁수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제 목을 베어 주십시오."

조조가 따뜻하게 데운 술 한 잔을 권하자, 관우는 그 술을 마시고 말에 올라탔다. 관우가 말했다. "술은 잠시 그대로 두시오. 금방 다녀오리다." 그러고는 장막을 나서서 칼을 챙겨 들고는 번개처럼 말에 올라탔다.

제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막 밖에서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터져 나왔다. 그 기세가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산이 흔들리고 벼랑이 무너지는 듯하여 모두가 깜짝 놀랐다. 제후들이 상황을 살피려 할 때, 말방울 소리와 함께 관우가 중군에 도착했다. 관우는 화웅의 머리를 들고 와 땅바닥에 내던졌는데, 마침 술이 딱 알맞게 따뜻해진 상태였다.

후대의 시인이 이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천지를 진동시킨 첫 번째 공훈, 원문에서 울리던 북소리 드높았네.
관우가 술잔을 멈추고 영웅의 기개를 떨치니, 술이 따뜻해질 즈음 화웅을 베었도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그때 유비의 뒤에서 장비가 튀어나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형님이 화웅을 베었으니, 지금 당장 관문으로 돌격해서 동탁을 생포하면 될 것을 무엇을 더 기다리니까!" 그러자 원술이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나 같은 대신들도 스스로 겸손을 지키고 있거늘, 일개 현령 밑에 있는 졸개 따위가 감히 어디서 위세를 부리는가! 모두 저놈들을 막사 밖으로 끌어내라!" 조조가 말했다.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지, 어찌 신분의 귀천을 따지겠습니까?" 원술이 대답했다. "그대들이 정녕 저 현령 하나만을 중히 여긴다면, 나는 이만

물러가겠소." 조조가 다시 말했다. "어찌 말 한마디 때문에 대사를 그르치려 하십니까?" 조조는 공손찬에게 명하여 유비와 관우, 장비를 데리고 일단 진영으로 돌아가게 했다. 모든 관리들이 흠어지자, 조조는 몰래 사람을 보내 소와 술을 가져다주며 세 사람을 위로했다.

한편, 화웅의 부하들이 패배하여 관문으로 돌아와 급보를 전했다. 이숙은 황급히 급보를 작성하여 동탁에게 보고했다. 동탁은 즉시 이유와 여포 등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유가 말했다.

"지금 용맹한 장수 화웅을 잃었으니 적의 기세가 매우 대단합니다. 원소가 연합군의 맹주가 되었는데, 원소의 숙부인 원외가 지금 태부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안팎에서 힘을 합쳐 공격해 온다면 매우 곤란해질 것이니, 먼저 그를 제거해야 합니다. 승상께서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나누어 나가 적들을 소탕해 주십시오."

동탁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이최와 곽사를 불러 병사 오백 명을 주어 태부 원외의 집을 포위하게 했다. 그리고는 노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몰살한 뒤, 먼저 원외의 머리를 베어 관문 앞으로 가져가 군사들에게 보여주며 기세를 떨쳤다.

이어 동탁은 20만 대군을 일으켜 두 갈래로 나누어 진격했다. 한쪽은 이최와 곽사에게 병사 5만 명을 주어 사수관을 막아 서게 하고, 적과 싸우기보다는 길목을 지키도록 했다. 동탁은 직접 15만 대군을 이끌고 이유, 여포, 번추, 장제 등과 함께 호로관을 지키러 갔다. 이 관문은 낙양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군대가 관문에 도착하자, 동탁

은 여포에게 병사 3만 명을 주어 관문 앞에 진영을 구축하게 했고, 자신은 관문 위에 머물며 군사를 지휘했다.

유성마가 이 소식을 듣고 원소의 진영에 보고하자, 원소는 사람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조조가 말했다. "동탁이 호로관에 군사를 주둔시켜 우리 제후들이 나아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으니, 지금 즉시 병력의 절반을 나누어 적을 맞이해야 합니다."

원소는 곧 왕광, 교모, 포신, 원유, 공융, 장막, 도겸, 공손찬 등 여덟 제후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어 호로관으로 가서 적을 맞이하게 했다. 조조도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도우러 나섰다. 여덟 제후는 각자 군사를 일으켰다.

그중 하내 태수 왕광이 가장 먼저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다. 이때 여포가 삼천 명의 철기병을 거느리고 쏜살같이 달려와 맞서 싸웠다. 왕광 장군이 말을 세워 진형을 갖추고 문 앞에서 살펴보니, 여포가 진을 치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여포는 머리에 삼지창 모양의 묶음 머리 장식이 달린 자금관을 쓰고, 몸에는 서천의 붉은 비단으로 만든 백화포를 걸쳤으며, 짐승 얼굴이 그려진 연환갑을 입고 있었다. 허리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사자 문양의 벨트를 찼고, 몸에는 활과 화살을 지닌 채 손에는 그림 같은 창을 들고 있었다. 그가 탄 말은 바람을 가르며 울부짖는 적토마였다. 과연 여포는 사람들 중 으뜸이고, 적토마는 말들 중 으뜸이라 할 만했다.

왕광이 뒤를 돌아보며 "누가 감히 나가 싸우겠느냐?"라고 외치자, 뒤에 있던 장수 한 명이 말을 달려 창을 앞세우며 나섰다. 왕광이 살펴보

니 하내의 명장 방열이었다. 그러나 두 말이 맞붙은 지 다섯 합도 되지 않아, 방열은 여포의 창에 찔려 말 아래로 떨어졌고, 여포는 창을 곧게 세운 채 그대로 돌진해 왔다. 왕광의 군대는 대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여포는 동서로 휘저으며 적진을 휩쓸었으니, 마치 아무도 없는 곳을 다니는 듯했다. 다행히 교모와 원유의 군대가 모두 도착하여 왕광을 구하러 오자, 그제야 여포는 물러났다. 세 갈래의 제후군도 각각 병력의 손실을 입은 채 30리 밖으로 물러나 진을 쳤다. 뒤이어 다섯 갈래의 군마가 모두 도착하여 함께 의논해보니, 여포는 참으로 영웅이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뿐이었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전령이 달려와 보고했다. "여포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자 여덟 길의 제후들이 일제히 말에 올라탔다. 군대는 여덟 부대로 나뉘었고, 여포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멀리서 여포의 군마 무리가 화려한 깃발을 휘날리며 먼저 진영을 향해 돌격해 오는 모습이 보였다. 상당 태수 장양의 부장 목순이 창을 들고 맞서 나갔으나, 여포가 창을 휘두르자마자 말 아래로 찔려 떨어지고 말았다. 모두가 크게 놀랐다. 북해 태수 공융의 부장 무안국이 철퇴를 들고 말을 달려 나갔다. 여포 역시 창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맞서 왔다. 열 합 남짓 싸우던 중, 여포의 창이 안국의 손목을 단칼에 베어버렸고, 안국은 철퇴를 땅에 떨어뜨린 채 도망쳤다. 여덟 길 연합군 병사들이 일제히 달려 나가 무안국을 구하자 여포는 뒤로 물러났다. 제후들은 진영으로 돌아와 대책을 논의했다. 조조가 말했다. "여포는 용맹하여 대적할 자가 없으니, 열여덟 길 제후를 모두 불러 모아 좋은 방책을 의논해야 합니다. 여포를 사로잡기만 한다면 동탁을 처단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여포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나와 맞서 싸웠다. 이에 여덟 길의 제후들이 일제히 출동했다. 공손찬이 창을 휘두르며 여포와 직접 맞붙어 싸웠으나, 채 몇 합을 겨루기도 전에 패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여포는 적토마를 타고 뒤쫓아갔다. 그 말은 하루에 천 리를 달리고 바람처럼 빠르게 달리는 명마였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여포가 갈고리창을 높이 들어 도망치는 공손찬의 등을 향해 찔러 들어갔다. 바로 그때,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 같은 수염을 곳곳이 세운 한 장수가 뱀 모양의 긴 창을 든 채 말을 달려 소리치며 나타났다.

"세 성씨를 가진 종놈아, 게 서라! 연나라 사람 장비가 여기 있다!"

여포가 이 광경을 보고 공손찬을 버려둔 채 곧장 장비와 맞붙었다. 장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포와 격렬하게 싸웠다. 두 사람이 쉰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관우가 이를 보고는 말의 옆구리를 탁 치며, 82근 무게의 청룡언월도를 휘둘러 여포를 협공하러 나섰다. 세 마리의 말이 엇갈리며 치열하게 싸웠다. 서른 합을 더 싸웠지만 여포를 쓰러뜨리지는 못했다. 유비도 쌍검을 뽑아 들고 황색 갈기의 말을 몰아 비스듬히 달려들며 전투를 도왔다.

세 사람이 여포를 에워싸고 마치 회전하는 등불처럼 휘몰아치며 싸워대니, 여덟 길의 군사들이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여포가 정신 없이 막아내며 유비의 얼굴을 향해 창을 찔러 넣자, 유비가 급히 몸을 피했다. 여포는 진형의 모퉁이를 비집고 나와 그림 같은 창을 뒤로 끌며 말을 몰아 돌아갔다. 세 사람이 어찌 그냥 놓아주겠는가. 말에 올라타 여포를 뒤쫓았다. 그러자 여덟 길로 늘어선 연합군 병사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몰려들어 공격했다. 여포의 군사들은 겁에 질려

성 위로 도망치기 바빴고, 유비와 관우, 장비도 그 뒤를 쫓았다. 옛사람이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여포와 싸운 일을 노래로 이렇게 읊었다.

"한나라의 운수가 기우는 때에, 타오르는 붉은 해가 서쪽으로 저무는구나. 간신 동탁이 어린 황제를 폐하니, 유협은 나약하여 꿈속에서도 놀라네. 조조가 천하에 격문을 보내자, 제후들이 분노하여 모두 군사를 일으켰네. 원소를 맹주로 세워 의논하며, 왕실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루기로 맹세했네.

여포의 용맹은 세상에 비길 데 없고, 그 영웅다운 기상은 사해에 떨치네. 은빛 갑옷은 용의 비늘처럼 빛나고, 금관에는 꿩 깃털이 꽂혀 있구나. 보석 박힌 띠와 화려한 비단옷은 마치 봉황이 날아오르는 듯하고, 용마는 하늘의 바람을 일으키며 달리고, 그림 같은 창은 가을 물결처럼 번뜩이네. 관문을 나서 싸움을 청하니 누가 감히 맞서랴, 제후들은 간담이 서늘해지네.

연나라 사람 장비가 용맹하게 나서니, 손에 든 장팔사모가 번뜩이네. 호랑이 수염은 금빛을 띠며 곤두서고, 부릅뜬 눈에서는 번갯불이 치네. 한참을 치열하게 싸워도 승부를 가리지 못할 때, 진영 앞에 관우가 나섰도다. 청룡언월도는 서리처럼 눈부시고, 앵무새 문양 전포는 나비처럼 휘날리네. 말발굽 닿는 곳마다 귀신이 울부짖고, 눈앞의 분노는 피를 부르는구나. 영웅 유비가 두 자루 칼을 휘두르니, 하늘을 뒤 흔드는 용맹이 대단하네.

세 사람이 여포를 에워싸고 싸우니, 쉴 새 없이 막고 치며 공방이 이어지네. 함성은 천지를 뒤흔들고, 살기는 북두칠성마저 얼릴 듯하구나. 여포는 힘이 다해 도망갈 길을 찾다, 멀리 산등성이를 보고 말을 몰아 돌아가네. 방천화극을 뒤로 끌며 화려한 깃발을 휘날리고, 적토마를 몰아 급히 달아나 몸을 날려 호로관 위로 올라가는구나."

세 사람은 여포를 쫓아 관문 아래까지 이르렀다. 그때 관문 위로 서풍에 흔들리는 푸른 비단 차양을 본 장비가 크게 외쳤다. "저건 분명 동탁일 것이다! 여포를 쫓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 동탁 놈을 먼저 잡아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 그러고는 말을 몰아 동탁을 잡으러 관문으로 치달았다. 과연 이러하다.

"도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를 잡아야 하니, 기이한 공을 세우려면 기이한 인물이 필요하구나."

과연 승부가 어떻게 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회 — 금궐을 불태워 동탁이 흥행을 저지르고, 옥새를 숨겨 손견이 약속을 어 기다

焚金闕董卓行兇 匿玉璽孫堅背約

한편, 장비가 말을 달려 관문 아래까지 달려갔으나, 성 위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과 돌을 피할 길이 없어 결국 발길을 돌렸다. 여덟 길의 제후들은 유비, 관우, 장비를 불러 승전 축하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 원소의 진영에 승전보를 전하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소는 손견에게 군사를 일으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손견은 정보, 황개를 거느리고 원술의 진영을 찾아가 그를 대면했다. 손견은 지팡이로 땅을 그으며 말했다. “동탁과 나는 본래 원수지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몸을 아끼지 않고 화살과 돌을 맞으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은, 위로는 나라를 위해 역적을 토벌하고 아래로는 장군 가문의 사스러운 원한을 갚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참언하는 자들의 말만 듣고 군량을 보내지 않아 저를 패하게 만드셨습니까? 장군께서는 어찌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원술은 겁에 질려 아무 말

도 못 하다가, 곧바로 참언을 일삼은 자를 처형하여 손견에게 사죄했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 손견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성문에 한 장수가 말을 타고 진영으로 오며 장군을 뵙고자 합니다.” 손견은 원술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 그가 누구인지 물었는데, 바로 동탁의 애장 이각이었다. 손견이 “네가 여기 무엇 하러 왔느냐?”라고 묻자, 이각이 대답했다. “승상께서 존경하는 분은 오직 장군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를 보내 혼사를 맺고자 합니다. 승상께 딸이 있으니 장군님의 아들과 짝을 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손견이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동탁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도리에 어긋나며 왕실을 뒤엎은 자다! 나는 그놈의 구족을 멸하여 천하에 사죄하고 싶을 뿐인데, 어찌 역적과 혼인을 맺겠느냐! 내 너를 베지는 않겠다! 너는 당장 가서 어서 관문을 바쳐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네 뼈와 살이 가루가 될 줄 알아라!”

이각은 머리를 조아리고 허둥지둥 도망쳐 동탁에게 돌아가, 손견이 이토록 무례하게 굴었다고 고했다. 동탁은 화가 나 이유에게 물었다. 이유가 말했다.

“여포가 이번 전투에서 패한 뒤로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가 황제를 장안으로 옮기십시오. 그래야 요즘 도성에 떠도는 아이들의 노래에 들어맞습니다. 최근 저잣거리 아이들의 노래를 들어보니, ‘서쪽 끝에 한나라가 있고, 동쪽 끝에 한나라가 있네. 사슴이 장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비로소 난리가 없으리’라고 합니다. 신이 이 말을 깊이 생각해보니, ‘서쪽 끝의 한나라’라는 말은 한 고조가 서도인 장안에서 변성하여 열두 황제를 이어간

것에 응하고, ‘동쪽 끝의 한나라’라는 말은 광무제가 동도인 낙양에서 번성하여 역시 열두 황제를 이어간 것에 응합니다. 천운이 마땅히 돌아가야 하니, 승상께서 장안으로 천도하셔야만 근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동탁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정말 깨닫지 못했을 것이요.”

동탁은 곧 여포를 데리고 밤을 도와 낙양으로 돌아가 천도 문제를 논의했다. 조정에 문무백관을 모은 뒤 동탁이 말했다.

“한나라의 동도인 낙양은 이백여 년 동안 기운이 이미 다했다. 내가 보니 왕성한 기운은 장안에 있으니, 나는 황제를 모시고 서쪽으로 가고자 한다. 너희는 각자 서둘러 짐을 꾸리도록 하라.”

사도 양표가 말했다. “관중 지역은 지금 폐허가 되어 황량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종묘를 버리고 황릉을 떠난다면 백성들이 크게 동요할까 두렵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은 매우 쉬우나, 다시 안정을 찾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법이니, 승상께서는 부디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동탁이 노하며 외쳤다. “그대는 지금 국가의 큰 계획을 가로막으려는 것인가?”

태위 황완이 거들었다. “사도 양표의 말이 옳습니다. 예전 왕망이 찬역하고, 갱시제와 적미군이 날뛰던 때에 장안이 불타버려 온통 돌무더

기 땅이 되었고, 게다가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져 백에 한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궐을 버리고 황폐한 땅으로 옮기려 하시니, 이는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동탁이 말했다. “관동에서 도적들이 일어나 천하가 어지러워지고 있다. 장안은 효산과 함곡관이라는 험난한 요새가 있고, 농우 지역과도 가까워 나무와 돌, 벽돌과 기와 같은 자재를 며칠이면 마련할 수 있다. 궁궐을 짓는 데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니, 그대들은 다시는 쓸데없는 말을 내뱉지 마라.”

사도 순상이 간언했다. “승상께서 수도를 옮기려 하시면 백성들이 술렁이며 불안해할 것입니다.”

동탁이 크게 분노하며 소리쳤다. “나는 천하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어찌 미천한 백성들을 아까워하겠느냐!”

그러고는 그날 즉시 양표, 황완, 순상을 파직하여 평민으로 만들어 버렸다.

동탁이 밖으로 나와 수레에 오르니, 두 사람이 마차를 향해 읍하며 예를 갖추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상서 주비와 성문교위 오경이였다. 동탁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주비가 말했다. “지금 승상께서 장안으로 천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간언하러 왔습니다.” 동탁은 크게 노하며 외쳤다. “내가 처음 너희 둘을 믿고 원소를 등용하라고 권했거늘, 이제 원소가 반역을 꾀하니 너희도 한패로구나!” 그러고는 무사들에게 호통을 쳐 두 사람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목을 베게 했다. 이어

동탁은 즉시 천도를 명령하며, 내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라고 엄명을 내렸다.

이때 이유가 동탁에게 말했다. “지금 군량과 재물이 부족한데, 낙양에는 부유한 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관가로 속시키면 됩니다. 특히 원소 무리 같은 자들의 집안을 털어 그 일가친척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다면, 반드시 엄청난 양의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탁은 즉시 철기병 5천 명을 보내 낙양의 부유한 집수천 가구를 살살이 잡아들이게 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반신역당’이라는 깃발을 꽂고 성 밖에서 모두 참수하여 재물을 빼앗았다.

이각과 곽사는 낙양의 백성 수백만 명을 몰아 장안으로 압송했다. 백성 한 부대 사이에 군사 한 부대를 배치하여 서로 감시하며 끌고 갔는데, 도랑과 골짜기에서 죽어 나가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또한 군사들은 멋대로 백성의 아내와 딸을 겁탈하고 식량을 빼앗으니, 통곡 소리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만약 행군이 늦어지는 자가 있으면 뒤에서 3천 명의 군사가 칼을 휘두르며 재촉하고 길 위에서 사람을 죽였다.

동탁은 떠나기 전, 모든 성문에 불을 지르라 명하여 백성들의 집은 물론 종묘와 궁궐까지 모두 불태워 버렸다. 남궁과 북궁의 불길의 서로 맞닿았고, 낙양의 궁궐 터는 온통 불타버린 잿더미가 되었다. 또한 여포를 시켜 선황과 후비들의 능침을 파헤쳐 금은보화를 가져오게 했다. 군사들은 이 기세를 몰아 관가와 백성들의 무덤까지 모조리 파헤쳤다. 동탁은 금과 구슬, 비단 등 귀한 물건을 실은 수천 대의 수레를 채기고, 천자와 후비 일행을 겁박하여 끌고 가 마침내 장안으로 떠나갔다.

한편, 동탁이 이미 낙양을 버리고 떠난 것을 본 조잡은 사수관을 바쳐 항복했다. 손견이 군사를 몰아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갔고, 유비와 관우, 장비도 호로관을 돌파하며 싸워 들어갔다. 이어 각지의 제후들도 군대를 이끌고 차례로 입성했다.

한편, 손견이 낙양으로 급히 달려가 보니, 하늘을 찌를 듯한 불길과 땅을 뒤덮은 검은 연기가 이백삼백 리에 걸쳐 뻗어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이나 가축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손견은 먼저 군사를 보내 불을 끄고 진화한 뒤, 여러 제후에게 황폐해진 땅에 군마를 머물게 하라고 명했다.

이때 조조가 원소를 찾아가 물었다. "지금 동탁이 서쪽으로 도망치고 있으니, 이 기세를 몰아 추격해야 합니다. 본초께서는 어찌하여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까?"

원소가 대답했다. "군사들이 모두 지치고 곤란한 상황이라, 무리하게 나아갔다가는 도리어 해가 될까 걱정됩니다."

그러자 조조가 말했다. "동탁이 궁궐을 불태우고 천자를 납치해 가니, 천하가 요동치며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한 번의 싸움으로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데, 제후들은 무엇이 두려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다른 제후들은 모두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만류했다. 조조가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애송이들과는 도저히 논의할 수가 없군!"

말을 마친 조조는 곧바로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후돈, 하후연, 조인, 조홍, 이전, 악진을 거느린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탁을 뒤쫓아 나갔다.

한편, 동탁이 형양 지역에 이르자 태수 서영이 마중을 나왔다. 이때 이유가 말했다. “승상께서 막 낙양을 버리고 떠나셨으니 추격군이 있을지 모릅니다. 서영에게 명하여 형양 성 밖 산언덕에 군사를 매복시키게 하십시오. 만약 추격군이 오면 일단 그냥 보내주었다가, 저희가 이곳에서 적을 격파한 뒤에 뒤를 끊고 덮쳐서 몰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는 이들도 감히 다시 추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탁은 이 계책을 따랐고, 여포에게 정예병을 이끌고 후방을 지키라 명했다. 여포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조조의 군대가 뒤쫓아왔다. 여포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유의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구나!” 여포는 곧장 군사를 배치했다. 조조가 말을 몰아 나오며 크게 외쳤다. “역적놈아! 천자를 납치하고 백성들을 흠어지게 만들었으니, 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여포가 욕설을 퍼부으며 맞받아쳤다. “주군을 배신한 겁쟁이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하후돈이 창을 치켜들고 말을 뛰어올라 여포를 직접 공격했다. 싸움이 채 몇 합을 가기도 전에 이각이 군사를 이끌고 왼쪽에서 습격해 왔고, 조조는 급히 하후연에게 적을 맞서라고 명령했다. 그때 오른쪽에서도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곽사가 군사를 몰고 나타났다. 조조는 다급히 조인에게 적을 막으라 했다. 세 방향에서 몰려오는 군마의 기세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후돈은 여포를 상대하다 버티지 못하고 말을 돌려 진영으로 후퇴했다. 여포가 철기병을 이끌고 몰아치자 조조의 군대는 대패하였고, 조조는 형양 쪽을 향해 도망쳤다. 한참을 달려 어느 황량한 산기슭에 이

르니, 때는 이경(밤 열 시)쯤이었으나 달빛이 밝아 대낮 같았다. 그제야 조조는 남은 병사들을 겨우 모을 수 있었다.

한창 술을 걸고 밥을 지으려는데, 사방에서 함성이 들려오더니 서영이 매복해 두었던 군사들을 일제히 쏘아냈다. 조조는 황급히 말을 달려 도망칠 길을 찾았으나, 마침 서영과 맞닥뜨리자 몸을 돌려 다시 달아났다. 서영이 활을 당겨 화살을 날렸고, 화살은 조조의 어깨에 명중했다. 조조는 어깨에 화살이 박힌 채 목숨을 걸고 산비탈을 넘어 달아났다. 그때 풀숲에 숨어 있던 군사 둘이 조조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창을 동시에 내질렀고, 조조의 말은 창에 맞아 쓰러졌다. 조조가 말에서 굴러 떨어지자마자 두 병사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때 한 장수가 말을 타고 달려와 칼을 휘둘러 보병 둘을 베어 넘기더니, 말에서 내려 조조를 구해냈다. 조조가 살펴보니 바로 조홍이었다. 조조가 말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 아우는 어서 피하게!” 조홍이 말했다. “형님, 어서 말에 올라타십시오!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조조가 물었다. “적군이 뒤쫓아오는데, 자네는 어찌하려는가?” 조홍이 대답했다. “천하에 저 하나는 없어져도 되지만, 형님만큼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조조가 말했다. “내가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모두 자네 덕분일 것이네.” 조조가 말에 올라타자, 조홍은 갑옷을 벗어 던지고 칼을 든 채 조조의 말을 뒤따라 달렸다.

사경(새벽 두 시) 무렵까지 달렸을까, 앞에는 큰 강이 가로막아 길을 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함성이 점점 가까워졌다. 조조가 탄식하며 말했다. “내 운명이 여기까지구나. 다시 살아가기는 틀렸어!” 조홍은 급히 조조를 말에서 내리게 한 뒤, 자신의 겂옷과 갑옷을 벗어 조조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넜다. 겨우 강 건너편에 도착하자마자 추격군이 도착하여 강 너머로 화살을 퍼부었다. 조조는 젖은 몸으로 계속 달렸다. 날이 밝을 무렵 30여 리를 더 달린 조조 일행은 어느 언덕 아래에서 잠시 쉬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함성이 들리더니 한 무리의 군마가 달려왔다. 바로 서영이 강 상류를 건너 조조를 추격해 온 것이었다.

조조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후돈과 하후연이 십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번개처럼 달려오며 크게 외쳤다. “서영, 우리 주군을 해치지 마라!” 서영이 하후돈을 공격하자, 하후돈은 창을 내밀며 맞서 싸웠다. 말을 타고 몇 차례 맞붙던 중, 하후돈이 서영을 말 아래로 찢러 넘어뜨렸고 나머지 병사들도 모두 흩어지게 만들었다. 뒤이어 조인, 이진, 악진이 각각 병사를 이끌고 달려와 조조를 발견하니, 반가움과 걱정이 교차하였다. 이들은 남은 병사 오백여 명을 모아 함께 하내로 돌아갔고, 동탁의 군대는 장안을 향해 떠나갔다.

한편, 여러 제후는 낙양 곳곳에 나누어 진을 쳤다. 손견은 궁궐에 남은 불길을 끄고 군사를 성안에 주둔시켰으며, 건장전 터에 막사를 세웠다. 손견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궁궐의 기와 잔해를 깨끗이 치우게 하고, 동탁이 파헤쳐 놓은 모든 능침을 다시 덮어 봉인했다. 그리고 태묘 터에 세 칸짜리 임시 전각을 지은 뒤, 제후들을 불러 모아 성현들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친 뒤 제후들은 모두 흩어졌다.

손견이 진영으로 돌아온 그날 밤, 별과 해가 교차하며 빛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손견은 칼을 옆에 두고 앉아 하늘의 별자리를 올려다보았다. 자미원의 별들 사이로 하얀 기운이 끝없이 번져 나가는 것을 본 손견이 탄식하며 말했다.

"항제의 별은 빛을 잃고 간신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니,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구나. 도성마저 텅 비어버렸으니!"

말을 마친 손견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때 곁에 있던 군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전각 남쪽 우물에서 오색의 빛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손견이 즉시 군사들에게 횃불을 들게 하여 우물 속을 뒤지게 했다. 우물 속에서 한 여인의 시신을 건져 올렸는데, 비록 죽은 지 오래되었으나 시신이 썩지 않았고 궁궐의 복식을 갖추고 있었다. 목에는 비단 주머니가 걸려 있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금 자물쇠로 잠긴 붉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가로세로 네 치 크기의 옥새가 들어 있었다. 옥새 위에는 다섯 마리의 용이 서로 얹혀 조각되어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어 황금으로 메워져 있었다. 그 위에는 '하늘의 명을 받았으니, 장수하고 영원히 번창하리라'라는 여덟 글자의 전서체가 새겨져 있었다.

손견이 옥새를 얻고 나서 정보에게 그 내력을 물었다. 정보가 대답했다.

“이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물인 전국옥새입니다. 이 옥은 옛날 변화가 형산 아래에서 봉황이 바위 위에 깃든 것을 보고, 그 돌을 싣고 가서 초나라 문왕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옥을 쪼개 보니 과연 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나라 26년에 옥 세공사에게 명하여 옥새를 깎게 하고, 이사가 그 위에 이 여덟 글자를 새겼습니다. 28년에 진시황이 동정호로 순행할 때, 갑자기 바람과 물결이 거세게 일어 배가 뒤집힐 뻔

하자 급히 옥새를 호수에 던졌더니 비로소 물결이 찾아들었습니다. 36년에 진시황이 화음으로 순행할 때, 어떤 사람이 옥새를 들고 길을 막아서더니 수행원들에게 ‘이것을 들고 조룡(진시황)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옥새는 다시 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듬해에 진시황이 세상을 떠났고, 나중에 자영이 이 옥새를 한나라 고조에게 바쳤습니다. 그 후 왕망이 찬탈했을 때, 효원 황태후가 왕심과 소헌을 칠 때 옥새로 내리치다가 한쪽 모서리가 깨졌는데, 이를 금으로 메웠습니다. 광무제가 의양에서 이 보물을 얻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최근 듣자니 십상시가 난을 일으켜 소제를 겁박해 북망으로 끌고 나갔다가, 궁으로 돌아온 뒤 이 보물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주공께서 이 보물을 얻으셨으니, 반드시 황제의 자리에 오를 운명입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니, 어서 강동으로 돌아가 큰일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손견이 말했다. “그대의 말이 내 생각과 딱 맞소. 내일 당장 병을 핑계 삼아 돌아가겠소.”

두 사람은 상의를 마친 뒤, 군사들에게 이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엄중히 일렀다.

그런데 뜻밖에도 군사들 중 원소의 고향 사람인 자가 있었다. 그는 이 일을 이용해 출세할 궁리를 하며 밤을 틈타 진영을 빠져나와 원소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원소는 그에게 상을 내리면서도, 그 사실을 군중에 알리지 않고 비밀로 해두었다.

다음 날, 손건이 원소를 찾아와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몸에 병이 있어 장사로 돌아가야 하기에, 특별히 공을 뵙고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원소가 웃으며 말했다. "공의 병이란 필시 전국옥새를 얻은 것 때문이 아니겠소?"

손건은 안색이 변하며 물었다. "그 말씀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원소가 말했다. "지금 백성을 일으켜 도적을 토벌하며 나라의 해악을 제거하고 있지 않소. 옥새는 조정의 보물인데, 공이 이미 그것을 얻었으니 마땅히 제후들을 모아 맹주로 삼아 동탁을 처단한 뒤 조정에 돌려주어야 하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숨기고 떠나려 하다니, 대체 무슨 속셈이오?"

손건이 대답했다. "옥새가 어찌 제 손에 있단 말입니까?"

원소가 다시 물었다. "건장전 우물 속에서 나온 물건이 어디 있단 말이오?"

손건이 말했다. "저는 본래 그런 것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어찌 이리 강제로 다그치십니까?"

원소가 말했다. "어서 내놓으시오. 그래야 스스로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오."

손견은 하늘을 가리키며 맹세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이 보물을 얻고도 사사로이 숨겼다면, 훗날 결코 편안히 죽지 못하고 칼과 화살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제후들이 일제히 말했다. "손견이 저토록 맹세하는 것을 보니, 필시 옥새가 없는 모양이오."

원소가 군사들을 불러내어 물었다. "우물을 뒤질 때 이 사람이 있었느냐?"

손견은 크게 노하여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들고 그 군사를 베려 했다. 원소 또한 칼을 뽑으며 말했다. "그대가 군사를 베려 한다면, 나를 속이는 것이오!"

그러자 원소의 뒤에 있던 안량과 문추도 모두 칼을 뽑아 들었다. 손견의 뒤에 있던 정보, 황개, 한당 역시 칼을 손에 쥐고 맞섰다. 제후들이 일제히 말리자, 손견은 즉시 말을 타고 진영을 떠나 낙양을 벗어났다.

원소는 크게 분노하여 편지 한 통을 쓴 뒤, 심복을 보내 밤을 도와 형주로 달려가 자사 유표에게 전하게 했다. 그리고 길목에서 손견을 가로막아 옥새를 빼앗으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조조가 동탁을 추격하다 형양에서 대패하여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소는 사람을 보내 조조를 진영으로 불러들였고, 여러 사람과 함께 술자리를 마련하여 조조의 울분을 달래주었다.

술자리에서 조조가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대의를 일으켜 나라의 도적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의로운 뜻으로 모이셨으니, 원래 제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본초께서 하나의 군사를 이끌고 맹진과 산조로 나아가시고, 여러분께서는 성고를 굳게 지키며 오창을 점거하고 환원관과 대곡 같은 험한 요충지를 막아 그 험요를 장악해 주십시오. 공로는 남양의 군사를 거느리고 단과 석에 주둔하여 무관으로 들어가 삼보 지역을 위협해야 합니다. 모두 깊은 해자와 높은 성벽을 쌓아 적과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의병(疑兵)을 늘려 천하에 형세를 보여줌으로써 순리로 역적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하를 단숨에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으니, 천하의 기대를 크게 저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원소와 다른 이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곧 잔치가 끝나자 조조는 원소 일행이 각자 탄마음을 품고 있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할 것임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양주로 떠나버렸다.

공손찬이 유비, 관우, 장비에게 말했다. “원소는 무능한 사람이니 머지않아 반드시 변고가 생길 것이오. 우리도 이만 돌아갑시다.” 말을 마친 공손찬은 진영을 거두어 북쪽으로 향했다. 공손찬은 평원에 이르러 유비를 평원상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따로 떠나 영토를 지키며 군사를 길렀다.

한편, 연주 태수 유대가 동군 태수 교모에게 군량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교모가 이를 거절하자 유대는 군사를 이끌고 교모의 진영으로 돌격하여 교모를 죽이고 그 군사들을 모두 항복시켰다. 원소는 사람

들이 각자 흩어지는 것을 보고는 군사를 거느리고 진영을 떠나 낙양을 벗어나 관동 지역으로 향했다.

한편, 형주 자사 유표는 산양 고평 사람으로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여 이름난 선비 일곱 명과 벗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일컬어 ‘강하팔준’이라 불렀다. 그 일곱 명은 여남의 진상(자 중린), 같은 여남의 범방(자 맹박), 노국의 공욱(자 세원), 발해의 범강(자 중진), 산양의 단부(자 문우), 같은 산양의 장검(자 원절), 남양의 잠질(자 공효)이었다. 유표는 이 일곱 명과 벗 사이였으며, 연평 출신의 괴량·괴월과 양양 출신의 채모가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

당시 유표는 원소의 편지를 보고는 즉시 괴월과 채모에게 명령하여 군사 만 명을 이끌고 손견을 가로막게 했다. 손견의 군대가 도착하자 괴월이 진을 치고 앞장서서 말을 몰고 나왔다. 손견이 물었다. “괴이도가 어찌하여 군사를 이끌고 와 내 길을 막는가?” 괴월이 대답했다. “그대는 한나라의 신하이면서 어찌하여 전국의 보물을 사사로이 숨기고 있는가? 어서 내놓고 가면 살아서 돌아가게 해주겠다!”

손견이 크게 노하여 황개를 내보내 싸우게 했다. 채모가 칼을 휘두르며 맞서 나왔다. 몇 합을 겨루다 황개가 채모의 가슴을 겨냥해 채찍을 휘둘렀고, 채찍은 채모의 호심경에 정통으로 맞았다. 채모가 말을 돌려 달아나자 손견은 그 기세를 몰아 경계선을 넘어 돌격했다. 그런데 산 뒤편에서 갑자기 징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유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다.

손견이 말 위에서 예를 갖추며 말했다. “경승은 어찌하여 원소의 편지를 믿고 이웃 고을을 압박하는가!” 유표가 말했다. “그대가 전국의 옥새를 숨기고 반역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 손견이 외쳤다. “만약 내게 그런 물건이 있다면 화살과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유표가 다시 말했다. “내 말을 믿게 하고 싶다면 군대의 짐을 내어놓아라. 내가 직접 수색하겠다.” 손견이 분노하며 말했다. “네놈이 무슨 힘이 있다고 감히 나를 얹보느냐!”

막 싸움을 시작하려 할 때 유표가 먼저 물러났다. 손견이 말을 달려 뒤쫓아가자, 양쪽 산 뒤에서 복병들이 일제히 일어나고 뒤에서는 괴월과 채모가 쫓아와 손견을 포위망 한가운데 가두어 버렸다.

옥새를 얻은 것이 도리어 쓸모가 없으니, 그 보물 때문에 도리어 칼부림이 일어났구나.

결국 손견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회 — 원소가 반하에서 공손찬과 싸우고, 손견이 강을 건너 유표를 공격하다

袁紹磐河戰公孫 孫堅跨江擊劉表

한편, 손견은 유표의 군대에 포위되어 위기에 빠졌으나, 다행히 정보, 황개, 한당 세 장수가 목숨을 걸고 구해주어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사의 절반 이상을 잃은 채 겨우 길을 열어 강동으로 돌아왔으니, 이때부터 손견과 유표 사이에는 깊은 원한이 맺히게 되었다.

한편, 원소는 하내에 군사를 주둔시켰으나 군량미가 부족했다. 이에 기주목 한복은 사람을 보내 군사들이 쓸 양식을 보냈다. 그러자 원소의 모사 봉기가 원소에게 말했다.

"대장부가 천하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어찌 남이 보내주는 양식에 의지해 먹고살려 하십니까? 기주는 재물과 식량이 풍족한 곳이니, 장군께서 차라리 그곳을 차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소가 대답했다.

"아직 좋은 계책이 없네."

봉기가 다시 말했다.

"몰래 사람을 보내 공손찬에게 서신을 보내십시오. 기주를 차지하기 위해 함께 군사를 일으키자고 제안하며 협공하기로 약속한다면, 공손찬은 반드시 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한복은 지략이 없는 자이니 분명 장군께 기주를 다스릴 권한을 넘겨달라고 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주를 차지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습니다."

원소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공손찬에게 서신을 보냈다. 서신을 받은 공손찬은 기주를 함께 공격하여 땅을 나누어 갖자는 내용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날 바로 군사를 일으켰다. 한편, 원소는 한복에게도 몰래 소식을 전했다.

사태를 파악한 한복은 당황하여 모사인 순침, 신평을 불러 모아 의논했다. 순침이 말했다.

"공손찬이 연(燕)·대(代) 지방의 군사를 이끌고 거침없이 몰려오고 있으니 그 기세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유비, 관우, 장비까지 도와주고 있으니 적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원소는 지략과 용맹이 남다르고 휘하에 이름난 장수들도 아주 많습니다. 장군께서는 차라리 원소에게 기주를 함께 다스리자고 청하십시오. 그러면 원소가 장군을 극진히 대접할 것이니 공손찬을 걱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복은 곧장 별가 관순을 보내 원소에게 청하러 가게 했다. 그러자 장사 경무가 간언했다.

"원소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처지에 군사도 부족하여 우리 눈치를 살피야 하는 처지입니다. 마치 아이가 우리 손바닥 위에 놓인 것과 같아서, 젖을 끓으면 바로 끓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주를 다스리는 일을 그에게 맡기려 하십니까? 이것은 호랑이를 양 떼 속으로 끌어들이는 격입니다."

한복이 말했다.

"나는 원씨 가문의 옛 관리였고, 재능 또한 원소만 못하다. 옛 성현들도 어진 이를 택해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곤 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질투를 하는가?"

경무가 탄식하며 말했다.

"기주는 이제 끝났구나!"

이 말을 끝으로 한복의 밑에서 직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서른 명이 넘었다. 오직 경무와 관순만이 성 밖에 숨어 원소를 기다렸다. 며칠 후 원소가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자, 경무와 관순은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어 원소를 찌르려 했다. 그러나 원소의 장수 안량이 그 자리에서 경무를 베고, 문초가 관순을 베어 죽였다.

원소는 기주로 입성한 뒤 한복을 '분위장군'에 앉히고, 전풍, 저수, 허유, 봉기를 시켜 기주의 사무를 나누어 맡게 함으로써 한복의 권력을 모조리 빼앗았다. 한복은 뒤늦게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결국 가족을 버리고 홀로 말을 달려 진류 태수 장막에게로 몸을 피했다.

한편, 공손찬은 원소가 기주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공손월을 원소에게 보내 땅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원소가 말했다. "네 형님을 직접 모셔 오너라. 그래야 의논할 수 있겠다." 공손월이 작별을 고하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채 50리도 못 가서 길가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우리는 동탁 승상의 가신이다!"라고 외치며 화살을 퍼부어 공손월을 쏘아 죽였다. 공손월을 따르던 부하가 겨우 도망쳐 돌아와 공손찬에게 공손월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공손찬이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원소가 나를 꼬드겨 한복을 치게 만들더니, 정작 기주는 제 손으로 차지해 버렸구나! 게다가 이제는 동탁의 군사를 사칭해 내 동생까지 화살로 쏘아 죽이다니, 이 원수를 어찌 갚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공손찬은 즉시 자기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 기주를 향해 돌진했다. 원소 역시 공손찬의 군사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두 군대는 반하에서 맞붙었는데, 원소의 군대는 반하고 동쪽에, 공손찬의 군대는 다리 서쪽에 진을 쳤다. 공손찬이 말 위에서 다리 위로 올라가 크게 외쳤다. "의리를 저버린 자들아, 네가 어찌 감히 나를 속일 수 있느냐!" 원소 또한 말을 몰아 다리 근처까지 다가와 공손찬을 가리키며 말했다. "한복은 재능이 없으니 기주를 내게 양보하려는 것뿐이다. 이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공손찬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네가 충직하고 의롭다고 믿어 맹주로 추대했거늘, 지금 네가 하는 짓을 보니 참으로 늑대나 개 같은 흉악한 자로구나. 네가 무슨 낯으로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느냐!" 원소가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누가 저놈을 사로잡을 것인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초가 말을 몰아 창을 앞세우고 다리 위로 돌격했다. 공손찬은 다리 근처에서 문초와 맞붙어 싸웠으나, 열 함을

채 버티지 못하고 패하여 달아났다. 문초는 이 기세를 몰아 뒤쫓았다. 공손찬이 진영 안으로 도망치자, 문초는 말을 달려 중군까지 거침없이 침입하여 사정없이 휘저었다. 공손찬의 수하 용장 네 명이 일제히 맞서 싸웠으나, 문초의 창에 장수 한 명이 말에서 떨어지자 나머지 세 명도 모두 도망쳐 버렸다. 문초가 진영 밖으로 도망치는 공손찬을 끝까지 추격하자, 공손찬은 산골짜기를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문초는 말을 채찍질하며 크게 외쳤다.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공손찬은 화살이 다 떨어지고 투구까지 땅에 떨어졌다. 머리카락이 풀어헤쳐진 채 말을 몰아 산비탈을 달아나던 중, 말의 발이 헛디터지는 바람에 공손찬은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문초가 급히 창을 휘두르며 찌르려던 찰나, 갑자기 풀이 우거진 비탈 왼쪽에서 한 젊은 장수가 나타나 말을 몰고 창을 휘두르며 문초를 향해 돌진했다. 그사이 공손찬은 겨우 비탈을 기어 올라가 그 젊은 장수를 살피보았다. 그는 키가 8척에 눈썹이 짙고 눈이 커서 얼굴이 넓고 턱이 두툼했으며, 위풍당당한 기개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문초와 50~60합을 싸우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마침 공손찬의 구원군이 도착하자 문초는 말을 돌려 물러갔고, 그 젊은 장수 역시 군이 뒤쫓지 않았다. 공손찬은 서둘러 비탈을 내려가 젊은 장수에게 이름을 물었다. 젊은 장수가 몸을 굽혀 답했다.

"소인은 상산 진정 사람으로, 성은 조, 이름은 운, 자는 자룡이라 합니다. 본래 원소의 휘하에 있었으나, 원소가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백성을 구제할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를 버리고 공손찬 장군님께 귀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손찬은 크게 기뻐하며 그와 함께 진영으로 돌아가 군사를 정비했다.

다음 날, 공손찬은 군사를 좌우 두 부대로 나누어 마치 날개처럼 위용을 갖추게 했다. 말은 오천여 필이었는데, 그중 태반이 백마였다. 공손찬이 예전에 강족과 싸울 때 선봉으로 백마만을 골라 썼던 덕분에 '백마장군'이라 불리게 되었고, 강족들이 백마만 보면 겁을 먹고 달아났기에 유독 백마가 많았다.

원소는 안량과 문초를 선봉으로 삼아 각각 궁수 천 명씩을 거느리게 한 뒤, 이들 역시 좌우 두 부대로 나누었다. 왼쪽 부대에는 공손찬의 우군을 쏘게 하고, 오른쪽 부대에는 공손찬의 좌군을 쏘게 했다. 또한 곡의에게는 궁수 팔백 명과 보병 만 오천 명을 거느리고 진영 가운데 배치하게 했다. 원소는 직접 수만 명의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뒤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공손찬은 조운을 새로 얻었으나 아직 그를 깊이 믿지 못해, 조운에게 별도의 군사를 맡겨 후방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대장 엄강을 선봉으로 보냈다. 공손찬은 직접 중군을 이끌고 말다리 위에 올라서서, 말앞에 붉은 바탕에 금색 선으로 '수(帥)' 자가 새겨진 깃발을 세웠다.

진시(오전 7~9시)부터 사시(오전 9~11시)까지 북을 울리며 몰아붙였으나, 원소의 군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곡의는 궁수들에게 모두 화살 가리개 아래 엎드리게 한 뒤, 대포 소리가 들리면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다. 엄강이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곡의를 향해 돌격했으나, 곡의의 군사들은 엄강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도 모두 엎드린 채 움직이

지 않았다. 엄강이 거의 다다랐을 때 대포 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팔백 명의 궁수가 일제히 화살을 퍼부었다. 엄강은 급히 퇴각하려 했으나, 곡의가 말을 달려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말 아래에서 베이고 말았다. 공손찬의 군대는 대패했다.

좌우의 두 군사가 구하러 가려 했으나, 안량과 문초가 이끄는 궁수들의 화살 세례에 막혀 나아가지 못했다. 원소의 군대가 거세게 몰아치며 계교 근처까지 진격하자, 곡의가 말을 타고 나타나 먼저 깃발을 든 장수를 베고 수놓은 깃발을 쓰러뜨렸다. 공손찬은 깃발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말을 돌려 다리 아래로 도망쳤다.

곡의가 군사를 이끌고 후방까지 거침없이 돌격했을 때, 마침 조운과 맞닥뜨렸다. 조운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뛰어올라 곡의를 향해 쇄도했다. 몇 합을 겨루지 않아 조운의 창이 곡의를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조운은 홀로 말을 타고 원소의 군대 속으로 뛰어들어, 마치 아무도 없는 곳을 다니듯 좌우로 휘저으며 돌파했다. 뒤늦게 공손찬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공격해 오자, 원소의 군대는 크게 패퇴했다.

한편, 원소가 먼저 정찰병을 보내 상황을 살피게 했다. 정찰병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곡의가 적의 장수를 베고 깃발을 빼앗았으며, 패퇴하는 군사들을 뒤쫓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소는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전풍과 함께 막사 아래의 창을 든 군사 수백 명과 궁수 수십 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나가 구경했다. 그러고는 허허 크게 웃으며 말했다. "공손찬은 참으로 무능한 놈이로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조운이 눈앞까지 돌진해 왔다. 궁수들이 급히 활을 쏘려 했으나, 조운이 연달아 여러 명을 찔러 죽이자 군사들이 모두 겁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사이 공손찬의 군사들이 떼를 지어 포위해 들어왔다. 당황한 전풍이 원소에게 다급히 말했다. "주군, 일단 빈 담장 안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십시오!" 그러자 원소가 투구를 땅에 내팽개치며 크게 외쳤다. "대장부가 전쟁터에서 맞서 싸우다 죽을지언정, 어찌 담장 안으로 숨어 목숨을 구걸하겠느냐!"

군사들이 한마음으로 죽기로 싸웠으나 조운의 기세가 워낙 거세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때 원소의 본대가 덮쳐오고, 안량 또한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양쪽에서 몰아치며 공격했다. 조운은 공손찬을 보호하며 포위망을 뚫고 계교로 돌아갔다. 원소는 군사를 몰아 거세게 추격하며 다리까지 건너갔는데, 물에 빠져 죽은 자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원소가 앞장서서 쫓아온 지 5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갑자기 산등성이 너머에서 함성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더니, 한 무리의 군마가 번쩍이며 나타났다. 그 선두에는 세 명의 대장이 있었으니, 바로 유비, 관우, 장비였다. 이들은 평원에서 공손찬과 원소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도와주러 온 것이었다. 세 사람은 세 마리의 말을 타고 세 자루의 병기를 휘두르며 쏘살같이 달려와 원소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원소는 혼비백산하여 손에 쥐고 있던 보검을 말 아래로 떨어뜨리고는, 급히 말을 돌려 달아났다. 부하들이 필사적으로 구해주어 겨우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공손찬 역시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갔다.

유비, 관우, 장비가 상황을 묻자 공손찬이 말했다. "만약 유비가 멀리서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거의 큰 변을 당할 뻔했소." 그러면 서 조운을 만나게 해주었다. 유비는 조운을 매우 존경하고 아끼게 되어, 그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몽클해질 정도였다.

한편, 원소는 한 차례 패한 뒤로 굳게 지키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양측 군대가 서로 대치한 지 한 달여가 되었을 때, 누군가 장안으로 달려가 동탁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유가 동탁에게 말했다.

"원소와 공손찬은 지금 천하의 호걸들입니다. 현재 반하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마땅히 천자의 조서를 빌려 사람을 보내 화해시켜야 합니다. 두 사람이 그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태사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동탁은 크게 기뻐하며 다음 날 즉시 태부 마일제와 태복 조기에게 조서를 들려 보냈다. 두 사람이 하북에 이르자, 원소는 백 리 밖까지 마중 나와 두 번 절하며 조서를 받들었다. 이튿날 두 사람이 공손찬의 진영에 이르러 조서를 선포하자, 공손찬은 사절을 보내 원소에게 화친의 글을 전하며 서로 화해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경성으로 돌아가 보고했다.

공손찬은 그날로 군사를 돌렸고, 유비를 평원상(平原相)으로 천거하는 표문을 올렸다. 유비는 조운과 헤어지게 되자 서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차마 떨어지지 못했다. 조운이 탄식하며 말했다.

"제가 예전에 공손찬을 영웅이라 착각했습니다. 지금 그가 하는 것을 보니 원소 같은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군요!"

유비가 말했다.

"그대는 잠시 몸을 낮추어 그를 섬기게나. 우리도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했다.

한편, 남양에 있던 원술은 원소가 새로 기주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말 천 마리를 보내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원소가 이를 거절하자 원술은 크게 화가 났다. 이때부터 형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 또한 원술은 형주로 사신을 보내 유표에게 식량 이십만 석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유표 역시 이를 거절했다. 원술은 유표에게 원한을 품고, 몰래 사람을 보내 손견에게 편지를 전달하며 유표를 치라고 부추겼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지난번에 유표가 길을 가로막은 것은 우리 형님인 원소의 계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소는 유표와 사사로이 모의하여 강동을 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어서 군사를 일으켜 유표를 치십시오. 제가 원소를 쳐서 장군을 돕는다면, 두 원수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군께서 형주를 차지하시면 저는 기주를 차지할 것이니, 부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손견은 편지를 읽고는 이렇게 말했다. "유표 이놈, 참으로 패썹하구나! 예전에 내 퇴로를 끊더니, 이제 기회를 틈타 원한을 갚아야 할 때를 놓치면 대체 언제 하겠느냐!"

손견은 즉시 장막 아래로 정보, 황개, 한당 등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정보가 말했다. "원술은 속임수가 많은 자이니,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손견이 대답했다. "나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이지, 어찌 원술의 도움을 바라겠느냐?"

손견은 곧바로 황개를 먼저 강가로 보내 전함을 배치하게 하고, 무기와 군량미를 넉넉히 실었으며, 큰 배에는 군마까지 실어 날짜를 정해 출정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강가에 잠입해 있던 첩자가 이 사실을 알아내어 유표에게 보고했다. 유표는 크게 놀라 급히 문무 장수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괴량이 말했다.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황조에게 강하의 병사를 거느리고 앞장서게 하여 적을 막게 하고, 주군께서는 형주와 양양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원군으로 가시면 됩니다. 손견이 강을 건너고 호수를 건너오느라 고생할 텐데, 어찌 제대로 힘을 쓰겠습니까?"

유표는 그 말이 옳다고 여겨 황조에게 방비를 갖추게 한 뒤, 곧바로 대군을 일으켰다.

한편, 손견에게는 오 부인이 낳은 네 아들이 있었다. 장남의 이름은 손책이고 자는 백부, 차남은 손권이고 자는 중모, 삼남은 손익이고 자는 숙필, 사남은 손광이고 자는 계좌였다. 오 부인의 여동생이 손견의 둘째 부인이 되었는데, 그녀 역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손량이고 자는 조안이며, 딸의 이름은 인이었다. 또한 손견은 유(兪)씨 집안에서 아들 하나를 양자로 들였으니, 이름은 손소이고

자는 공례였다. 손견에게는 손정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자는 유태였다.

손견이 출정하러 하자, 손정이 여러 자제들을 데리고 말 앞에 나아가 절하며 간언했다. "지금 동탁이 권력을 독점하고 천자는 유약하여 천하가 큰 혼란에 빠져 각지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강동이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데, 작은 원한 때문에 무리하게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형님께서서는 부디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손견이 말했다. "동생은 더 말하지 말게. 나는 천하를 중횡무진할 것이니, 원한이 있다면 어찌 갚지 않겠는가!" 그러자 장남 손책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정녕 가고자 하신다면, 소자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손견이 이를 허락하자, 손견은 손책과 함께 배에 올라 번성을 향해 거세게 나아갔다.

황조는 강가에 활을 쏘는 병사들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배가 기슭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제히 화살을 퍼부었다. 손견은 군사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배 안에 숨어 적을 유인하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수십 차례나 배를 기슭에 대며 유인하자, 황조의 군사들은 화살을 쏘는 데만 열중하다가 결국 화살이 바닥나고 말았다. 오히려 손견의 군대는 적의 배에서 얻은 화살을 거두어들이니 그 수가 십여 만 발에 달했다. 마침 바람도 순풍으로 불어오자, 손견이 군사들에게 일제히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강가에 있던 적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손견의 군대가 강가에 상륙하자, 정보와 황개는 병력을 둘로 나누어 황조의 진영을 직접 공격했다. 그 뒤를 이어 한당이 군사를 몰아 거세

게 진격했다. 삼면에서 몰아치는 협공에 황조는 크게 패하여 번성을 버리고 등성으로 퇴각했다. 손견은 황개에게 배를 지키라고 명한 뒤,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에 나섰다. 황조는 군사를 이끌고 나와 들판에 진을 쳤다. 손견도 진을 갖추고 깃발 아래에서 말을 몰아 나갔다. 손책 또한 갑옷을 온전히 갖추어 입고 창을 든 채 아버지의 곁에서 말을 달렸다. 황조는 두 장수를 내보냈는데, 한 명은 강하의 장호였고 다른 한 명은 양양의 진생이었다. 황조가 채찍을 휘두르며 크게 꾸짖었다. "강동의 쥐새끼 같은 도적놈들아, 감히 한나라 황실 종친의 영역을 침범하려 드느냐!" 그러고는 장호에게 싸움을 걸라고 명령했다. 손견의 진영에서는 한당이 맞서 나갔다. 두 기병이 맞붙어 서른 합 넘게 싸우던 중, 진생은 장호의 기세가 약한 것을 보고 말을 달려 도와주려 했다. 이를 본 손책은 손에 쥔 창을 누르고 활을 당겨 화살을 날렸는데, 화살이 정확히 진생의 얼굴을 맞히는 바람에 그는 말에서 떨어졌다. 장호는 진생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한당의 칼에 머리 절반이 잘려 나갔다. 정보는 말을 몰아 진영 앞으로 곧장 달려가 황조를 잡으려 했다. 황조는 투구와 말을 버려둔 채 보병들 사이에 섞여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쳤다. 손견은 패잔병을 추격하며 한수까지 몰아붙였고, 황개에게 명하여 배를 한강에 정박하게 했다.

황조는 패배한 군사들을 이끌고 유표를 찾아가, 손견의 기세가 위낙 대단하여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고 보고했다. 유표는 당황하여 괴랑을 불러 상의를 청했다. 괴랑이 말했다. "지금은 막 싸움에서 진 상태라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저 성벽을 높게 쌓고 해자를 깊게 파서 적의 기세를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사람을 보내 원소에게 구원을 요청한다면, 이 포위망은 자연히 풀릴 것입니다."

그러자 채모가 말했다. "괴량의 말은 참으로 어리석은 계책입니다. 적군이 성 아래까지 들이닥치고 곧 강가까지 다다를 텐데, 어찌 손 놓고 죽기만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제가 비록 재주는 부족하나,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결판을 내고 싶습니다." 유표는 채모의 말을 허락했다.

채모는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양양 성 밖으로 나가 현산에 진을 쳤다. 이때 손견은 승기를 잡은 군대를 몰아 거침없이 진격해 왔다. 채모가 말에 올라 전장에 나서자 손견이 말했다. "저 자는 유표의 후처 쪽 오라비인데, 누가 나를 도와 저자를 사로잡겠느냐?"

그러자 정보가 철척창을 들고 말에 올라 채모와 맞붙었다. 하지만 채모는 몇 합을 겨루지 못하고 패하여 달아났다. 손견은 대군을 몰아 공격하니 시체가 들판에 가득했다. 채모는 겨우 양양 성안으로 도망쳤다. 괴량이 채모가 자신의 계책을 듣지 않아 대패를 초래했으니 군법에 따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유표는 채모가 최근에 자신의 여동생과 혼인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한편, 손견은 군사를 나누어 사방에서 양양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더니 중앙군을 상징하는 수帥(수) 자가 적힌 깃대가 꺾이고 말았다. 이를 본 한당이 말했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잠시 군사를 물리고 물러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손견이 말했다. "나는 연전연승을 거듭해 왔고, 양양을 함락시키는 것도 머지않았다. 어찌 고작 바람에 깃대가 꺾였다고 해서 갑자기 군사를 거둔단 말이나!" 손견은 결국 한당의 말을 듣지 않고 성을 공격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한편, 괴량이 유표에게 말했다. “제가 어젯밤 천문을 살펴보니, 장수의 별이 떨어지려는 형국이었습니다. 지역의 별자리 배치로 미루어 보건대, 그 대상은 분명 손견일 것입니다. 주군께서는 속히 원소에게 서신을 보내 도움을 청하십시오.” 유표가 즉시 편지를 쓰며 누구 중에 돌파하여 나갈 용맹한 자가 있는지 묻자, 용맹한 장수인 여공이 나섰다. 괴량이 말했다. “그대가 가겠다면 내 계책을 따르시오. 군마 오백 필을 줄 테니, 활을 잘 쏘는 자들을 많이 데리고 진영을 뚫고 나가 즉시 현산으로 달려가시오. 손견은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올 것이요. 그대는 백 명을 산 위로 보내 돌을 준비하게 하고, 나머지 백 명은 활과 노를 들고 숲속에 매복시키시오. 추격병이 나타나면 곧장 달아나지 말고, 길을 구불구불하게 돌며 매복한 곳으로 유인한 뒤 화살과 돌을 한꺼번에 퍼부어야 하오. 만약 승기를 잡으면 연달아 신호용 폭죽을 터뜨리시오. 그러면 성 안에서 구원군이 출동할 것이요. 만약 추격병이 없다면 폭죽을 터뜨리지 말고 서둘러 떠나시오. 오늘 밤은 달빛이 밝지 않으니 해 질 녘에 바로 성 밖으로 나가면 될 것이요.”

여공은 계책을 받고 군마를 준비시켰다. 해 질 녘이 되자 몰래 동문을 열고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다. 한편, 손견은 막사 안에 있다가 갑자기 함성이 들려오자 급히 말에 올라 기병 서른 명 남짓을 이끌고 진영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폈다. 군사들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한무리의 군마가 성을 치고 나와 현산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손견은 다른 장수들을 모으지도 않고 곧장 서른 명 남짓의 기병만을 데리고 뒤쫓았다.

여공은 이미 산림이 울창하고 복잡한 곳곳에 상하로 매복을 마친 상태였다. 손견은 말이 빨라 혼자 앞서 달려 나갔고, 선두 부대와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이르렀다. 손견이 "게 섰거라!" 하고 크게 외치자, 여공이 말머리를 돌려 손견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두 사람이 채 한 합을 겨루기도 전에 여공은 산길로 몸을 숨기며 달아나 버렸다. 손견이 그 뒤를 쫓아 산속으로 들어갔으나 여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손견이 막산을 오르려 할 때, 갑자기 징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산 위에서 돌덩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내렸고 숲속에서는 화살이 비처럼 날아들었다. 손견은 돌과 화살에 맞아 머릿골이 터져 흐르며, 말과 함께 현산에서 목숨을 잃었다. 향년 서른일곱이었다.

여공은 손견의 기병 서른 명을 가로막아 모조리 베어 죽인 뒤, 연주포(신호 포)를 쏘아 올렸다. 성 안에서는 황조, 괴월, 채모가 각기 군사를 나누어 이끌고 쏟아져 나와 공격하니, 강동의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황개가 하늘을 울리는 함성을 듣고 수군을 이끌고 달려와 마침 황조와 맞닥뜨렸는데, 채 두 합도 되지 않아 황조를 생포했다. 한편 정보는 손책을 보호하며 급히 길을 찾던 중 여공과 마주쳤다. 정보가 말을 달려 달려들어 몇 합을 겨루지 못하고 창으로 여공을 말 아래로 찌러 죽였다. 양측 군대는 날이 밝을 때까지 격렬하게 싸우다 각자 군을 거두어 물러났다. 그사이 유표의 군대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

손책이 한수 근처로 돌아와서야 아버지가 화살 세례를 받아 전사했으며, 시신은 이미 유표의 군사들에게 들려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했다. 모든 장수와 병사들도 함께 울었다. 손책이 말했다. "아버지의 시신이 저곳에 있는데, 어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니

까!" 그러자 환개가 말했다. "지금 황조를 생포해 두었으니, 사람을 성에 보내 화친을 제안하고 황조를 내주는 조건으로 주공의 시신을 되찾아 옵시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리 환개가 나서며 말했다. "제가 유표와 구면이니, 제가 성에 들어가 사절 역할을 하겠습니다." 손책이 이를 허락했다. 환개가 성에 들어가 유표를 만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자, 유표가 말했다. "손건의 시신은 이미 내가 관에 넣어 이곳에 보관하고 있소. 어서 황조를 풀어주고 양측 모두 군사를 거두어 다시는 서로 침범하지 마시오."

환개가 절을 하며 물러나려는데, 계단 아래에 있던 괴량이 나타나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강동의 군사들을 단 한 명도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환개를 먼저 베고 나서 계책을 쓰게 해주십시오."

적을 쫓던 손건은 목숨을 잃고, 화친을 청하려던 환개는 또 화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과연 환개의 목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회 — 왕사도가 교묘하게 연환계를 쓰고, 동태사가 봉의정에서 크게 소란을 피우다

王司徒巧使連環計 董太師大鬧鳳儀亭

한편, 괴량이 말했다. '지금 손견이 죽고 그 아들들은 모두 어립니다. 이 기회를 틈타 신속하게 군사를 움직인다면, 단번에 강동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시신을 돌려주고 군사를 물린다면, 적이 기력을 기르도록 놔두는 것이니 이는 형주에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표가 말했다. '내게는 저쪽 진영에 황조가 있는데, 어찌 그를 버려둘 수 있겠는가?'

괴량이 다시 말했다. '지모도 없는 황조 한 명을 버리고 강동을 얻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표가 대답했다. '나는 황조와 마음을 나눈 친한 사이이니, 그를 버리는 것은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말을 마친 유표는 환개를 진영으로 돌려보내며, 손건의 시신과 황조를 맞바꾸기로 약속했다. 유표가 황조를 데려오자 손책은 부친의 영구를 맞이하였고, 군사를 물려 강동으로 돌아가 곡아의 별판에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 장례를 모두 마친 손책은 군대를 이끌고 강도에 머물며 인재를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을 낮추며 정중히 대했다. 그러자 사방에서 영웅호걸들이 점차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편, 장안에 있던 동탁은 손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 마음 속의 큰 근심거리를 하나 없앴구나!'라며 기뻐했다. 동탁이 '그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인가?'라고 묻자, 누군가 '열일곱 살입니다'라고 대답했으나 동탁은 별로 개의치 않았다. 이때부터 동탁은 더욱 오만하고 방자해져서 스스로를 '상부'라 칭하며, 황제의 의장대로 출입하는 등 격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삼았다. 또한 동생 동민을 좌장군 호후로 봉하고, 조카 동황을 시중으로 삼아 금군을 총괄하게 했다. 동씨 일족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열후로 봉했다. 동탁은 장안성에서 250리 떨어진 곳에 미오라는 성을 따로 쌓았는데, 민부 25만 명을 동원하여 건설했다. 그 성벽의 높낮이와 두께는 장안성과 다를 바 없었으며, 성 안에는 궁궐과 창고를 지어 20년 치 식량을 쌓아두었다. 또한 민간에서 아름다운 소녀 800명을 뽑아 성 안에 거주하게 했고, 금과 옥, 비단, 진주를 셀 수 없을 만큼 쌓아두었으며 가족들도 모두 그곳에 살았다. 동탁이 장안을 오갈 때는 보름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꼴이었는데, 그때마다 공경들이 횡문 밖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다.

동탁은 평소 길목에 막사를 치고 고위 관리들과 모여 술을 마시곤 했다. 어느 날 동탁이 옆문으로 나가자 모든 관리가 배웅을 나갔다. 동

탁이 연회를 계속하고 있을 때, 마침 북쪽 땅에서 항복해 온 병사 수백 명이 도착했다. 동탁은 즉시 그들을 잔칫상 앞에 세워두고는, 어떤 이는 손발을 자르고, 어떤 이는 눈을 파내고, 어떤 이는 혀를 자르고, 어떤 이는 커다란 솥에 넣어 삶으라고 명령했다. 비명과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고, 관리들은 겁에 질려 젓가락을 떨어뜨릴 정도였으나, 동탁만은 태연하게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또 다른 날, 동탁이 성대(관청)에서 관리들을 불러 모아 두 줄로 늘어앉게 하고 큰 잔치를 열었다. 술이 몇 차례 돌 무렵, 여포가 불쑥 들어오더니 동탁의 귓가에 몇 마디를 속삭였다. 동탁은 웃으며 '과연 그렇구나!'라고 말하더니, 여포에게 명령하여 연회석에 앉아 있던 사공 장온을 끌어내리게 했다. 관리들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잠시 후, 시종이 붉은 쟁반을 들고 나타나 장온의 머리를 받들어 올렸다. 관리들은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동탁이 웃으며 말했다. '제군들, 너무 놀라지 마시오. 장온이 원술과 결탁하여 나를 해치려 했소. 보내온 편지가 잘못하여 내 아들 봉선의 처소에 떨어지는 바람에 발각되어 죽인 것이니,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두려워할 것 없소.' 관리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사도 왕윤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오늘 잔치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편치 않아 앉아 있지도 못했다. 밤이 깊어 달빛이 밝게 비칠 때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후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다 도미 덩굴 시렁 옆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문득 모란정 근처에서 누군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윤이 살금살금 다가가 살펴보니, 바로 집안의 가신인 초선

이었다. 초선은 어릴 때부터 왕윤의 집으로 뿔혀 들어와 노래와 춤을 배웠는데, 이제 열여섯 살이 되어 미모와 재주가 모두 뛰어났다. 왕윤은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다.

왕윤은 한참 동안 그녀의 소리를 듣다가 호통을 쳤다. '천한 것이 감히 사사로운 정이라도 품고 있는 것이냐?' 초선이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천한 몸이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왕윤이 물었다. '사사로운 마음이 없다면, 어찌 이 깊은 밤에 길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냐?' 초선이 말했다. '제 속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왕윤이 말했다.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보아라.' 초선이 말했다. '저는 어른의 은혜로 자라며 노래와 춤을 배웠고,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몸이 가루가 된다 해도 그 은혜의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른의 미간에 근심이 가득하신 것을 보고 분명 나라에 큰일이 생겼으리라 짐작하면서도 감히 여쭙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안절부절못하며 자리에 앉아 계시기에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는데, 뜻하지 않게 어른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만약 저를 써 주실 곳이 있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왕윤이 지팡이로 땅을 치며 말했다. '한나라 천하가 네 손에 달려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나를 따라 화각으로 오너라.'

왕윤은 초선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시녀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뒤, 초선을 자리에 앉히고 머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초선은 깜짝 놀라 바닥에 엎드리며 말했다.

"대인,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왕윤이 말했다.

"그대는 한나라 천하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게나!"

말을 마친 왕윤의 눈에서 눈물이 샘물처럼 쏟아졌다. 초선이 말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령만 내려주신다면 만 번 죽는 한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왕윤은 무릎을 꿇고 간곡히 말했다.

"백성들은 거꾸로 매달린 듯 위태롭고, 임금과 신하 사이는 달걀을 엮어놓은 듯 급박한 상황이라네. 그대가 아니면 구할 길이 없네. 역적 동탁은 이제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고, 조정의 문무백관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네. 동탁에게는 여포라는 양자가 있는데, 성은 여이고 이름은 포라 하며 무예가 비정상적일 만큼 용맹하다네. 내가 보기에 두 사람 모두 여색을 밝히는 자들이니, 이제 연합계를 쓰려 하네. 먼저 그대를 여포에게 시집보내기로 약속한 뒤, 나중에 동탁에게 바칠 것이네. 그대는 그 틈을 타서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고, 여포가 동탁을 죽여 큰 악을 끊어내게 해야 하네. 그리하여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강산을 바로 세우는 것은 모두 그대의 힘에 달렸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초선이 대답했다.

"대인의 뜻을 받들어 만 번 죽어도 마다하지 않겠으니, 부디 속히 저를 그들에게 바쳐 주십시오. 저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왕윤이 말했다.

"만약 일이 새어 나간다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네."

초선이 말했다.

"대인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 이 큰 의리를 갚지 못한다면, 수만 개의 칼날 아래 죽어도 마땅합니다."

왕윤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음 날, 왕윤은 집에 보관하던 명주 몇 알을 꺼내 숙련된 장인에게 명하여 금관 하나를 만들게 한 뒤, 이를 사람을 시켜 여포에게 몰래 보냈다. 여포는 크게 기뻐하며 왕윤의 집을 직접 찾아가 감사를 표했다. 왕윤은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여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문밖까지 나가 그를 맞이하고는 후당으로 안내해 상석에 앉혔다.

여포가 말했다. '저는 상부의 한낱 장수일 뿐인데, 사도께서 어찌 이토록 과분한 대접을 해 주십니까?'

왕윤이 대답했다. '지금 천하에 영웅이라 할 만한 이는 장군뿐이오. 내가 장군의 직책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장군의 재능을 높게 사는 것이라오.'

여포는 매우 기뻐했다. 왕윤은 정성을 다해 술을 권하며, 동탁 태사와 장군이 베풀어 준 은덕이 끝이 없다고 치켜세웠다. 여포는 크게 웃

으며 술을 들이켰다. 왕윤은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술을 권할 여인 몇 명만을 남겨 두었다. 술기운이 적당히 오르자 왕윤이 말했다. '아이를 불러오너라.'

잠시 후, 푸른 옷을 입은 시종 둘이 초선을 데리고 화려하게 꾸민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포가 놀라서 누구냐고 묻자 왕윤이 말했다. '제 딸 초선입니다. 제가 장군의 과분한 사랑을 입어 가까운 친척이나 다름없는지라, 그래서 장군과 만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초선에게 여포에게 술을 권하게 했다. 초선이 여포에게 술을 올리자,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왕윤은 취한 척하며 말했다. '아이에게 장군과 함께 술을 몇 잔 더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하오. 우리 집안은 온전히 장군께 달려 있소이다.'

여포가 초선에게 앉으라고 청하자, 초선은 못 이기는 척 물러나려 했다. 그러자 왕윤이 말했다. '장군은 나의 가장 친한 벗인데, 아이가 좀 앉는 것이 어떠하겠소?' 초선은 곧 왕윤의 곁에 앉았다. 여포는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술을 몇 잔 더 마신 뒤, 왕윤이 초선을 가리키며 여포에게 말했다. '내가 이 아이를 장군의 첩으로 보내드리고자 하는데, 받아주시겠소?'

여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하며 말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제가 개나 말처럼 온 힘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왕윤이 말했다. '조만간 좋은 날을 골라 장군의 집으로 보내겠소.'

여포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연신 초선을 쳐다보았다. 초선 역시 눈웃음을 치며 마음을 전했다. 잠시 후 잔치가 끝나자 왕윤이 말했다. '본래 장군을 붙잡아 하룻밤 묵게 하고 싶지만, 혹여 태사께서 의심하실까 두렵구려.' 여포는 거듭 인사를 올리고 물러갔다.

며칠 뒤, 왕윤은 조정에서 동탁을 만났다. 마침 여포가 곁에 없음을 확인한 왕윤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청했다. '사도가 태사님의 거가를 굽혀 누추한 집에 왕림하시어 연회를 베풀고자 하는데, 뜻이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탁이 대답했다. '사도가 초대한다면 마땅히 달려가야지요.' 왕윤은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산해진미를 모두 차리고 앞뜰 정중앙에 자리를 마련했다. 바닥에는 비단과 수를 놓은 천을 깔고, 안팎으로 휘장까지 쳤다.

다음 날 정오, 동탁이 도착했다. 왕윤은 조정 관복을 갖춰 입고 나가 동탁을 맞이하며 다시 절을 올리고 안부를 물었다. 동탁이 마차에서 내리자, 창과 갑옷을 든 병사 백여 명이 좌우에서 그를 에워싸고 대청으로 들어와 양옆으로 늘어섰다. 왕윤이 대청 아래에서 다시 절을 하자, 동탁은 그를 부축해 일으켜 곁에 앉도록 명했다. 왕윤이 말했다. '태사님의 덕망은 높고 위대하여 이윤과 주공조차 미치지 못할 정도입니다.' 동탁은 크게 기뻐했다. 술과 음악이 이어지는 잔치 자리에서 왕윤은 지극한 정성으로 동탁을 대접했다.

밤이 깊어 술기운이 오르자, 왕윤은 동탁을 후당으로 모셨다. 동탁은 병사들을 물러가게 했다. 왕윤은 술잔을 받들어 올리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제가 어려서부터 천문을 익혀 밤마다 하늘의 형상을 살펴왔는데, 한나라의 운수는 이미 다했습니다. 태사님의 공덕은 천하에 떨치

고 있으니, 이는 마치 순임금이 요임금에게서 천하를 물려받고 우임금이 순임금의 뒤를 이은 것과 같아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모두 일치하는 일입니다.' 동탁이 말했다. '어찌 그런 과분한 기대를 한단 말이오!' 왕윤이 대답했다. '예로부터 「도리가 있는 자가 도리 없는 자를 치고, 덕이 있는 자가 덕 없는 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과한 말이겠습니까?' 동탁이 웃으며 말했다. '만약 정말로 천명이 내게 있다면, 사도는 반드시 나의 일등 공신이 될 것이오.' 왕윤은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방 안에는 화려한 촛불을 켜두고, 여종들이 술과 음식을 올리도록 했다. 왕윤이 말했다. '교방의 악사들 음악으로는 태사님을 모시기에 부족하여, 미천하게나마 집에 있는 가기를 불러 응대하게 하려 합니다.' 동탁이 말했다. '아주 좋구려.' 왕윤은 휘장을 내리게 한 뒤, 피리와 생황 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다. 그러자 시녀들이 초선을 웅위하여 휘장 밖에서 춤을 추게 했다. 그 춤사위를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본래 소양궁의 귀한 여인이었으나, 마치 날아오르는 기러기처럼 손바닥 위에서 나풀거리니, 동정호의 봄날을 가로질러 날아온 듯하구나. 양주 땅을 밟는 연꽃 같은 발걸음은 안정되고, 바람에 흔들리는 꽃가지처럼 신선한 모습이니, 향기로운 방안의 온기가 봄기운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구나.'

또한 이런 시도 있었다. '붉은 박판 소리에 맞춰 제비는 바빠 날고, 한 조각 구름처럼 화려한 방 안으로 들어오네. 가느다란 눈썹은 나그네의 한을 자아내고, 고운 얼굴은 옛 친구의 애간장을 꿰네. 느릅나무 꼬투리 같은 돈으로는 천금의 웃음을 사지 못하고, 버들 같은 허리에 어

찌 온갖 보석 단장이 필요하랴. 춤이 끝나고 휘장 너머로 몰래 눈길을 보내니, 누가 초나라 양왕인지 알 수 없구나.'

춤이 끝나자 동탁이 가까이 오라고 명령했다. 초선은 발 안쪽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동탁은 초선의 모습이 무척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 여인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왕윤이 "노래하는 가기 초선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동탁이 "노래를 할 줄 아는가?"라고 물었다. 왕윤이 초선에게 명령하여 나무판을 들고 나지막이 노래 한 곡을 부르게 했다. 그 노래는 이러하였다.

"앵두 같은 입술을 살짝 열어 붉은 입술을 드러내니, 부서진 옥 같은 하얀 치아 사이로 봄기운이 뿜어져 나오네. 정향 꽃 같은 혀를 휘둘러 강철 검처럼 놀리니, 간사한 신하들을 베어 나라를 바로잡으리라."

동탁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왕윤은 초선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동탁이 잔을 높이 들며 물었다.

'그대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

초선이 대답했다.

'천첩의 나이 이제 막 열여섯이 되었습니다.'

동탁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신선 같은 미인이로구나!'

그러자 왕윤이 일어나서 말했다.

'제가 이 아이를 태사님께 바치고자 하는데, 혹시 받아주시겠습니까?'

동탁이 말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어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왕윤이 말했다.

'이 아이가 태사님을 모시게 되는 것일 뿐, 그 복이 너무도 보잘것없습니다.'

동탁은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왕윤은 즉시 전거(털 수레)를 준비시켜 먼저 초선을 상부로 보냈다. 동탁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을 고했다. 왕윤은 동탁을 상부까지 직접 배웅한 뒤에야 돌아왔다.

왕윤이 말을 타고 가는데 길을 채 반도 가지 않아, 길 양옆으로 붉은 등불이 길을 밝히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여포가 말을 타고 창을 든 채 다가오다가 왕윤과 딱 마주쳤다. 여포는 말의 고삐를 잡아채더니 왕윤의 옷깃을 움켜쥐고 매서운 목소리로 물었다.

'사도가 초선을 내게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태사님께 바치다니,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오?'

왕윤이 급히 그를 만류하며 말했다.

'여기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니, 우선 저 누추한 집으로 가십시오.'

여포는 왕윤의 집으로 가서 말에서 내려 후당으로 들어갔다. 인사를 마친 뒤 왕윤이 물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이 노부를 원망하십니까?'

여포가 말했다.

'누군가 제게 말하기를, 사도께서 털 수레에 초선을 태워 상부로 보내셨다는데, 그것이 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왕윤이 대답했다.

'장군께서는 아직 모르셨군요! 어제 태사께서 조정에서 노부에게 「내게 일이 하나 있으니 그대의 집으로 가야겠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부는 태사께서 오시기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술을 마시던 중에 태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에게 초선이라는 딸이 있어 이미 내 아들 봉선에게 시집보내기로 약속했다 들었네. 혹시 자네의 딸이 틀릴까 염려되어 직접 확인하러 왔으니, 초선을 한번 보여주게나」 라고 하셨습니다. 노부는 감히 거역할 수 없어 초선을 데리고 나와 어르신께 절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태사께서 「오늘처럼 좋은 날에 내가 당장 이 아이를 데려가 봉선과 짝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장군께서도 잘 생각해보십시오. 태사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 노부가 어찌 감히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포가 말했다.

'사도, 제 죄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잠시 오해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뵙게 되면 반드시 가시나무를 지고 사죄하겠습니다.'

왕윤이 말했다.

'내 딸이 화장품과 장신구를 조금 챙겨두었으니, 장군의 저택을 지나
갈 때 바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포가 물러갔다. 다음 날, 여포는 집안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았
으나 초선에 관한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여포는 곧장 대청으로
들어가 첩들을 불러 세워 물었다. 첩이 대답하기를, "어젯밤 태사께서
새 여인과 함께 잠드셔서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했다. 여
포는 크게 화가 나 동탁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 안을 살폈다. 이때 초선
이 창가에서 일어나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문득 창밖 연못에 비친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아주 크고 늙름했으며 머리에는 관
을 쓰고 있었다. 결눈질로 살펴보니 바로 여포였다. 초선은 일부러 미
간을 찌푸리며 근심에 잠긴 듯 슬픈 표정을 지었고, 향기로운 비단 손
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여포는 한참 동안 몰래 지켜보다가 밖
으로 나갔으나, 잠시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동탁은 이미 중당에 앉
아 있다가 여포가 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밖은 별일 없느냐?" 여포가
"별일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동탁의 곁에 서 있었다. 동탁이 막 식사를
하려는데, 여포가 몰래 눈을 돌려 훑쳐보다가 수놓은 발 안에서 한 여
인이 오가며 얼굴을 반쯤 내밀고 눈빛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여포는
그것이 초선임을 알아채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동탁은 여포의 이런 모
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의심과 질투가 생겨 말했다. "봉선은 별일 없거
든 그만 물러가거라." 여포는 기분이 상한 채 밖으로 나왔다.

동탁은 초선을 곁에 둔 뒤로 색에 빠져 한 달 넘게 정무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동탁이 가벼운 병을 앓게 되자, 초선은 옷도 벗지 않은 채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수발을 들고 비위를 맞추었고, 동탁은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을 빼앗겼다.

여포가 안부를 물으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동탁은 잠이 들어 있었다. 초선은 침상 뒤에서 몸을 반쯤 내밀어 여포를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자기 심장을 가리켰다가 다시 동탁을 가리키며 눈물을 멈추지 않고 흘렸다. 이를 본 여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잠결에 눈을 뜬 동탁은 여포가 침상 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몸을 돌려 확인해 보니 초선이 침상 뒤에 서 있었다. 동탁은 크게 노하여 여포를 꾸짖었다. '네가 감히 내가 아끼는 여인을 희롱하느냐! 당장 좌우의 군사들을 불러 저놈을 쫓아내고, 앞으로는 내 거처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여포는 분노와 원망을 품은 채 돌아가던 중, 우연히 길에서 이유를 만나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유가 급히 동탁을 찾아가 말했다. '상부께서 천하를 얻으려 하시는데, 어찌하여 그런 작은 일로 온후를 꾸짖으십니까? 만약 저자의 마음이 변한다면 대사를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동탁이 물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유가 대답했다. '내일 아침에 불러들여 금과 비단을 내리며 부드러운 말로 달래주면 자연히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동탁은 그 말대로 하기로 했다.

다음 날, 동탁은 사람을 보내 여포를 불러들인 뒤 위로하며 말했다. '내가 지난번 병중에 정신이 혼미하여 실수로 너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마음에 두지 말거라.' 그러고는 금 열 근과 비단 스무 필을 하사했다. 여포는 감사를 표하고 물러갔으나, 몸은 동탁의 곁에 있어도 마음은 온통 초선에게 가 있었다.

동탁이 병에서 회복하자 조정에 들어가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다. 여포는 창을 들고 그를 수행했는데, 동탁이 헌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타서 몰래 안쪽 문으로 빠져나갔다. 여포는 말을 타고 곧장 왕윤의 관저로 달려가 관저 앞에 말을 묶어두고는 창을 든 채 후당으로 들어가 초선을 찾아냈다.

초선이 말했다. "후원의 봉의정 근처에서 저를 기다려 주세요."

여포는 창을 들고 곧장 달려가 정자 아래 난간 곁에 섰다. 한참이 지나 초선이 꽃과 버드나무 사이를 헤치며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과연 달나라의 선녀처럼 아름다웠다. 초선은 눈물을 흘리며 여포에게 말했다. "제가 비록 왕 사도의 친딸은 아니나, 사도께서 저를 친딸처럼 아껴 주셨습니다. 장군을 뵈고 나서 장군을 모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다짐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제 평생의 소원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태사가 나쁜 마음을 품고 저를 더럽히려 할 줄이야! 저는 차라리 당장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만 장군과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억지로 수치를 견디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 좋게 장군을 뵈었으니 제 소원은 다 이루었습니다. 이미 몸이 더러워져 다시는 영웅을 모실 수 없게 되었으니, 장군 앞에서 죽어 제 뜻을 밝히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초선은 난간을 붙잡고 연못을 향해 뛰어내리려 했다. 여포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으며 울먹였다. "그대의 마음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소! 그저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었소!"

초선이 여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이번 생에는 장군과 아내와 남편의 인연을 맺지 못하니, 부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시다."

여포가 말했다. "이번 생에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다면, 나는 영웅이라 할 수 없을 것이오!"

초선이 말했다. "하루가 일 년 같으니, 부디 저를 가없게 여겨 구해 주십시오."

여포가 말했다. "지금 몰래 왔다가 저 늙은 도적(동탁)에게 의심을 사면 큰일이니, 서둘러 떠나야 하오."

초선이 그의 옷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장군께서 저토록 늙은 도적을 두려워하신다면, 저는 다시는 밝은 세상 구경을 못 하겠군요!"

여포가 멈춰 서서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좋은 계책을 세워 보겠소."

말을 마친 여포가 창을 들고 떠나려 하자 초선이 말했다. "깊은 방에 누워 장군의 명성을 들었을 때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귀에 울려, 당대에 오직 장군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남의 손아귀

에 휘둘리게 되었던 말입니까!" 말을 마치고 초선은 비 오듯 눈물을 흘렸다.

여포는 부끄러움과 안타움에 얼굴이 붉어진 채 다시 창에 기대어 서서, 몸을 돌려 초선을 껴안고 다정한 말로 위로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차마 떨어지지 못했다.

한편, 동탁은 전각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나 여포가 보이지 않자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서둘러 헌제에게 작별을 고하고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 앞에 여포의 말이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문지기에게 물으니, 문지기가 "온후께서는 후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동탁은 좌우의 신하들을 물러가게 한 뒤 곧장 후당으로 들어가 여포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고, 초선을 불러보아도 초선 역시 보이지 않았다. 급히 곁에 있던 시녀에게 물으니, 시녀가 "초선은 후원에 꽃을 구경하러 갔습니다"라고 말했다. 동탁이 급히 후원을 찾아 들어가 보니, 마침 여포와 초선이 봉의정 아래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여포의 창은 한쪽에 기대어 있었다. 동탁은 화가 치밀어 크게 호통을 쳤다. 여포는 동탁이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돌려 달아났다. 동탁은 옆에 있던 창을 낚아채 들고 뒤쫓아갔다. 여포는 발이 빨랐고 동탁은 몸이 비대하여 따라잡지 못하자, 창을 던져 여포를 찌르려 했다. 여포가 창을 쳐내자 창이 땅에 떨어졌다. 동탁이 다시 창을 집어 들고 쫓아갔으나 여포는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다. 동탁이 정원 문 밖으로 달려 나가는데, 한 사람이 급히 달려오다가 동탁의 가슴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동탁이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는 천 길이나 높았건만, 비대한 몸뚱이는 땅
바닥에 덩그러니 쓰러졌구나.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회 — 폭흉한 여포를 제거하여 사도 를 돕고, 장안을 범하여 이각이 가후의 말을 듣다

除暴兇呂布助司徒 犯長安李傕聽賈詡

한편, 동탁을 들이받은 사람은 바로 이유였다. 이유는 동탁을 부축하여 서원으로 데려가 자리에 앉혔다. 동탁이 물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달려왔느냐?" 이유가 대답했다. "제가 부의 문 앞을 지나가는데, 태사께서 노하여 후원으로 들어가 여포를 찾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달려오던 차에, 마침 여포가 '태사께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라고 외치며 뛰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당황하여 정원으로 뛰어 들어가 말리려다 그만 실수로 은상(동탁)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동탁이 화를 내며 말했다. "가증스러운 역적 놈 같으니! 내 사랑스러운 여인을 희롱하다니,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유가 말했다. "은상, 생각이 짧으십니다. 옛날 초나라 장왕이 '절영'의 잔치를 베풀었을 때, 사랑하는 여인을 희롱했다고 해서 그 일을 끝까지 따지지 않았더니, 나중에 장왕이 진나라 군사에게 포위되었

을 때 그 여인을 희롱했던 장웅이 목숨을 걸고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초선은 그저 한 명의 여인일 뿐이지만, 여포는 태사의 심복이자 용맹한 장수 아닙니까? 만약 태사께서 이번 기회에 초선을 여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여포는 그 큰 은혜에 감격하여 반드시 죽음으로써 태사께 보답할 것입니다. 부디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동탁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잘 생각해 보마."

이유가 물러가자 동탁은 후당으로 들어가 초선을 불러 물었다. "네가 어찌하여 여포와 몰래 통정하였느냐?" 초선이 울며 대답했다. "제가 뒷동산에서 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피하려 하자, 여포가 '나는 태사님의 아들인데 무엇 때문에 피하느냐?'라고 말하며 창을 들고 저를 봉의정까지 쫓아왔습니다. 그자의 마음이 불순한 것을 보고 억지로 당할까 두려워 연못에 몸을 던져 자결하려 했으나, 이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태사님께서 오셔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동탁이 말했다. "내가 이제 너를 여포에게 선물로 주려 하는데, 어떻겠느냐?" 초선은 크게 놀라 울부짖었다. "저는 이미 귀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종놈에게 하사하려 하시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욕됨은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벽에 걸린 보검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려 했다. 동탁이 당황하여 칼을 뺏고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내가 장난을 좀 쳐본 것이다!" 초선은 동탁의 품에 쓰러져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며 말했다. "이것은 분명 이유의 계책입니다! 이유가 여포와 사이가 두터우니 이런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태사님의 체면과 이천한 계집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서 반드시 그자의 살점을 씹어 먹겠습니다!" 동탁이 말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초선이 말했다. “태사님의 사랑을 입었으나, 이곳에 오래 머물다가는 반드시 여포에게 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동탁이 말했다. “내일 너와 함께 미오로 돌아가 즐거움을 나누자꾸나. 그러니 부디 걱정하지 마라.” 그제야 초선은 눈물을 거두고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다음 날, 이유가 들어와 아뢰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초선을 여포에게 보내주십시오.” 동탁이 말했다. “여포는 나와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라 선물로 주기에 적절치 않다. 나는 그 죄를 묻지 않기로 했으니, 내 뜻을 전하여 좋은 말로 달래도록 해라.” 이유가 말했다. “태사님께서 여인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탁이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네 아내를 여포에게 주겠느냐? 초선의 일로 다시는 입을 놀리지 마라. 한 번 더 말한다면 반드시 베어버리겠다!” 이유가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 여인의 손에 죽게 생겼구나!” 후세의 사람들이 책을 읽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시로 탄식했다. “사도는 붉은 치마(미인계)에 묘책을 의탁하니, 칼과 창도 쓰지 않고 병사도 쓰지 않았네. 호로관에서의 세 번의 싸움은 헛된 수고였을 뿐, 승전가는 도리어 봉의정에서 울려 퍼졌구나.”

동탁은 그날 즉시 미오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고, 백관이 모두 나와 배웅했다. 초선은 수레 위에 올라타 멀리 인파 속에서 여포를 바라보며 수레 안을 응시했다. 초선은 얼굴을 살짝 가린 채 마치 슬피 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수레가 이미 멀리 떠나자, 여포는 흙 언덕 위에서 고삐를 늦추어 말을 천천히 몰며 수레가 남긴 먼지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한탄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한 사람이 묻는 소리가 들렸다. “온후께서는 어찌하여 태사를 따라가지 않고 이곳에서 멀리 바라보며 탄식하고 계십니까?” 여포가 돌아보니 사도 왕윤이었다. 두 사람

이 인사를 나누자 왕윤이 말했다. “노부가 요사이 몸이 좋지 않아 문을 달아걸고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장군을 뵈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태사가 미오로 돌아가기에 병을 이끌고 나와 배웅하려던 차에, 다행히 장군을 뵈게 되었습니다. 장군께 여쭙건대, 어찌하여 이곳에서 긴 탄식을 내뱉고 계신 것입니까?” 여포가 대답했다. “바로 공의 딸 때문입니다.” 왕윤은 짐짓 놀라며 물었다. “그동안 아직 장군과 만나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여포가 말했다. “그 늙은 도적이 저를 총애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왕윤은 크게 놀란 척하며 말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었던 말입니까?” 여포가 그간의 일을 하나하나 왕윤에게 고하자, 왕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발을 구르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태사가 뜻밖에도 이토록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러고는 여포의 손을 이끌며 말했다. “우선 내 집으로 가서 함께 상의해 봅시다.”

여포는 왕윤을 따라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왕윤은 여포를 밀실로 안내해 술을 내어 정중히 대접했다. 여포는 봉의정에서 동탁과 초선이 만났던 일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왕윤이 말했다. "태사가 내 딸을 탐하여 장군을 아내로부터 빼앗았으니, 참으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일입니다. 태사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저와 장군이 비웃음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늙고 무능한 저는 비웃음을 당해도 상관없으나, 세상을 호령할 영웅이신 장군께서 이런 치욕을 당하시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탁자를 내리치며 크게 소리쳤다. 왕윤이 급히 말했다. "노부가 실언을 하였으니 장군께서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여포가 외쳤다. "반드시 저 늙은 도적을 죽여 내 치욕을 씻으리라!"

왕윤이 다급히 여포의 입을 막으며 말했다. "장군, 제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칫 저까지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포가 말했다. "대장부가 천지 사이에 태어나 어찌 평생 남의 밑에서 답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왕윤이 다시 달랬다. "장군의 재능이라면 참으로 동태사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포가 말했다. "내가 저 늙은 도적을 죽이고 싶으나, 부자간의 정이 있으니 후세 사람들이 비난할까 두렵습니다."

왕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군의 성은 여씨요, 태사의 성은 동씨입니다. 창을 던져 죽일 때 어찌 부자간의 정을 따지겠습니까?"

여포가 결연하게 말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저도 스스로를 그르칠 뻔했습니다!"

왕윤은 여포의 뜻이 이미 굳어졌음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한나라 황실을 보필하신다면 충신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만세에 이름을 떨칠 것이나, 만약 동탁을 도운다면 반역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포는 자리에서 내려와 절을 하며 말했다. "제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사도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왕윤이 걱정하며 말했다. "다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도리어 큰 화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여포는 허리띠를 풀어 칼을 꺼내더니, 자신의 팔을 그어 피를 흘리며 맹세했다. 왕윤은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말했다. "한나라의 사직을 보존하는 것은 모두 장군의 은덕입니다. 부디 이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제가 계책을 세워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여포는 흔쾌히 약속하고 그곳을 떠났다.

왕윤은 즉시 복야 사손서와 사례교위 황완을 불러 의논했다. 사손서가 말했다. "지금 황제께서 병환에서 막 회복하셨으니, 말씀씨가 좋은 사람을 미오로 보내 동탁에게 국사를 논의하자고 청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천자의 밀지를 여포에게 전달하여, 여포가 조정 문 안에 군사를 매복시킨 채 동탁을 불러들여 처단하게 한다면 이것이 최선의 계책입니다." 황완이 물었다. "누가 감히 가겠습니까?" 사손서가 대답했다. "여포와 같은 고향 출신인 기도위 이숙은 동탁이 자신의 관직을 높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면 동탁도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윤이 "좋다"라고 말한 뒤 여포를 불러 함께 의논했다. 그러자 여포가 말했다. "예전에 저에게 정건양을 죽이라고 권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제가 먼저 그를 베어버리겠습니다." 왕윤은 사람을 보내

이숙을 비밀리에 불러오게 했다. 여포가 이숙에게 말했다. “예전에 공께서 저에게 정건양을 죽이고 동탁에게 귀순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동탁은 위로는 천자를 속이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아 사람과 신이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께서 천자의 조서를 들고 미오로 가서 동탁을 조정으로 불러들이고, 매복한 병사들로 그를 처단하여 한나라 황실을 돕고 함께 충신이 되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숙이 대답했다. “저 또한 이 도적을 제거하고 싶었으나 마음을 같이할 사람이 없어 한탄하던 참이었습니다. 이제 장군께서 이토록 말씀하시니 이는 하늘이 주신 기회이지, 제가 어찌 두 마음을 품겠습니까?” 이숙은 화살을 꺾어 맹세했다. 왕윤이 덧붙여 말했다. “공께서 이 일을 해낸다면 어찌 높은 관직을 얻지 못할까 걱정하십니까?”

다음 날, 이숙이 기병 십여 명을 이끌고 미오에 도착했다. 천자의 조서가 내려왔다는 소식에 동탁이 그를 불러들였다. 이숙이 들어가 절을 올리자 동탁이 물었다. “천자께서 어떤 조서를 내리셨느냐?” 이숙이 대답했다. “천자께서 병환을 겨우 떨쳐내시고, 미양전에서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 태사님께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는 선양의 일을 논의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보내신 것입니다.” 동탁이 다시 물었다. “왕윤의 뜻은 어떠하더냐?” “왕 사도는 이미 사람을 시켜 ‘수선대(受禪臺)’를 쌓게 해 두었으니, 이제 주군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탁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어젯밤 꿈에 용이 내 몸을 감싸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정말로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구나. 참으로 때가 왔으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동탁은 즉시 심복인 이각, 곽사, 장제, 번조 네 사람에게 비웅군 삼천 명을 주어 미오를 지키게 하고, 자

신은 그날 바로 가마를 준비해 도성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는 이숙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황제가 되면, 그대는 집금오가 되어야 할 것ियो.” 이숙은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 동탁은 떠나기 전 어머니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당시 아흔 살이 넘는 고령이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내 아들이, 어디를 가느냐?” 동탁이 대답했다. “제가 한나라의 황위를 이어받으려 갑니다. 어머니께서는 머지않아 태후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요사이 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니, 아무래도 좋은 징조가 아닌 것 같구나.” 동탁이 말했다. “장차 국모가 되실 분인데, 어찌 미리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동탁은 어머니와 작별하고 길을 떠났다. 길을 나서며 초선에게 말하기를, “내가 천자가 되면 그대를 귀비로 세워주겠다.”라고 했다. 초선은 이미 모든 내막을 알고 있었기에, 기쁜 척하며 절을 올리고 감사를 표했다.

동탁은 수레에 올라타 앞뒤로 호위병을 거느린 채 장안을 향해 나아갔다. 길을 떠난 지 채 30리도 되지 않아 타고 가던 수레의 바퀴 하나가 갑자기 부러지는 바람에, 동탁은 수레에서 내려 말에 올라탔다. 다시 10리쯤 더 갔을 때, 이번에는 말이 울부짖으며 고삐를 끊어버렸다. 동탁이 이숙에게 물었다. “수레 바퀴가 부러지고 말 고삐가 끊겼으니, 이것이 어떤 징조냐?” 이숙이 대답했다. “이는 태사께서 한나라의 황위를 물려받아 새 시대를 여실 것이니, 곧 옥으로 만든 수레와 금빛 안장을 탄 채 행차하실 징조입니다.” 동탁은 이 말을 기쁘게 믿었다.

다음 날 길을 가던 중,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짙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었다. 동탁이 이숙에게 물었다. “이것은 또 무슨 징조냐?” 이숙이

말했다. "주공께서 용의 자리에 오르시면 반드시 붉은 빛과 자줏빛 안개가 나타나 천하의 위엄을 드높일 것입니다." 동탁은 또다시 기뻐하며 의심하지 않았다.

곧 성 밖으로 도착하자 모든 관리가 나와 동탁을 맞이했다. 다만 이 유만이 병으로 집에 머물고 있어 나와 맞이하지 못했다. 동탁이 재상부로 들어가자 여포가 들어와 축하했다. 동탁이 말했다. "내가 황제가 되면, 그대는 천하의 병마를 총괄해야 할 것이다." 여포는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는 막사 앞에 자리를 잡고 쉬었다.

그날 밤, 성 밖 교외에서 수십 명의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바람을 타고 그 노랫소리가 막사 안까지 들려왔다. 노래는 이러했다. "천 리의 풀은 어찌 그리 푸른가! 열흘이 지나면 살지 못하리!" 노래 소리가 매우 슬프고 처량했다. 동탁이 이숙에게 물었다. "아이들의 노래가 어떠한 길흉을 말하는 것이냐?" 이숙이 대답했다. "그저 유씨 가문은 망하고 동씨 가문이 흥할 것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동탁이 의례를 갖추어 조정으로 향하고 있는데, 문득 푸른 도포에 흰 수건을 머리에 쓰고 긴 장대를 든 도사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장대에는 한 길 길이의 천이 매달려 있었는데, 양끝에는 각각 '입 구(口)' 자가 적혀 있었다. 동탁이 이숙에게 물었다. "저 도사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이숙이 대답했다.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동탁은 장졸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쫓아버리게 했다. 동탁이 조정을 향해 나아가자, 신하들은 모두 조복을 갖추어 입고 길가에 서서 맞이했다. 이숙은 보검을 손에 든 채 수레를 붙들고 행차를 도왔다. 북악문에 이르자 군사들은 모두 문 밖에 머물렀고, 오직 수레를 지키는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만이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동탁이 멀리 보니 왕윤 등이 저마다 보검을 든 채 전각 문 앞에 서 있었다. 동탁이 놀라 이숙에게 물었다. “칼을 들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숙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수레를 밀어 안으로 직행했다. 왕윤이 크게 외쳤다. “반역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사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양옆에서 백여 명의 사람이 극(창)과 긴 창을 들고 달려들어 찔러댔다. 동탁은 갑옷을 입고 있어 목숨은 건졌으나 팔을 다치고 수레에서 떨어졌다. 동탁이 크게 소리쳤다. “내 아들 여포는 어디 있느냐!” 여포가 수레 뒤에서 무서운 목소리로 나타나며 외쳤다. “역적을 토벌하라는 조서가 내려왔다!” 여포가 창으로 동탁의 목을 곧장 찔렀고, 이숙이 재빨리 동탁의 머리를 베어 손에 들었다. 여포는 왼손에 창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품 안에서 조서를 꺼내며 크게 외쳤다. “조서를 받들어 역신 동탁을 토벌한다! 그 외의 일은 묻지 마라!” 그러자 장졸들이 모두 만세를 외쳤다. 후대의 어떤 이가 동탁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대업을 이루었다면 황제가 되었을 것을, 이루지 못하면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나 남았으리. 하늘의 뜻에는 사사로움이나 굽힘이 없음을 누가 알았으랴, 미오가 막 완성되자마자 이미 멸망하고 말았네.”

한편, 여포가 크게 소리쳤다. "동탁을 도와 폭정을 일삼은 자들은 모두 이유다! 누가 저놈을 붙잡아 오겠느냐?" 그러자 이숙이 즉시 대답하며 가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궁궐 문밖에서 함성이 들리더니, 이유의 집 노비들이 이유를 포박해 와서 바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왕윤은 즉시 이유를 시장으로 끌고 가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동탁의 시신을 거리 곳곳에 내걸어 알리게 했다. 동탁의 몸집이 비대했던 탓에, 군사들이 시신 배꼽에 불을 붙여 등불처럼 사용하니 기름이 바닥에

흥건히 흘러넘쳤다. 길을 지나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동탁의 머리를 던지고 시신을 발로 짓밟았다. 왕윤은 이어 여포에게 황보숭과 이속을 더해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미오로 가서 동탁의 가산과 노비들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동탁이 죽고 여포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각, 광사, 장제, 번조는 곧장 비웅군을 이끌고 밤을 도와 양주로 달아났다. 여포는 미오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초선을 차지했다. 황보숭은 미오에 갇혀 있던 양가집 자녀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동탁의 친척들은 노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였는데, 동탁의 어머니 또한 죽임을 당했다. 동탁의 동생 동민과 조카 동황 역시 모두 참수되었다. 미오에 쌓아둔 수십만 냥의 황금과 셀 수 없이 많은 비단, 보석, 그릇, 식량 등을 거두어 왕윤에게 보고했다. 왕윤은 군사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도당에 잔치를 베풀어 모든 관리를 불러 모은 뒤, 술을 나누며 경사를 축하했다. 한창 연회가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달려와 보고했다. “동탁의 시체가 저잣거리에 버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시체 위에 엎드려 크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왕윤이 노하여 말했다. “동탁이 죄를 지어 죽었으니 백성들이 축하하지 않는 이가 없거늘, 대체 어떤 자가 감히 울고 있단 말이나? 당장 무사를 불러 저 자를 잡아 오너라!”

잠시 후 채옹이 붙잡혀 왔다. 이를 본 관리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시중 채옹이었기 때문이다. 왕윤이 꾸짖으며 말했다. “동탁은 나라를 어지럽힌 역적이며 오늘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나라의 큰 경사다. 그대는 한나라의 신하로서 나라의 경사를 기뻐

하기는커녕 어찌 역적을 위해 울고 있는가?” 채옹이 엎드려 죄를 빌며 말했다. “제가 비록 재주가 부족하나 대의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나라를 배신하고 동탁 편에 서겠습니까? 다만 잠시 그가 저를 알아주었던 은혜에 마음이 움직여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을 뿐입니다. 제 잘못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제 이마에 먹물로 문신을 새기고 발을 자르는 벌을 내리신다 해도, 제가 한나라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 죄를 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다행일 것입니다.” 관리들은 채옹의 재능을 아까워하며 모두 그를 구하려 애썼다. 태부 마일제도 왕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채옹은 세상에 드문 뛰어난 인재입니다. 만약 그가 한나라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갈 수 있다면 참으로 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평소 효행으로도 이름이 높으니, 이토록 갑작스럽게 죽인다면 백성들의 원망을 살까 두렵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왕윤이 대답했다. “옛날 효무제께서 사마천을 죽이지 않고 역사를 쓰게 하셨더니, 결국 후세에 비난하는 글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운수가 쇠하고 조정이 어지러운 때이니, 간사한 신하가 어린 황제의 곁에서 역사를 기록하게 두어 우리 모두가 그들의 비방을 듣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일제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나 관리들에게 속삭였다. “왕윤이 정말 후사가 없나 보군! 선량한 사람이 있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법도가 있어야 나라의 기틀이 잡히는 법인데, 기강을 없애고 법도를 폐하니 어찌 나라가 오래갈 수 있겠는가?” 결국 왕윤은 마일제의 말을 듣지 않고 장수를 시켜 채옹을 옥에 가둔 뒤 목을 매어 죽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대부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후세 사람들은 채옹이 동탁을 위해 울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만, 왕윤이 채옹을 죽인 것 또한 지나쳤다고 평한다. 이에 대해 어떤 시인은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 “동탁이 권력을 휘두르며 불

인한 짓을 일삼는데, 시중은 어찌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가? 당시 제갈량이 용중에서 누워 있을 때, 어찌 가벼이 몸을 움직여 난신적자를 섬겼겠는가?”

한편, 이각, 곽사, 장제, 번조는 섬서로 도망친 뒤 사람을 장안으로 보내 사면을 요청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자 왕윤이 말했다. “동탁이 제멋대로 날뛰며 나라를 어지럽힌 것은 모두 이 네 사람이 도운 결과다. 이제 천하에 대사면령이 내려졌다 해도, 유독 이 네 사람만은 사면할 수 없다.” 사자가 돌아와 이각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이각이 말했다. “사면을 요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았으니,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치자.” 이때 책사인 가후가 말했다. “여러 장군께서 군대를 버리고 홀로 도망치신다면, 마을의 정장 한 명에게도 붙잡힐 것입니다. 차라리 서량 사람들을 유인해 모으고 본부의 군마를 합쳐 장안으로 쳐들어간 뒤, 동탁의 원수를 갚으십시오. 일이 잘 풀리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승산이 없다 해도 그때 도망쳐도 늦지 않습니다.” 이각 일행은 이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곧 서량 지역에 “왕윤이 이 지역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리려 한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자, 이들은 다시 외쳤다. “무의미하게 죽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따라 반기를 들지 않겠는가?”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따르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서 십여 만의 대군을 모은 그들은 네 갈래 길로 나누어 장안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다. 길을 가던 중 동탁의 사위인 중랑장 우보를 만났는데, 우보 역시 오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장인을 위해 복수하러 가던 중이었다. 이각은 우보의 군사를 합류시켜 앞세우고, 네 장군은 차례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왕윤은 서량 군사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포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여포가 말했다. “사도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저런 쥐새끼 같은 무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말을 마친 여포는 이숙을 이끌고 적을 막으러 나갔다. 이숙이 앞장서서 맞서 싸우던 중 우연히 우보와 마주쳐 한바탕 크게 싸웠는데, 우보가 상대가 되지 않자 패하여 물러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날 밤 이경(밤 10시경)이 되자, 우보가 이숙의 군대가 방비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기습해 왔다. 이숙의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30여 리를 도망치다 군사의 태반을 잃고 나서야 여포에게 달려갔다. 여포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네가 어찌하여 나의 기세를 꺾어 놓았느냐!” 그러고는 즉시 이숙의 목을 베어 군문 앞에 매달았다.

다음 날,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 우보와 맞붙었다. 그러나 우보는 여포를 당해내지 못하고 크게 패하여 도망쳤다. 그날 밤, 우보는 심복인 호적아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여포는 용맹하기가 비할 데 없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네. 차라리 이각 등 네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고, 금과 보물을 몰래 챙겨서 친근한 부하 서너 명만 데리고 군대를 버린 채 떠나세.” 호적아가 이에 동의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금과 보물을 챙겨 부하 서너 명과 함께 진영을 버리고 도주했다. 강을 건너려 할 때, 호적아가 금과 보물을 독차지할 심산으로 우보를 살해한 뒤 그 머리를 가져가 여포에게 바쳤다. 여포가 경위를 묻자, 곁에 있던 사람이 “호적아가 우보를 살해하고 금보를 빼앗았습니다”라고 고했다. 여포는 크게 노하여 즉시 호적아를 처단했다.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던 중, 마침 이각의 군마와 마주쳤다. 여포는 그들이 진을 칠 시간도 주지 않고 곧장 창을 치켜든 채 말을 달려 군사를 몰아 돌격했다. 이각의 군사들은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50여 리를 퇴각하여 산 아래에 진을 쳤다. 이각

은 곽사, 장제, 번조를 불러 모아 함께 의논하며 말했다. “여포가 비록 용맹하나 지략이 없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소. 내가 군사를 이끌고 임곡구를 지키며 매일 그를 유인해 싸우겠소. 곽 장군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의 뒤를 기습하여, 옛날 팽월이 초나라를 괴롭혔던 것처럼 북을 치며 진격했다가 징을 울리며 물러나는 전술을 쓰시오. 그리고 장제와 번조 두 사람은 군사를 나누어 두 갈래 길로 곧장 장안을 치시오. 그러면 여포는 앞뒤로 서로 도울 수 없게 되어 반드시 대패할 것이오.” 모든 이가 이 계책에 찬성했다.

한편, 여포가 군사를 몰아 산 아래까지 이르자 이각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움을 걸었다. 여포가 분노하며 돌격하자 이각은 산 위로 퇴각했다. 산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여포의 군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때 갑자기 곽사가 진영 뒤쪽에서 습격해 왔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여포는 급히 몸을 돌려 맞서 싸웠다. 북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곽사의 군사가 물러갔다. 여포가 막 군사를 거두려는데, 징소리가 울리며 이각의 군사가 다시 물려왔다. 적을 마주하기도 전에 뒤에서는 곽사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쳤다. 여포가 처음 왔을 때는 북을 치며 군사를 거두고 떠나버리니, 여포는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니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형국이었다. 여포가 잔뜩 화가 나 있을 때, 갑자기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 장제와 번조의 두 군대가 장안을 침범하여 도성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전했다. 여포는 급히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려 했으나, 뒤에서는 이각과 곽사가 쫓아왔다. 여포는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병사와 말을 잃었다. 장안 성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적군이 구

름처럼 모여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기에 여포의 군사는 싸워 이기기 어려웠다. 병사들은 여포의 매서운 성미를 두려워하여 적에게 항복하는 자들이 속출하니, 여포의 근심이 매우 깊어졌다.

며칠 뒤, 동탁의 남은 부하인 이몽과 왕방이 성 안에서 도적과 내응하여 몰래 성문을 열어주었고, 네 갈래로 나뉘어 들어오던 적군이 일제히 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여포가 좌우로 거칠게 돌격하며 막아보았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여포는 수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청쇄문 밖으로 나가 왕윤을 향해 외쳤다.

"상황이 매우 급합니다! 사도께서는 어서 말에 올라 저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 새로운 계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왕윤이 대답했다.

"만약 하늘의 보살핌을 받아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겠으나, 만약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목숨을 바쳐 죽을 것이요.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비겁하게 살아남지는 않을 것이니, 나를 대신해 관동의 여러 제후에게 전해주시오. 부디 나라를 생각하여 힘써달라고 말이오!"

여포가 몇 번이고 간곡히 권했지만, 왕윤은 끝내 떠나려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문의 곳곳에서 불길히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고, 여포는 결국 가족들을 뒤로한 채 백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성 밖으로 질주하여 원술에게로 도망쳤다.

이각과 곽사가 군사를 풀어 도성을 약탈하며 무차별적으로 살육하자, 태상경 충불, 태복 노규, 대홍로 주환, 성문교위 최열, 월기교위 왕기 등 수많은 관리들이 이 국난 속에 목숨을 잃었다. 도적 떼가 내궁을 겹겹이 에워싸는 상황이 매우 급박해지자, 신하들은 헌제에게 선평문 누각에 오르시어 난리를 진정시키시라고 간청했다. 이각과 곽사가 황제의 황색 일산(어가)을 멀리서 보고는 군사들을 멈춰 세우고 “만세!”를 외쳤다. 헌제가 누각에 기대어 물었다. “경들은 어찌 보고도 올리지 않고 함부로 장안으로 들어와 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이각과 곽사가 고개를 들고 아뢰었다. “동 태사께서는 폐하의 사직을 지키는 신하이신데, 아무런 이유 없이 왕윤의 모략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저희는 그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지 감히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왕윤만 만나게 해주신다면 즉시 군사를 물러가겠습니다.” 당시 헌제의 곁에 있던 왕윤이 이 말을 듣고 아뢰었다. “신은 본래 사직을 위해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폐하께서는 신을 아까워하다가 나라를 그르치지 마옵소서. 신이 저 두 도적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 청하나이다.” 헌제가 망설이며 차마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왕윤은 스스로 선평문 누각에서 뛰어내리며 크게 외쳤다. “왕윤이 여기 있다!” 이각과 곽사가 칼을 뽑아 들고 꾸짖었다. “동 태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냐?” 왕윤이 대답했다. “동탁의 죄는 하늘과 땅을 뒤덮을 만큼 막대하여 차마 다 말할 수 없다. 그가 처형되던 날, 장안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축하하였는데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각과 곽사가 말했다. “태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죄가 있기에 용서해주지 않는단 말이냐?” 왕윤이 크게 꾸짖었다. “역적놈들아,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나 왕윤은 오늘 죽을 뿐이다!” 두 도적이 칼을 휘둘러 왕윤을 누각 아래에서 살해했다.

이에 사관이 시를 지어 그를 찬양했다. “왕윤이 계책을 펼치니 간신 동탁은 사라졌으나, 가슴에는 나라를 향한 한을 품고 미간에는 조정의 근심이 서렸네. 그 기개는 하늘에 닿고 충심은 별자리처럼 빛나니, 지금도 그 혼백은 봉황루 주위를 맴도는구나.”

도적 떼는 왕윤을 죽인 뒤, 사람을 보내 왕윤의 일가친척과 노인, 아이들까지 모조리 살해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때 이각과 곽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생각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천자를 죽여 큰일을 도모하지 않고 무엇을 더 기다리겠는가?" 그러고는 칼을 치켜들고 크게 소리치며 내궁으로 들어닥쳤다.

신하들이 죄를 엮드려 빌며 재앙이 겨우 가라앉나 싶더니, 도적들이 횡행하니 또 다른 화가 닥쳐왔다.

과연 현재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회 — 왕실을 위해 마등이 의를 일으 키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조조가 군 사를 일으키다

勤王室馬騰舉義 報父讎曹操興師

한편, 이각과 곽사 두 도적이 헌제를 살해하려 했다. 그러자 장제와 번추가 간언했다. "안 됩니다. 만약 오늘 당장 황제를 죽인다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황제를 모시면서 제후들을 관 안으로 유인하십시오. 먼저 그들의 세력을 꺾어 놓은 뒤에 황제를 죽인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각과 곽사 두 사람이 이 말을 따르기로 하고 무기를 거두어들였다.

헌제가 누각 위에서 이르기를, "왕윤을 이미 처단하였는데 어찌하여 군사들이 물러가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각과 곽사가 대답했다. "저희가 황실에 공을 세웠음에도 아직 작위를 받지 못하였기에 감히 군대를 물러나게 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어떤 작위를 받고자 하는가?"

이각, 곽사, 장제, 번추 네 사람이 각자 원하는 관직을 적어 올리니, 그 내용이 매우 탐욕스러웠다. 황제는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각은 차기장군이자 지양후로 봉하고 사례교위직을 맡겨 절월을 사용하게 했으며, 곽사는 후장군으로 봉하고 절월을 사용하게 하여 함께 정사를 돌보게 했다. 번추는 우장군이자 만년후로, 장제는 표기장군이자 평양후로 봉하여 홍농에 군사를 주둔시키게 했다. 그 외에 이몽과 왕방 등은 각각 교위가 되었다. 이들은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린 뒤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갔다.

이어 이각은 동탁의 시신을 찾아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조각난 뼈와 살점을 찾아내자, 향나무를 깎아 형체를 만든 뒤 이를 조립하여 안치하고 큰 제사를 지냈다. 황제의 의복과 관을 사용하고 길일을 택하여 묘소에 장사 지내려 했다. 그런데 장사 지내려 하는 날에 하늘에서 큰 천둥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더니, 땅에는 물이 몇 자씩 차올랐다. 그러더니 벼락이 내리쳐 관을 부수고 시신이 관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각이 날이 개기를 기다려 다시 장사 지내려 했으나, 그날 밤에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세 번이나 다시 장사 지내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남은 뼈와 살점 조각들은 모두 벼락과 불길에 타서 사라져 버렸다. 하늘이 동탁에게 내린 분노가 참으로 대단했다고 할 만했다.

한편, 이각과 곽사가 이미 권력을 장악한 뒤 백성들을 잔인하게 괴롭혔다. 그들은 심복들을 황제의 곁에 몰래 보내 황제의 움직임을 살폈다. 이때 현재는 사방이 가시밭길인 것처럼 매사에 조심하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조정의 관리들 또한 이 두 역적의 손에 의해 임명되거나 파직되었다. 그러던 중 이각과 곽사는 인망을 얻기 위해 주준을

특별히 조정으로 불러들여 태복으로 봉하고, 함께 국정을 돌보게 하였다.

어느 날, 서량태수 마등과 병주자사 한수가 십여 만의 군사를 이끌고 도적을 토벌하겠다고 외치며 장안을 향해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래 두 장수는 먼저 사람을 장안으로 보내 시중 마우, 건의대부 종소, 좌중랑장 유범 세 사람과 내응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도적 떼를 치기로 모의한 상태였다. 세 사람은 헌제에게 이 사실을 비밀리에 보고했고, 헌제는 마등을 정서장군으로, 한수를 진서장군으로 봉하며 각각 밀지를 내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도적을 토벌하도록 했다.

이때 이각, 곽사, 장제, 번추는 두 군대가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적을 막아낼 방책을 논의했다. 책사 가후가 말했다. "두 군대는 멀리서 왔으니, 깊은 해자와 높은 성벽을 쌓고 굳게 지키며 버티는 것이 상책입니다. 백 일 정도 지나 적의 군량이 떨어지면 반드시 스스로 물러날 것이니, 그때 군사를 몰아 추격하면 두 장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몽과 왕방이 나서서 말했다. "그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정예병 만 명을 빌려주신다면, 우리가 직접 마등과 한수의 머리를 베어 장군님들께 바치겠습니다."

가후가 다시 말했다. "지금 당장 싸운다면 반드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이몽과 왕방이 일제히 외쳤다. "만약 저희 두 사람이 패한다면 기꺼이 목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승리한다면 장군님께서도 저희에게 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가후는 이각과 곽사에게 말했다. "장안 서쪽 이백 리 지점인 주질산은 길이 험하고 험준하니, 장제와 번추 두 장군을 그곳에 배치하여 성벽을 굳게 쌓고 지키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몽과 왕방으로 하여금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을 맞게 하면 됩니다."

이각과 곽사가 가후의 말을 따랐다. 그들은 이몽과 왕방에게 만 오천 명의 군사를 붙여주었고, 두 사람은 기뻐하며 떠나 장안에서 이백팔십 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서량군이 도착하자 두 명의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갔다. 서량군의 말들이 길을 가로막고 진세를 펼쳤다. 마등과 한수가 고삐를 나란히 하고 앞으로 나서며 이몽과 왕방을 가리켜 꾸짖었다. "나라를 배반한 도적놈들 같으니! 누가 저놈들을 사로잡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얼굴은 옥처럼 고우며 눈빛은 유성처럼 빛나고, 호랑이 같은 몸에 원숭이처럼 긴 팔, 표범 같은 배와 이리 같은 허리를 지닌 한 소년 장수가 장창을 손에 쥐고 준마를 탄 채 진영 속에서 튀어 나왔다. 그는 바로 마등의 아들 마초로, 자는 맹기이며 나이가 겨우 열일곱 살이었으나 용맹함이 적수가 없었다. 왕방은 마초가 어리다는 것을 알보고 기세 좋게 말을 달려 맞서 싸웠으나, 몇 합을 겨루지도 못하고 마초의 창에 찔려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마초가 말머리를 돌려 돌아가려는데, 왕방이 죽는 것을 본 이몽이 말 한 마리를 몰아 마초의 뒤를 쫓아왔다. 마초는 이를 모르는 척했다. 진영 아래에 있던 마등이 크게 외쳤다. "뒤에서 적이 쫓아온다!"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마초는 이미 이몽을 사로잡아 말 위에 태운 뒤였다. 알고 보니 마초는 이몽이 쫓아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늦장 부리며 기다린 것이었다. 이몽의 말이 가까이 다가와 창을 찌르려 하자, 마초가 몸을 숙 피했다. 이몽의 창은 허공을 갈랐고, 두 말이 나란히 붙은 찰나 마초가 가볍게 팔을 뻗어 이몽을 산 채로 낚아챘다. 군사들은 지휘관을 잃고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마등과 한수는 이 기세를 몰아 추격하며 큰 승리를 거두었고, 길목 아래에 진을 친 뒤 이몽의 머리를 베어 본보기로 내걸었다.

이각과 광사는 이몽과 왕방이 모두 마초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후의 선견지명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가후의 계책을 중히 여겨, 오로지 관문을 굳게 지키는 데만 힘쓰며 적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와도 결코 나가 맞서지 않았다.

과연 서량군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식량과 군량이 바닥나자, 군대를 돌려 퇴각할 것을 의논했다. 마침 장안성 안에서 마우의 집 종이 주인 마우와 유범, 종소가 밖으로 마등, 한수와 결탁하여 내응하려 한다는 사실을 밀고했다. 이각과 광사가 크게 노하여 세 집안의 젊은이와 양민·천민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잡아다 저잣거리에서 처형하고, 그 머리 세 개를 가져와 성문 앞에 내걸어 본보기로 삼았다. 마등과 한수는 군량도 떨어지고 내응 계획마저 탄로 나자, 어쩔 수 없이 진영을 거두고 퇴각했다.

이각과 곽사는 장제에게 군사를 주어 마등을 추격하게 하고, 번추에게는 한수를 추격하게 하니 서량군이 크게 패했다. 마초는 후미에서 죽기로 싸우며 장제를 물리쳤다. 번추는 한수를 쫓아가다 진창 근처까지 따라잡았다. 이때 한수가 말을 멈추고 번추를 향해 말했다. "나는 당신과 고향이 같은 사람인데, 어찌 오늘 이토록 무정하게 구시오?" 번추 역시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 서며 대답했다. "윗분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한수가 다시 말했다. "나 또한 나라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인데, 어찌 이리도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것이오?" 번추는 그 말을 듣고는 말머리를 돌려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갔고, 덕분에 한수는 무사히 물러갈 수 있었다.

이각의 조카 이별이 번추가 한수를 놓아준 것을 보고 숙부에게 보고했다. 이각은 크게 노하여 즉시 군사를 일으켜 번추를 치려 했다. 이때 가후가 말했다.

"지금은 민심이 흉흉하여 자꾸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연회를 베풀어 장제와 번추를 불러 공을 축하하게 한 뒤, 술자리에서 번추를 잡아 처단하십시오. 그러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각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연회를 베풀어 장제와 번추를 초대했다. 두 장군은 즐거운 마음으로 연회에 참석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이각이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외쳤다.

"번추는 어찌하여 한수와 내통하여 반역을 꾀하려 하는가!"

번추가 크게 놀라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도끼를 든 병사들이 들이닥쳐 번추의 목을 베어 상 아래 놓았다. 이 광경을 본 장제는 겁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다. 이각이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번추가 반역을 꾀했기에 처단한 것이니, 장군께서는 나의 심복이면서 어찌 그리 놀라시는가?"

그러고는 번추의 군사를 장제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다. 장제는 그대로 흥농으로 돌아갔다.

이각과 곽사가 서량군을 상대로 전투에서 승리하자, 다른 제후들은 감히 그들에게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가후는 거둬 백성들을 달래고 안심시키며,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과 관계를 맺도록 권했다. 이로부터 조정에는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청주에서 황건적이 다시 일어났다. 수십만 명의 무리가 모여들어 우두머리들도 제각각이었는데, 이들은 양민들을 약탈하며 세력을 떨쳤다. 이때 태복 주준이 무리를 격파할 수 있는 인물 한 명을 추천했다. 이각과 곽사가 그가 누구냐고 묻자 주준이 대답했다.

"산동의 도적 떼를 깨뜨리려면 조조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각이 물었다.

"조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준이 말했다.

"현재 동군태수로 있으면서 군사를 널리 거느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명을 내려 도적을 토벌하게 한다면, 머지않아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각은 크게 기뻐하며 밤을 새워 조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사람을 동군으로 보내 조조에게 제복상 포신과 함께 도적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조조는 황명을 받들어 포신과 합류한 뒤, 함께 군사를 일으켜 수양에서 황건적을 공격했다. 포신이 적의 본진으로 쳐들어갔으나 도리어 적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조조는 도망치는 적병들을 추격하여 제복까지 쫓아갔는데, 항복해 오는 자가 수만 명에 달했다. 조조는 항복한 이들을 앞장세워 군사를 몰고 가니, 가는 곳마다 항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불과 백여 일 만에 항복한 병사 30여 만 명과 그 가족 100여 만 명을 거두어들였다. 조조는 이들 중 정예병을 골라 '청주병'이라 이름 붙였고, 나머지는 모두 농사짓는 백성으로 돌려보냈다. 이때부터 조조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승전보가 장안에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조조를 진동장군으로 임명했다.

조조는 연주에 머물며 현명한 인재들을 불러 모았다. 이때 숙부와 조카 관계인 두 사람이 조조에게 찾아왔는데, 이들은 영천 영음 출신의 순욱과 그의 조카 순유였다. 순욱은 자가 문약이며 순곤의 아들로, 본래 원소를 섬겼으나 지금은 원소를 버리고 조조에게 투항했다. 조조는 순욱과 이야기를 나누고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마치 나의 장량과 같구나!" 하고는 곧바로 그를 행군사마로 삼았다. 순욱의 조카인 순유는 자가 공달로, 천하에 이름난 선비였으며 일찍이 황문시랑

을 지냈으나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에 숙부와 함께 조조에게 찾아왔고, 조조는 그를 행군교수로 삼았다.

순욱이 말했다. "제가 듣기로 연주에 현명한 선비가 한 명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조조가 누구냐고 묻자 순욱이 대답했다. "동군 동아 출신의 정욱으로, 자는 중덕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나 또한 그 명성을 오래전부터 들어 알고 있었네." 조조는 즉시 사람을 보내 고향에서 그를 찾게 했다. 알아보니 그가 산속에서 책을 읽고 있다 하여 조조가 정중히 모셔오게 했다. 정욱이 찾아오자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정욱이 순욱에게 말했다. "저는 식견이 좁아 귀하의 추천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귀하의 고향 사람 중에 곽가라는 이가 있는데, 자는 봉효로 당대의 현사이니, 어찌 그를 불러오지 않으십니까?" 순욱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차, 내가 하마터면 잊을 뻔했군요!" 순욱은 즉시 조조에게 고향에 곽가를 연주로 불러들였고, 이들은 함께 천하의 대사를 논했다.

곽가는 광무제의 적통 후손이자 회남 성덕 출신인 유엽을 추천했다. 유엽의 자는 자양이다. 조조는 즉시 유엽을 불러들였다. 유엽은 또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명은 산양 창읍 출신의 만총으로 자는 백녕이고, 다른 한 명은 무성 출신의 여건으로 자는 자각이었다. 조조 역시 이 두 사람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즉시 군의 종사로 삼았다. 만총과 여건이 함께 한 사람을 더 추천하니, 그는 진류 평구 출신의 모개로 자는 효선이었다. 조조는 모개 또한 종사로 삼았다. 또 한 장수가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조에게 찾아왔는데, 그는 태산 거평 출신의 우금

으로 자는 문척이었다. 조조가 보니 그는 활쏘기와 말 타기에 능숙하고 무예가 뛰어났기에, 그를 전군사마로 임명했다.

어느 날, 하후돈이 건장한 사내 한 명을 데려와 조조에게 소개했다. 조조가 누구냐고 묻자 하후돈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진류 사람인 전위입니다. 용맹이 남달리 뛰어납니다. 예전에 장막의 부하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수십 명을 손으로 직접 죽이고 산속으로 도망쳤던 자입니다. 제가 사냥을 나갔다가 전위가 계곡을 건너 사슴을 쫓는 것을 보고 군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에 특별히 공께 추천하고자 합니다."

조조가 그를 살펴보더니 말했다.

"내가 보니 용모가 늙름한 것이 틀림없이 용맹한 자로구나."

하후돈이 다시 말했다.

"그는 예전에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사람을 죽인 뒤, 적의 머리를 들고 저잣거리에 나타나 수백 명의 사람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가 들고 있는 두 자루의 철극은 무게가 여든 근이나 되는데, 말에 올라타 휘두르는 솜씨가 마치 날아다니는 듯합니다."

조조는 즉시 전위에게 무기를 시험해 보라고 명했다. 전위가 철극을 들고 말을 달려 이리저리 누비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군막의 큰 깃발이 쓰러질 듯 휘청거리자 군사들이 이를 붙잡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때 전위가 말에서 내려 군사들을 호통쳐 물러나게 하더니, 한 손

으로 깃대 하나를 꼭 붙잡고 바람 속에서도 태산처럼 꺾이지 서 있었다.

조조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옛날의 악래와 같구나!"

그러고는 즉시 그를 막 앞의 도위로 임명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옷과 잘 길들여진 준마, 그리고 화려한 안장을 하사하였다.

이후 조조의 휘하에는 지략을 갖춘 책사와 용맹한 장수들이 가득하여 그 위세가 산동 일대에 떨쳤다. 이에 조조는 태산태수 응소를 보내 낭야군에 있는 아버지 조송을 모셔 오게 했다. 조송은 진류에서 난을 피해 낭야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서신을 받자마자 아들 조덕과 일가족 마흔여 명, 그리고 수행원 백여 명과 수레 백여 대를 이끌고 곧장 연주를 향해 출발했다. 길을 지나던 서주의 태수 도겸은 성품이 온화하고 정직하여 평소 조조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으나 마땅한 기회가 없던 차였다. 도겸은 조송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성 밖으로 나가 맞이하며 정중히 예를 갖추었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이틀 동안 극진히 대접했다. 조송이 길을 떠나려 하자 도겸은 직접 성 밖까지 배웅하며, 도위 장개를 보내 군사 오백 명을 붙여 호위하게 했다.

조송이 가족을 이끌고 화현과 비현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때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큰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오래된 사찰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다. 사찰의 승려들이 맞아들이자, 조송은 가족들을 안돈시킨 뒤 장개에게 명하여

군마를 복도 양쪽에 세워두게 했다. 군사들은 옷과 장비가 비에 모두 젖어버리자 일제히 탄식하며 원망 섞인 소리를 내뿜었다.

이때 장개가 부하 두목들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본래 황건적의 잔당으로, 도겸에게 마지못해 항복했으니 얻은 이득이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 조숭은 수많은 보급품과 수레를 거느리고 있으니, 너희가 부귀를 누리고 싶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삼경에 다 함께 칼을 들고 들이닥쳐 조숭의 일가를 몰살하고 재물을 빼앗은 뒤, 산으로 들어가 도적떼가 되자. 이 계책이 어때냐?" 부하들이 모두 찬성했다.

그날 밤, 비바람이 멎지 않는 가운데 조숭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크게 울려 퍼졌다. 조덕이 칼을 들고 상황을 살피러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찢려 죽었다. 조숭은 급히 첩 한 명을 데리고 방장 뒤로 달려가 담을 넘어 도망치려 했으나, 그 첩이 몸이 비대하여 빠져나가지 못했다. 당황한 조숭은 첩과 함께 변소에 숨었지만, 결국 난입한 군사들에게 발견되어 살해당했다. 응소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 원소에게 몸을 의탁했다. 장개는 조숭의 가족을 모조리 죽이고 재물을 챙긴 뒤, 사찰에 불을 지르고 오백 명의 무리와 함께 회남으로 도망쳤다.

후대에 어떤 이가 시로 이렇게 읊었다. "조조는 간웅이라 세상이 떠들썩하게 일컫더니, 일찍이 여백사의 일가를 몰살했었지. 이제 그 온 집안이 사람을 만나는 족족 죽임을 당하니,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돌아 인과응보가 어김없구나."

그때 응소의 부하 중 도망쳐 온 군사가 조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조조는 소식을 듣고 땅바닥에 쓰러져 통곡하니,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조조는 이를 갈며 외쳤다.

"도겸이 군사를 풀어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 이 원수는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다! 내가 지금 대군을 일으켜 서주를 휩쓸어버려야만 이 한을 풀 수 있겠다!"

조조는 즉시 순욱과 정욱을 남겨 군사 3만 명으로 견성, 범현, 동아세 현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병력을 모두 이끌고 서주로 달려갔다. 하후돈, 우금, 전위가 앞장서서 선봉이 되었다. 조조는 성을 함락할 때마다 성안의 백성들을 남김없이 학살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했다.

한편, 구강태수 변량이 도겸과 사이가 매우 두터웠는데, 서주에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군사 오천을 이끌고 구원하러 왔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하후돈을 보내 길목에서 그를 가로막아 죽이게 했다. 이때 동군종사였던 진궁 또한 도겸과 사이가 두터웠는데, 조조가 복수를 위해 군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 조조를 만났다. 조조는 진궁이 도겸을 위해 설득하러 온 것을 알고 만나지 않으려 했으나, 예전의 인연을 차마 저버릴 수 없어 결국 막사 안으로 들여 만나게 했다.

진궁이 말했다. "지금 명공께서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진격하여 부친의 원수를 갚으려 하시며,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다. 도겸은 인자한 군자이지, 이익을 쫓느라 의리를 저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어른께서 해를 입으신 것은 장개의 악행 때문이지, 도겸의 죄가 아닙니다. 또한 주현의 백성들이 명공과 무슨 원한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입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시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조가 노하며 말했다. "그대는 예전에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다시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도겸이 내 일가죽을 죽였으니, 나는 반드시 그들의 담을 꺼내고 심장을 도려내서라도 이 한을 씻을 것이다! 그대가 비록 도겸을 위해 설득하려 하나, 내가 듣지 않으면 어찌하겠는가?"

진궁은 말을 마치고 탄식하며 말했다. "나 또한 도겸을 볼 면목이 없구나!" 하고는 곧바로 말을 달려 진류태수 장막에게로 떠났다.

한편, 조조의 대군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학살하고 무덤까지 파헤치는 참상이 벌어졌다. 서주에 있던 도겸은 조조가 복수를 위해 군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말했다. "내가 하늘에 죄를 지어 서주의 백성들이 이런 큰 재난을 당하는구나!" 도겸은 급히 관리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조표가 말했다. "조조의 군사가 이미 도착했으니, 어찌 손 놓고 죽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힘을 보태어 사군을 도와 적을 물리치겠습니다."

도겸은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갔다. 멀리서 바라보니 조조의 군대는 마치 서리가 깔리고 눈이 몰아치는 듯한 기세로 가득했고, 중군에는 '보수설한(報讐雪恨, 원수를 갚고 한을 풀다)'이라는 네

글자가 크게 쓰인 흰 깃발 두 개가 높이 솟아 있었다. 군마들은 이미 진형을 갖춘 상태였다. 조조는 말을 달려 진영 밖으로 나와 흰 상복을 입은 채 채찍을 휘두르며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도겸 역시 군기 아래로 말을 타고 나가 몸을 굽혀 예를 갖추며 말했다. "저는 본래 명공과 친분을 맺고자 장계를 시켜 호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도둑놈 같은 마음을 버리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저 도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부디 명공께서 살피주십시오."

그러자 조조가 크게 꾸짖었다. "늙은 필부 같은 놈아! 내 아버지를 죽이고도 감히 헛소리를 하다니! 누가 저 늙은 도적을 생포하겠느냐?"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후돈이 대답하며 앞으로 나섰다. 도겸은 겁에 질려 진영 안으로 황급히 도망쳤다. 하후돈이 뒤쫓아가는 사이, 조표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적을 맞이하러 나갔다. 두 말이 맞부딪히는 순간, 갑자기 거센 광풍이 몰아치며 모래와 돌이 휘날렸다. 양측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각자 군사를 거두어 물러났다.

도겸이 성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며 말했다. "조조의 군사 세력이 너무 강해 대적하기 어렵다. 내가 직접 포박을 당한 채 조조의 진영으로 가서, 그가 내 마음대로 처단하게 함으로써 서주 백성들의 목숨이라도 구해야겠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사또께서 오랫동안 서주를 다스려 오셨으니 백성들이 사또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조조의 군사가 비록 많다 하나 아직 우리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또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성을 굳게 지키며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저 비록 재주가 없으나 작은 계책 하나를 내어, 조조를 싸늘한 시체가 되어 땅에 묻힐 곳조차 없게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그 계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본래 원수가 되려던 일이 어찌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살 길을 찾게 되었을까? 결국 이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1회 — 유황숙이 북해에서 공융을 구하고, 여온후가 북양에서 조조를 격파하다

劉皇叔北海救孔融 呂溫侯濮陽破曹操

한편, 계책을 낸 사람은 동해구현 사람으로 성은 미, 이름은 축이며 자는 자중이다. 이 집안은 대대로 부유한 가문이었다. 일찍이 낙양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오던 길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함께 타고 가기를 청했다. 미축은 수레에서 내려 걸어가며 여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여인이 미축에게도 함께 타자고 권하자, 미축은 수레에 올라 단정히 앉아 눈을 함부로 돌리지 않고 예의를 갖추었다. 길을 몇 리쯤 가자 여인이 작별을 고하며 미축에게 말했다.

"나는 남방의 화덕성군인데, 하늘의 명을 받들어 당신의 집을 불태우러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나를 예의로 대접해 주었기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니, 어서 돌아가 재물을 옮기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찾아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곧 사라졌다. 미축은 크게 놀라 집으로 달려가 가진 재산을 모두 급히 옮겼다. 과연 그날 밤, 부엌에서 불이 나 집이 통째로 타버렸다. 미축은 이 일을 계기로 넓은 집을 버리고 재산을 나누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았다. 훗날 도검은 그를 별가 종사로 임명했다.

어느 날 미축이 계책을 내놓으며 말했다. "제가 직접 북해군으로 가서 공용에게 군사를 일으켜 도와달라고 청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한 사람을 청주 전해에게 보내 구원을 요청하게 한다면, 두 곳의 군마가 동시에 도착할 것이니 조조도 반드시 군사를 물릴 것입니다."

도검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검은 곧 편지 두 통을 써 놓고, 부하들 중에서 누가 청주로 가서 구원을 요청하러 갈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사람이 선뜻 나서겠다고 대답했는데,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는 광릉 사람 진등이었다. 도검은 먼저 진등을 청주로 보내고, 미축에게는 편지를 들려 북해로 가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지키며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

한편, 북해태수 공용은 자가 문거이며 노나라 곡부 사람이다. 공자의 20대 손이자 태산 도위 공주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열 살 때 하남운 이응을 찾아갔는데, 문지기가 앞을 가로막으며 어렵게 굴자 공용이 말했다. "나는 이씨 상공(이응)과 대대로 교분이 있는 집안 사람이다." 공용이 안으로 들어가 만나자 이응이 물었다. "너의 조상과 나의 조상은 어떤 사이냐?" 공용이 대답했다. "옛날에 공자께서 노자에게 예법을 물으셨으니, 저와 어르신은 대대로 교분이 있는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이응은 그 영특함에 크게 놀랐다. 잠시 후 태중대부 진위가

찾아오자 이응이 공융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는 참으로 기이한 아이라네." 그러자 진위가 말했다. "어릴 때 총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커서도 총명하리라는 법은 없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융이 즉시 받아쳤다. "어르신 말씀대로라면, 어르신께서는 어릴 때 틀림없이 총명하셨겠군요." 이 말을 들은 진위 일행은 모두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자라나면 반드시 시대를 이끌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때부터 공융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이후 공융은 중랑장을 거쳐 북해태수까지 승진했다. 그는 손님 대접하기를 무척 좋아하여 항상 "좌석에 손님이 가득하고 술잔이 비지 않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북해에서 6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깊이 얻었다.

그날 공융이 손님과 마주 앉아 있는데, 서주의 미축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융이 그를 불러들여 찾아온 이유를 묻자, 미축은 도겸의 서신을 내밀며 말했다. "조조가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기세가 매우 급박하니, 부디 명공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융이 대답했다. "나는 도겸과 사이가 매우 두터운 사이인데, 자중(미축의 자)이 직접 여기까지 왔으니 어찌 가지 않겠는가. 다만 조조와 나는 아무런 원한이 없으니, 우선 사람을 보내 화친을 청하는 서신을 보내야 하네. 만약 조조가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 군사를 일으키겠네." 미축이 말했다. "조조는 병력을 믿고 기세등등하니, 결코 화친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융은 즉시 군사를 점검하게 하는 한편, 사람을 보내 화친 서신을 보내도록 했다. 한창 의논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황건적 잔당인 관해가 수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맹렬히 공격해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공융은 크게 놀라 급히 자신의 군사를 모아 성 밖으로 나가 적

과 맞서 싸웠다. 관해가 말을 타고 나와 외쳤다. "북해에 곡식이 풍족하다고 들었으니, 만 석만 내놓는다면 즉시 군사를 물러가겠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을 함락시키고 노인과 아이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 공용이 꾸짖으며 말했다. "나는 한나라의 신하로서 한나라의 땅을 지키고 있는데, 어찌 적에게 곡식을 내어준단 말이냐!" 관해가 크게 분노하여 말을 몰고 칼을 휘두르며 공용을 향해 돌진했다. 공용이 부하 중보를 내보내 창을 들고 맞서 싸우게 했으나, 몇 합을 겨루지 못하고 중보는 관해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공용의 군대는 크게 혼란에 빠졌고, 공용은 급히 성 안으로 도망쳤다. 관해는 군사를 나누어 성 사방을 에워쌌고, 공용은 마음이 답답하여 괴로워했다. 미축 또한 근심이 가득하여 차마 말을 잊지 못했다.

다음 날, 공용이 성벽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적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여 근심이 더욱 깊어졌다. 그때 갑자기 성 밖에서 한 사람이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적진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보였다. 그는 마치 아무도 없는 곳을 다니듯 좌우로 거침없이 돌파하며 적들을 헤치고 나아가더니, 성 밑에 이르러 크게 외쳤다.

"문을 열어라!"

공용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 감히 문을 열지 못했다. 적들이 강가까지 몰려오자, 그 사람이 몸을 돌려 순식간에 십여 명을 찔러 말에서 떨어뜨리니 적들이 뒤로 물러났다. 그제야 공용은 급히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는 말에서 내려 창을 버려두고 곧장 성 위로 올라와 공용을 뵈고 절을 올렸다.

공웅이 그의 성명을 물으니 그가 대답했다.

"저는 동래 황현 사람으로, 성은 태사요 이름은 자이며 자는 자의라고 합니다. 노모께서 은혜를 입으신 것이 있어 달려왔습니다. 제가 어제 요동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뵈던 중, 적들이 성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노모께서 '그동안 부사(공웅)로부터 입은 은혜가 깊으니, 네가 마땅히 가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로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공웅은 크게 기뻐했다. 공웅과 태사자는 비록 얼굴을 본 적은 없었으나, 그가 영웅임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다. 공웅은 태사자가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성에서 이십 리 떨어진 곳에 사는 그의 노모에게 자주 사람을 보내 곡식과 비단을 보내주곤 했다. 노모가 공웅의 덕망에 감동하여 특별히 태사자를 보내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공웅은 태사자를 정중히 대접하며 갑옷과 말, 안장 등을 선물로 주었다. 태사자가 말했다. "제가 정예병 천 명만 빌려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물리치고 싶습니다." 공웅이 말했다. "그대가 비록 용맹하다 하나, 적의 기세가 너무 강하니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오." 태사자가 다시 말했다. "저의 노모께서 공웅 님의 덕망에 감동하여 저를 특별히 보내셨습니다. 만약 이 포위망을 풀지 못한다면 저는 어머니를 뵈 면목이 없습니다. 부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해주십시오." 공웅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 유비라는 자가 당대 최고의 영웅이라 하던데, 그를 불러 이 위기를 구하게 한다면 자연히 해결될 일이오. 다만 지금은 사람을 부릴 수가 없구려." 태사자가 말했다. "태수께서 서신을 써 주신다면 제가 급히 달려가겠습니다." 공웅은 기뻐하며 서신을 써서 태사자에게

건네주었다. 태사자는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타 허리에는 활과 화살을 차고 손에는 철창을 쥐었다. 배불리 먹고 단단히 무장한 채 성문이 열리자마자 말 한 필이 번개처럼 튀어 나갔다. 강 근처에 이르자 적장 관해가 무리를 이끌고 싸움을 걸어왔으나, 태사자는 창을 휘둘러 적 몇 명을 연달아 찔러 죽이며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관해는 누군가 성 밖으로 나간 것을 보고 분명 구원병을 청하러 간 것이라 짐작하여, 직접 수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달려와 사방에서 태사자를 에워쌌다. 태사자는 창을 지팡이 삼아 짚고 활을 들어 화살을 쏘았는데, 사방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는 족족 적들이 말에서 떨어졌다. 적들은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태사자는 겨우 위기를 벗어나 밤을 도와 평원으로 달려가 유비를 만났다. 그는 예를 갖춘 뒤, 북해의 공용이 포위되어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말하고 서신을 전달했다. 유비는 서신을 다 읽고 태사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누구시오?” 태사자가 대답했다. “저는 동해 출신의 태사자라고 합니다. 공용 님과는 혈육의 관계도 아니고 고향 사람도 아니지만, 뜻이 서로 맞아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관해가 난을 일으켜 북해가 포위되었는데, 공용 님이 의지할 곳 없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유비 님의 인의가 널리 알려져 위급한 상황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위협을 무릅쓰고 포위망을 뚫고 달려와 구원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공용 님이 세상에 유비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यो?” 그러고는 관우, 장비와 함께 정예병 삼천 명을 이끌고 북해군을 향해 출발했다.

관해가 구원군이 도착한 것을 보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맞서 나갔다. 하지만 유비의 병력이 적은 것을 보고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유비가 관우, 장비, 태사자와 함께 말에 올라 진영 앞에 서자, 관해는 분노하며 곧장 돌격해 왔다. 태사자가 앞으로 나서려던 찰나, 관우가 먼저 달려 나가 관해를 겨냥했다. 두 말의 기세가 맞부딪치자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관해가 어찌 관우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수십 합을 겨루는 사이, 관우가 청룡도를 휘둘러 관해를 말 아래로 베어 넘겼다. 이어 태사자와 장비가 나란히 말을 몰아 두 자루의 창을 높이 치켜들고 적진으로 들이닥쳤다. 유비도 병사들을 몰아 적을 몰아붙였다. 성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공융은 태사자와 관우, 장비가 적들을 몰아치는 모습이 마치 호랑이가 양 떼 속으로 뛰어든 듯 막을 수 없을 만큼 기세등등한 것을 보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다. 안팎에서 협공을 가하자 적들은 대패하였고, 항복하는 자가 부지기수였으며 남은 무리는 뿔뿔이 흩어졌다.

공융은 유비를 성 안으로 맞이하여 예를 갖춘 뒤,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축하했다. 그리고 나서 미축을 데려와 유비에게 인사시키고, 장개가 조송을 죽인 일을 자세히 이야기한 뒤 말했다. "지금 조조가 군사를 풀어 크게 약탈하며 서주를 포위하고 있어, 특별히 구원을 청하러 왔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도겸 공조께서는 어질고 덕이 높은 군자이신데, 뜻하지 않게 이런 억울한 화를 당하셨군요."

공융이 말했다. "공께서는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 아니십니까? 지금 조조가 백성들을 해치고 강한 힘을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있으니, 어찌 저와 함께 가서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제가 감히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병사도 적고 장수도 부족하여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공옹이 다시 말했다. "제가 도겸 공조님을 구하려는 것은 옛 인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공께서는 어찌 의로운 마음이 없으시단 말입니까?"

유비가 말했다. "정 그러하시다면 공께서 먼저 길을 떠나십시오. 저는 공손찬에게 가서 군사 삼사천 명 정도만 빌려온 뒤 곧바로 뒤따라가겠습니다."

공옹이 말했다. "부디 약속을 어기지 마십시오."

유비가 말했다. "공께서는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군사를 빌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공옹은 유비의 말을 믿고 승낙한 뒤, 미축을 먼저 서주로 보내 소식을 전하게 하고 자신도 떠날 준비를 했다.

태사자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도움을 드리러 왔는데, 이제 무사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마침 양주 자사 유요가 저와 같은 고을 사람인데, 저를 부르는 편지를 보내와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공용이 금과 비단으로 사례하려 했으나 태사자는 거절하고 돌아갔다. 그의 어머니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다. "네가 북해를 구하는 데 보탬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구나!" 그러고는 태사자를 양주로 보냈다.

한편, 유비가 북해를 떠나 공손찬을 만나 서주를 구하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이야기가 있다. 공손찬이 말했다.

"조조와 그대 사이에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어찌하여 남을 위해 힘을 쓰려 하는가?"

유비가 대답했다.

"이미 약속한 일이 있어, 신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공손찬이 말했다.

"내 그대에게 기병과 보병 이천 명을 빌려주겠네."

유비가 다시 말했다.

"조운 일행도 함께 빌려주셨으면 합니다."

공손찬이 이를 허락했다. 유비는 곧 관우, 장비와 함께 본래 거느리던 군사 삼천 명을 이끌고 선봉에 섰으며, 조운이 이천 명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라 서주로 향했다.

한편, 미축이 도겸에게 북해에서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진등 또한 청주의 전해가 기쁘게 군사를 이끌고 구원을 오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니, 그제야 도겸은 마음을 놓았다.

사실 공융과 전해의 군대는 조조의 군세가 워낙 맹렬한 것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멀리 산 아래에 진을 치고 감히 쉽게 진격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조 역시 두 갈래의 구원군이 도착한 것을 보고 군대를 나누어 배치하며, 함부로 성을 공격하지 못했다.

한편, 유비의 군대가 도착하여 공융을 만났다. 공융이 말했다. "조조의 군세가 워낙 강한 데다 병법에도 능하니, 함부로 싸워서 안 됩니다. 우선 저들의 움직임을 살핀 뒤에 움직입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다만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 오래 버티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제가 관우와 조운에게 군사 4천 명을 맡겨 공융의 휘하에서 돕게 하겠습니다. 저와 장비는 조조의 진영을 뚫고 서주로 달려가 도겸 자사님을 뵙고 상의하겠습니다." 공융은 크게 기뻐하며 전해와 힘을 합쳐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세를 만들기로 했고, 관우와 조운은 양쪽에서 군사를 이끌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유비와 장비가 1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조의 진영 근처로 돌격했다. 한창 싸우고 있는데 진영 안에서 북소리가 울리더니, 기병과 보병이 파도처럼 밀려 나오며 장수들을 앞세워 나타났다. 맨 앞에 선 대장은 바로 우금이었다. 우금이 말을 몰아 크게 외쳤다. "어느 미친놈들이냐! 어디로 가느냐!" 장비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한마디 대꾸도 없이 곧장 우금에게 달려들었다. 두 말의 기세가 맞붙어 몇 합을 겨루는

사이, 유비가 쌍고검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이끌고 돌격하자 우금이 패하여 달아났다. 장비는 그 뒤를 바짝 쫓아 서주 성 아래까지 추격했다.

성 위에서 붉은 깃발에 흰 글씨로 '평원 유비'라고 크게 적힌 것을 본 도겸이 급히 성문을 열라고 명령했다. 유비가 성안으로 들어오자 도겸이 마중을 나와 함께 관아로 향했다. 예를 갖춘 뒤 도겸은 잔치를 베풀어 유비를 극진히 대접하며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도겸은 유비의 모습이 당당하고 말씨가 시원시원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미축에게 명하여 서주의 인장을 가져오게 한 뒤 유비에게 넘겨주려 했다.

유비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도겸이 말했다. "지금 천하가 어지럽고 조정의 기강도 바로 서지 못하고 있소. 그대는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니 마땅히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하오. 이 늙은이는 나이가 많고 능력이 부족하니, 기꺼이 서주를 그대에게 넘겨주고 싶소. 그러니 사양하지 마시오. 내가 직접 상소문을 써서 조정에 보고하겠소."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절을 하며 말했다. "유비가 비록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라 하나, 세운 공도 적고 덕도 부족합니다. 평원의 태수로 있을 때도 직책에 어울리지 않을까 두려웠는데, 이번에는 대의를 위해 도와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혹시 제가 서주를 삼키려 한다고 의심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늘이 돕지 않을 것입니다!"

도겸이 대답했다. "이것은 이 늙은이의 진심이라오."

유비가 몇 번이고 사양했으나 도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미축이 나서서 말했다. "지금 적군이 성 바로 아래까지 들이닥쳤으니, 우선 적을 물리칠 방책부터 상의해야 합니다. 일이 다 평정된 뒤에 다시 양도 문제를 논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제가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화해하고 물러나라고 권하겠습니다. 만약 조조가 따르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유비는 세 진영에 격문을 전하면서도 군사는 움직이지 않게 했으며,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했다.

한편, 조조는 군중에 머물며 여러 장수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때 서주에서 전서가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가 서신을 뜯어보니 바로 유비가 보낸 것이었다.

서신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유비는 일찍이 관외에서 귀하를 뵈 적이 있으나, 그 후로는 하늘 아래 각기 다른 곳에 머물게 되어 가까이서 모시지 못했습니다. 지난날 존부(尊父)이신 조후(조송)께서 해를 입으신 것은 실로 장개가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이지, 도겸 공조의 죄가 아닙니다. 지금 밖으로는 황건적의 잔당들이 어지럽히고 있고, 안으로는 동탁의 잔당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명공께서는 조정의 급한 사정을 먼저 살피시고 개인적인 원한은 나중으로 미루어 주십시오. 서주의 군사를 거두어 나라의 어려움을 구하신다면, 서주와 천하에 큰 다행이 될 것입니다!"

조조는 서신을 읽고는 크게 꾸짖었다. "유비가 대체 누구길래 감히 나에게 이런 글을 보내 훈수를 둔단 말이나! 게다가 글 속에 나를 비꼬는 뜻이 들어있구나!" 조조는 전령을 즉시 처형하라고 명령하고, 한편으로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

이때 곽가가 간언했다. "유비는 멀리서 구원하러 온 사람이니, 먼저 예우를 갖춘 뒤에 군사를 움직여야 합니다. 주공께서 먼저 좋은 말로 답장을 보내 유비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든 다음에 성을 공격하신다면, 성을 깨뜨리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조조가 이 말을 따랐다. 그는 전령을 정중히 대접하여 머물게 한 뒤, 답장을 써서 보낼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

한창 의논하던 중, 갑자기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 재앙을 알렸다. 조조가 그 이유를 묻자, 전령은 여포가 이미 연주를 습격하여 무너뜨리고 복양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본래 여포는 이각과 곽사의 난을 겪고 무관을 탈출하여 원술에게 의탁했으나, 원술은 여포의 변덕스러운 행보를 의심하여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소에게 갔더니 원소가 그를 받아들여 함께 상산에서 장연을 격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포는 일이 뜻대로 풀리자 원소 휘하의 장수와 병사들을 오만하게 대했다. 이에 원소가 그를 죽이려 하자, 여포는 다시 장양에게로 가서 그곳에 몸을 의탁하게 된 것이었다.

한편, 방서가 장안성 안에서 여포의 처자식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여포에게 돌려보냈다. 이각과 곽사가 이 사실을 알고 방서를 베어버린 뒤, 장양에게 편지를 보내 여포를 죽이라고 지시했다. 여포는 장양을

버리고 장막에게 의탁하러 떠났다. 마침 장막의 동생 장초가 진궁을 데리고 장막을 찾아왔다. 진궁이 장막에게 말했다.

"지금 천하가 갈라지고 영웅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장막님께서 천 리에 이르는 무리를 거느리고도 오히려 남에게 제약을 당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조조가 동쪽을 정벌하느라 연주가 비어 있습니다. 여포는 당대의 용사이니, 만약 그와 함께 연주를 차지한다면 패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막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여포에게 명령하여 연주를 습격해 격파하게 했고, 여포는 이어 북양을 차지했다. 건성, 동아, 범현 세 곳만이 순욱과 정욱의 계책으로 죽기 살기로 지켜내어 온전했으나,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함락되었다. 조조의 부하 조인은 여러 차례 싸웠으나 번번이 패하자 급히 전황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조조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연주를 잃으면 나에게 돌아갈 집조차 없게 된다. 한시라도 급히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러자 곽가가 말했다.

"주공께서는 이번 기회에 유비에게 은혜를 베푸는 셈 치고, 군대를 물려 연주를 되찾으러 가십시오."

조조가 이 말에 동의하여 즉시 유비에게 답장을 보내고 곧바로 진영을 거두어 군사를 물렸다.

한편, 사자가 서주로 돌아와 도겸을 만나 조조의 군대가 이미 물러갔다는 서신을 올렸다. 도겸은 크게 기뻐하며 공융, 전해, 유비, 조운 등을 성으로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도겸은 유비를 상석으로 모시고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모아 읊하며 말했다.

"노부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고, 두 아들도 재주가 부족하여 나라의 중책을 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유 공은 황실의 후손으로서 덕이 넓고 재능이 뛰어나니, 서주를 다스리기에 적합합니다. 노부는 이제 물러나 편히 쉬며 병을 돌보고자 합니다."

유비가 말했다. "공문거(공융)께서 저로 하여금 서주를 구하러 오게 하신 것은 의를 위함인데, 아무런 명분 없이 제가 이곳을 차지하게 된다면 천하 사람들이 저를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 비난할 것입니다."

미축이 거들었다. "지금 한나라의 운수가 다하고 천하가 뒤집히는 혼란 속에 있으니,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을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서주는 재물이 풍족하고 인구도 백만이나 되니, 유 사군께서 이를 맡으셔야 합니다.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유비가 다시 말했다. "이 일은 결코 감히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진등이 말했다. "도 부군께서는 병이 깊어 정무를 돌보기 어려우시니, 명공께서는 사양하지 마십시오."

유비가 말했다. "원공로(원술)는 4대에 걸쳐 삼공을 배출한 명문가로 천하의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가까운 수춘에 있으니, 어찌 그에게 주를 양보하지 않겠습니까?"

공용이 말했다. "원공로(원술)는 무덤 속의 마른 뼈일 뿐인데, 어찌 입에 올릴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일은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유비는 완강하게 거절하며 받지 않았다. 도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대가 만약 나를 버리고 떠난다면,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관우가 말했다. "도겸 공께서 이미 물려주겠다고 하셨으니, 형님께서서는 우선 임시로 주(州)의 업무를 맡아 다스리십시오."

장비도 거들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땅을 강제로 뺏으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호의로 양보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양만 하십니까?"

유비가 꾸짖었다. "너희는 나를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 셈이냐?"

도겸이 몇 번이고 양보를 권했으나 유비는 끝내 받지 않았다. 도겸이 다시 제안했다. "유비가 정녕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이곳 근처에 소패라는 고을이 있으니 그곳에 군사를 주둔시켜도 충분할 것이요. 유비가 잠시 소패에 머물며 서주를 지켜주는 것이 어떻겠소?"

모두가 유비에게 소패에 머물라고 권하자 유비도 그 뜻을 따랐다. 도겸은 군사들을 격려하며 작별 인사를 마쳤고, 조운은 작별을 고했다. 유비는 조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다. 공용과 전해 역시 각자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유비는 관우, 장

비와 함께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소패에 도착하여 성벽을 수리하고 백성들을 다독이며 살폈다.

한편, 조조가 군사를 돌려 돌아오자 조인이 뒤이어 말했다. "여포의 세력이 워낙 강한 데다 진궁까지 곁에서 돕고 있으니, 이미 연주와 복양을 잃었습니다. 지금 남은 견성, 동아, 범현 세 곳은 순욱과 정욱 두 사람이 계책을 내어 서로 연계하며 성을 굳게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여포는 용맹하기만 할 뿐 지략이 없으니 크게 걱정할 것 없다." 그러고는 일단 진영을 꾸려 머물게 한 뒤, 다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포는 조조가 군사를 돌려 이미 등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장인 설란과 이봉을 불러 말했다. "내 너희 둘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았다. 너희는 군사 만 명을 이끌고 연주를 굳건히 지켜라. 나는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조조를 격파하겠다." 두 사람이 명을 받들자, 진궁이 급히 달려와 물었다. "장군께서 연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여포가 대답했다. "나는 복양에 군사를 주둔시켜 술의 발 세 개처럼 세력을 나누어 맞설 생각이다." 그러자 진궁이 말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설란은 결코 연주를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정남쪽으로 백팔십 리 떨어진 곳은 태산 쪽이라 길이 험하니, 그곳에 정예병 만 명을 매복시켜 두어야 합니다. 조조의 군사가 연주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분명히 서둘러 달려올 것이니, 적이 절반쯤 왔을 때 한 번에 공격하면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포가 말했다. "내가 복양에 주둔하는 데는 별도의 좋은 계책이 있으니, 네가 어

찌 알겠느냐!" 결국 여포는 진궁의 말을 듣지 않고, 설란에게 연주를 지키게 한 뒤 길을 떠났다.

조조의 군대가 태산의 험한 길에 이르자, 곽가가 말했다. "아직 진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매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여포는 책략이 없는 자라 설란에게 연주를 지키게 하고 스스로 북양으로 향했을 것이니, 어찌 이곳에 매복을 두었겠소? 조인을 한 부대로 나누어 연주를 포위하게 하고, 나는 북양으로 진격하여 여포를 빠르게 공격하겠소."

진궁은 조조의 군대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계책을 올리며 말했다. "지금 조조의 군대는 멀리서 오느라 매우 지치고 힘든 상태입니다. 적이 기운을 차리기 전에 속전속결로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자 여포가 말했다. "나는 말 한 필을 타고 천하를 중형무진하는 사람인데, 조조 따위가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그가 진을 치고 기다렸다가, 내가 직접 가서 그를 사로잡겠다."

한편, 조조의 군대가 북양 근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음 날 조조는 장수들을 이끌고 나가 들판에 군대를 배치했다. 조조가 문 앞에 말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니 여포의 군대가 도착하고 있었다. 여포의 진영이 원형으로 펼쳐진 가운데, 여포가 앞장서서 말을 타고 나왔고 양옆으로 여덟 명의 용맹한 장수들이 늘어섰다. 첫 번째는 안문 마읍 출신의 장료였고, 두 번째는 태산 화읍 출신의 장패였다. 이 두 장수는 각각 여섯 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여포의 군사 오만 명이 북을 치니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조조가 여포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그대와 본래 원한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 주와 군을 빼앗으려 하는가?"

여포가 대답했다. "한나라의 성과 땅은 누구나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는 법인데, 어찌 너 혼자 다 차지하려 드느냐?"라고 말하며 곧장 장패를 내보내 싸움을 걸었다.

조조의 군사 중 악진이 맞서 나갔다. 두 말이 맞붙자 양쪽의 창이 동시에 치솟았다. 서른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때 하후돈이 말을 몰아 달려 나가 도와주려 하자, 여포의 진영에 있던 장료가 앞을 가로막으며 싸움을 걸었다. 이에 화가 난 여포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몰아 진영 밖으로 돌진해 나오니, 하후돈과 악진이 모두 물러났다. 여포가 기세를 몰아 공격하자 조조의 군대는 크게 패하여 삼사십리나 후퇴했고, 여포는 그제야 군사를 거두었다.

조조는 한 차례 전투에서 패한 뒤 진영으로 돌아와 장수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우금이 말했다. "제가 오늘 산에 올라 살펴보니, 북양 서쪽에 여포의 진영이 하나 있는데 군사가 그리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밤 저들은 우리 군이 패해서 도망쳤다고 생각하여 경계를 소홀히 할 것이니, 이때 군사를 이끌고 기습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만약 진영을 점령한다면 여포의 군사들도 겁을 먹고 물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상책입니다." 조조는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조홍, 이전, 모개, 여건, 우금, 전위 등 여섯 장수와 함께 기마병과 보병 2만 명을 선발하여, 밤을 틈타 좁은 길로 몰래 출정했다.

한편, 여포는 진영에서 군사들을 독려하며 노고를 치하하고 있었다. 이때 진궁이 말했다. "서쪽 진영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만약 조조가 그곳을 습격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포가 대답했다. "그가 오늘 한 차례 패했는데, 어찌 감히 다시 오겠는가?" 진궁이 다시 말했다. "조조는 병법을 쓰는 데 매우 능한 자이니,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 공격할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여포는 즉시 고순과 위숙, 후성을 보내 서쪽 진영을 지키게 했다.

한편, 조조는 해 질 무렵 군사를 이끌고 서채에 이르러 사방에서 급습했다. 채에 있던 병사들은 도저히 막아내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으며, 조조는 결국 채를 함락시켰다. 새벽 네 시경이 되었을 때, 고순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장수들을 앞세워 공격해 들어왔다. 조조가 직접 말을 타고 맞서 나가다 고순과 마주치면서 삼군이 뒤엉켜 대혼전이 벌어졌다. 날이 밝아올 무렵, 서쪽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여포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는 급히 채를 버리고 도망쳤다. 뒤에서는 고순, 위숙, 후성이 뒤쫓아왔고, 정면에서는 여포가 직접 군사를 몰고 들이닥쳤다. 우금과 악진이 여포를 상대로 쉴 새 없이 싸웠으나, 조조는 북쪽을 향해 계속 달아났다. 그때 산 뒤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는데, 왼쪽에는 장료가 있고 오른쪽에는 장패가 있었다. 조조는 여건과 조흥을 시켜 그들을 막게 했으나 전황이 불리해지자 이번에는 서쪽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키더니 또 다른 군사가 들이닥쳤다. 학맹, 조성, 성림, 송헌 네 장수가 앞길을 가로막은 것이다. 장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가운데 조조가 앞장서서 적진을 돌파하려 했다. 그때 북소리가 울리더니 화살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다.

조조는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탈출할 방법도 찾지 못하자 크게 소리쳤다. "누구 나를 좀 도와다오!" 그때 마군 부대에서 한 장수가 펄쩍 뛰어 나왔으니, 바로 전위였다. 그는 양손에 커다란 철극을 쥐고 크게 외쳤다. "주공, 걱정 마십시오!" 전위는 몸을 날려 말에서 내린 뒤 양손의 철극을 땅에 꽂았다. 그러고는 짧은 극 열댓 자루를 집어 들고는 수행원들에게 말했다. "적이 열 걸음 거리까지 오면 나를 불러라!" 말을 마친 전위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화살이 빗발치는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여포가 보낸 기병 수십 명이 뒤쫓아오자 수행원이 다급히 외쳤다. "열 걸음입니다!" 전위가 말했다. "다섯 걸음이 되면 불러라!" 수행원이 다시 외쳤다. "다섯 걸음입니다!" 전위는 즉시 극을 날려 적을 찔렀다. 던질 때마다 적 한 명이 말에서 떨어졌으니, 단 한 번의 헛손질도 없이 순식간에 십여 명을 죽였다. 적들은 겁에 질려 모두 달아나기 시작했다. 전위는 다시 말 위로 뛰어올라 양손에 커다란 철극을 들고 적진을 향해 거세게 돌격했다. 학맹, 조성, 성렴, 송헌 네 장수가 도저히 막아내지 못하고 각자 도망쳤다. 전위가 적군을 흠뜨려 놓은 덕분에 조조는 무사히 구출되었고, 뒤따라온 장수들도 함께 길을 찾아 진영으로 돌아가려 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갈 무렵, 뒤편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여포가 말을 몰아 창을 치켜든 채 달려오며 크게 외쳤다. "조조, 이 도둑놈아, 거기 서라!"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조조의 군사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다.

과연, 잠시 포위망을 뚫고 벗어날 수는 있었으나 강한 적의 추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조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2회 — 도공조가 서주를 세 번 양보하고, 조맹덕이 여포와 크게 싸우다

陶恭祖三讓徐州 曹孟德大戰呂布

조조가 급히 도망치던 중, 남쪽에서 군사 한 무리가 몰려왔다. 바로 하후돈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온 것이었다. 하후돈은 여포의 군대를 가로막고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싸움이 황혼 무렵까지 이어지던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양측 군대는 각자 흩어져 물러났다. 조조는 진영으로 돌아온 뒤, 전위에게 큰 상을 내리고 영군도위로 승진시켰다.

한편, 여포가 진영에 도착하여 진궁과 대책을 논의했다. 진궁이 말했다. "북양 성안에는 전씨라는 부유한 집안이 있는데, 가솔이 천여 명에 달하는 그 지역의 거부입니다. 그를 통해 조조의 진영에 비밀 편지를 보내십시오. 여포 장군이 잔인하고 어질지 못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며, 이제 군사를 려양으로 옮기려 하는데 성안에는 고순만 남아 있으니, 밤을 틈타 진격한다면 제가 안에서 호응하겠습니다. 만약 조조가 온다면 성안으로 유인한 뒤, 네 성문을 모두 불태우고 성 밖에는 북

병을 배치하면 됩니다. 조조가 아무리 천하를 꿰뚫는 재주를 가졌다 한들, 이 함정에 빠지면 어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포는 진궁의 계책을 따라 전씨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조조의 진영으로 곧장 가게 했다. 조조는 방금 전투에서 패해 갈팡질팡하던 차에, 갑자기 전씨의 사람이 도착하여 밀서를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밀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여포는 이미 려양으로 떠났고 성안은 비어 있습니다. 부디 서둘러 와 주십시오. 제가 안에서 호응하겠습니다. 성 위에 백기를 달고 '의(義)'라는 글자를 크게 써 붙이는 것을 신호로 삼겠습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하늘이 나에게 복앙을 얻게 해주시는구나!" 조조는 전령에게 큰 상을 내리고 즉시 군사를 정비했다. 이때 유엽이 말했다. "여포는 비록 피가 없으나 진궁은 계책이 많습니다. 혹시 속임수가 있을까 두려우니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주군께서 가고자 하신다면 군사를 세 팀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두 팀은 성 밖에 매복하여 지원하게 하고, 한 팀만 성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조는 유엽의 말을 따라 군사를 세 팀으로 나누어 복양 성 아래에 도착했다. 조조가 먼저 성을 살펴보니, 성 위에 깃발이 가득 꽂혀 있었고 서문 모퉁이에는 '의(義)'라는 글자가 쓰인 백기가 걸려 있었다. 조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날 낮 12시경, 성문이 열리더니 장수 두 명이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 앞장선 부대는 후성이었고, 뒤따르는 부대는 고순이었다. 조조는 즉시 전위를 출동시켜 후성을 직접 공격하게 했다. 후성은 적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말을 돌려 성 안을 향해 달아났다. 전위가 조교 근처까지 뒤쫓아갔고, 고순 역시 이를 막아내지 못해 모두 성 안으로 퇴각했다.

이때 몇몇 군사가 혼란을 틈타 진영을 뚫고 조조에게 달려와, 자신이 전씨의 심부름꾼이라며 밀서를 올렸다. 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밤 초경(저녁 7~9시 사이)에 성 위에서 징을 울려 신호를 보낼 테니, 그때 군사를 진격시키십시오. 제가 성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다."

조조는 하후돈에게 왼쪽 군사를 맡기고, 조홍에게 오른쪽 군사를 맡긴 뒤, 자신은 하후연, 이전, 악진, 전위 네 장수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이전이 "주공께서는 성 밖에 머무르시고, 저희가 먼저 성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조조가 호통을 치며 말했다.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아가겠느냐!" 그러고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앞장서서 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밤이 깊어 초경이 다 되어갈 무렵, 아직 달빛도 채 떠오르지 않은 어두운 시간이었다. 갑자기 서문 위에서 소라 껍데기를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함성이 터져 나왔다. 성문 위에는 횃불이 어지럽게 일렁이고 성문이 활짝 열리며 조교가 내려앉았다. 조조는 기세를 몰아 앞장서서 말을 달려 성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주아에 다다를 때까지 길 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조조는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하고 급히 말을 돌리며 크게 외쳤다. "퇴각하라!" 그 순간 주아에서 포성 한 발이 울려 퍼지더니, 사방의 성문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하늘을 뒤덮었다. 징과 북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고 함성은 마치 거대한 강물이 뒤

집히고 바다가 요동치는 듯했다. 동쪽 골목에서는 장료가, 서쪽 골목에서는 장패가 나타나 양옆에서 몰아치며 공격해 왔다. 조조가 북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길가에서 학맹과 조성까지 나타나 한바탕 공격을 퍼부었다. 조조가 급히 남문으로 향하자 이번에는 고순과 후성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때 전위가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며 돌격해 나갔고, 고순과 후성은 밀려 나가는 기세에 놀려 성 밖으로 쫓겨났다.

전위가 조교까지 달려갔으나 뒤를 돌아보니 조조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성 안으로 쳐들어갔고, 성문 근처에서 이전을 만났다. 전위가 물었다. "주군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전이 대답했다. "나도 찾지 못했다." 전위가 말했다. "그대는 성 밖으로 나가 구원병을 재촉하라. 나는 들어가서 주군을 찾겠다." 이전이 물러갔다. 전위가 성 안으로 쳐들어갔으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성 밖에 나가 근처로 달려 나가다 악진과 마주쳤다. 악진이 물었다. "주군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전위가 말했다.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는다." 악진이 말했다. "함께 들어가 주군을 구하자!" 두 사람이 성문 근처에 이르자 성 위에서 불과 포탄이 굴러 떨어졌다. 악진은 말이 들어가지 못했으나, 전위는 자욱한 연기와 불길을 뚫고 다시 성 안으로 돌진하며 사방을 살살이 뒤졌다.

한편, 조조는 전위가 적진으로 돌격해 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군과 말 때문에 남문으로 나갈 길을 찾지 못했다. 다시 북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달아나려는데,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여포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조조는 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채찍질을 하여 간신히 여포를 지나쳐 달아났다. 여

포는 뒤에서 말을 몰아 쫓아오더니, 조조의 투구 위를 창으로 내리치며 물었다. "조조는 어디 있느냐?" 조조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앞에 황색 말을 타고 가는 자가 바로 그놈이다."

여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조조를 버려두고 말을 달려 앞을 뒤쫓았다. 조조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 동문을 향해 달아나는데, 마침 전위와 마주쳤다. 전위는 조조를 호위하며 피로 물든 길을 뚫고 나아갔다. 성문 근처에 다다르자 불길이 거세게 치솟고 있었고, 성 아래에서는 땀감을 밀어 내려 온 땅이 불바다였다. 전위가 창을 휘둘러 불길을 헤치며 연기와 불꽃을 뚫고 먼저 말을 몰아 빠져나왔고, 조조도 그 뒤를 따라 나왔다. 그런데 성문 길목에 이르렀을 때, 성문 위의 불타는 들보 하나가 무너져 내리며 조조의 말 뒷다리를 정면으로 내리쳤다. 말이 그대로 땅에 고꾸라지자, 조조는 손으로 들보를 받쳐 밀어내며 겨우 빠져나왔으나 팔과 수염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전위가 말을 돌려 구하러 오니, 마침 하후연도 도착해 있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조조를 구해낸 뒤 불길을 뚫고 빠져나왔다. 조조는 하후연의 말을 타고, 전위는 큰길을 따라 싸우며 길을 열었다. 이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혼전 속을 헤매다 겨우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장수들이 모두 엎드려 안부를 묻자, 조조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웃으며 말했다. "보잘것없는 자의 계책에 놀아나다니,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

그러자 곽가가 말했다. "계책을 즉시 실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지금은 상대의 계책을 역이용해야 한다. 내가 불에 데어 독이 몸에 퍼지는 바람에 새벽녘에 이미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내

자. 그러면 여포가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올 것이다. 나는 마릉산에 매복해 있다가, 적군이 강을 절반쯤 건넌을 때 기습하여 여포를 사로잡겠다."

곽가가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계책입니다!"

이에 군사들에게 상복을 입히고 초상 중임을 알려 조조가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미 누군가 복양으로 달려가 여포에게 "조조가 불에 데어 몸을 다친 뒤 진영에서 죽었다"라고 보고했다. 여포는 즉시 군마를 몰아 마릉산으로 돌격했다. 여포의 군대가 조조의 진영 근처에 다다르자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방에서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튀어나왔다. 여포는 필사적으로 싸운 끝에 겨우 탈출했으나 많은 병사와 장수를 잃고, 패배하여 복양으로 돌아가 성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그해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 논밭의 곡식을 모조리 먹어 치웠다. 관동 지역 전체에 곡식이 귀해져서 곡식 한 섬의 값이 돈 십 관에 달할 정도가 되자, 백성들은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조는 군량도 다 떨어졌기에 군사를 이끌고 견성으로 돌아가 잠시 머물렀다. 여포 또한 군사를 이끌고 산양으로 나가 식량을 구했다. 이 때문에 두 세력은 잠시 군사 행동을 멈추게 되었다.

한편, 서주에 있던 도겸은 당시 나이가 예순세 살이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 점차 병세가 깊어지자 미축과 진등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미축이 말했다.

"조조의 군사가 떠난 것은 단지 여포가 연주를 습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흉년이라 군사를 거두었으나, 내년 봄이면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주공께서 두 번이나 유비에게 자리를 물려주려 하셨지만, 그때는 주공의 기력이 아직 강건하셨기에 유비가 차마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세가 이미 위중하시니, 이번에 직접 유비에게 권하신다면 유비가 분명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겸은 크게 기뻐하며 사람을 소패로 보내 유비에게 군사 업무를 논의하자고 청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서주로 향했고, 도겸은 그를 안채로 모셔 들였다. 유비가 문안을 올리자 도겸이 말했다.

"유비 공을 모신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이 늙은이의 병이 이미 위독하여 하루아침에 살아남을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공께서 한 나라의 성읍을 귀하게 여겨 서주의 관인과 패인을 넘겨받아 주신다면, 이 늙은이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공에게 두 아들이 있으신데, 어찌 그들에게 물려주지 않으십니까?"

도겸이 대답했다. "큰아들은 상이고 작은아들은 응인데, 둘 다 재능이 부족하여 일을 맡기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도 부디 공께서 그들을 잘 가르쳐 주시어, 결코 주무를 맡기지 않도록 살피 주십시오."

유비가 다시 말했다. "저 한 몸으로 어찌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겸이 말했다. "제가 사람을 한 명 추천할 터이니, 공을 도와 보좌하게 하십시오. 북해 사람으로 성은 손씨요 이름은 건이며 자는 공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종사로 삼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미축에게 말하기를, "유비 공은 당대의 인재이니, 그대는 마땅히 그를 잘 보필해야 하오."라고 당부했다.

유비가 끝내 사양하였으나, 도겸은 손가락으로 심장을 가리키며 숨을 거두었다. 군사들이 슬픔을 애도한 뒤, 곧바로 관인과 패를 받들어 유비에게 전달했다. 유비는 완곡히 거절했다. 이튿날 서주의 백성들이 관아 앞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울며 절하며 말했다. "유 사군께서 만약 이 고을을 맡아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모두 편안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관우와 장비 두 사람도 거듭 권했다. 유비는 그제야 서주의 통치권을 맡기로 허락했다. 손건과 미축을 보좌관으로 삼고 진등을 막관으로 임명했다. 소패에 있던 군마를 모두 거두어 성 안으로 들였고,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장례를 준비했다. 유비와 크고 작은 군사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친 뒤에는 황하 언덕에 장사를 지내고, 도겸이 남긴 유서를 받아 조정에 보고했다.

조조는 건성에 머물던 중 도겸이 죽고 유비가 서주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조는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내 원한을 아직 갚지도 못했는데, 너희는 화살 한 대도 쓰지 않고 서주를 차지했구나! 내가 반드시 먼저 유비를 죽이고, 그 뒤에 도겸의 시신을 베어 선대 군주를 위해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고는 즉시 군령을 내려 날짜를 정한 뒤 서주를 치러 가려 했다.

이때 순욱이 들어와 간언했다. "옛날 한 고조가 관중을 지키고 광무제가 하내를 근거지로 삼았던 것은, 모두 근본을 튼튼히 하여 천하를 바로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아갈 때는 적을 이길 수 있고, 물러날 때는 굳게 지킬 수 있어, 비록 곤경에 처하더라도 결국 대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명공께서는 본래 연주에서 거사를 일으키셨으며, 황하와 제수 일대는 천하의 요충지이니 옛날의 관중이나 하내와 다름 없습니다. 지금 만약 서주를 취하려 한다면, 군사를 많이 남기자니 연주를 지킬 힘이 부족하고, 군사를 적게 남기자니 여포가 빈틈을 타 공격해 올 것이니 연주를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서주마저 얻지 못한다면 명공께서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도겸은 비록 죽었으나 이미 유비가 지키고 있습니다. 서주의 백성들은 이미 유비에게 복종했으니 반드시 그를 도와 죽기로 싸울 것입니다. 명공께서 연주를 버리고 서주를 취하려 하시는 것은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하는 것이며,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쫓아 안락함을 위태로움과 바꾸는 격입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조조가 말했다. "올해는 흉년이라 식량이 부족한데, 군사들을 이곳에 그냥 주둔시키고만 있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오."

순욱이 다시 말했다. "차라리 동쪽의 진(陳) 땅을 점령하여 군사들이 식량을 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남과 영천에는 황건적의 잔당인 하의와 황소 등이 주와 군을 약탈하며 많은 금은보화와 식량을 모아 두었습니다. 이들은 격파하기가 쉬운 도적들입니다. 이들을 쳐서 식량을 빼앗아 삼군을 먹이면 조정은 기뻐하고 백성들은 즐거워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에 따르는 일입니다."

조조는 기뻐하며 그 제안을 따랐다. 그리고는 하후돈과 조인을 남겨 전성과 그 주변 지역을 지키게 한 뒤,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진(陳) 땅을 공략하고 이어 여남과 영천 지역에 이르렀다. 이때 황건적의 우두머리인 하의와 황소가 조조의 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를 이끌고 마중을 나왔는데, 양산에서 조조의 군대와 맞닥뜨렸다. 당시 적병의 수는 많았으나 모두 제멋대로 흩어진 무리일 뿐, 제대로 된 대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조조는 강력한 활과 노를 쏘아 적을 저지하게 하고, 전위를 앞으로 내보냈다. 하의가 부원수에게 출전하라고 명령했으나, 채 세 합을 겨루기도 전에 전위의 창에 찔려 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조조는 이 기세를 몰아 군사들을 이끌고 양산 아래로 진격하여 진을 쳤다.

다음 날, 황소가 군사를 이끌고 몰려왔다. 적진 근처에서 장수 한 명이 걸어 나와 싸움을 걸어왔는데, 머리에는 황건을 쓰고 몸에는 초록색 옷을 입었으며 손에는 쇠뿔뿔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하늘을 가로막는 야차, 하만이다! 누가 감히 나와 맞서 싸우겠느냐?"

이를 본 조홍이 크게 호통을 치며 말에서 뛰어내려 칼을 들고 나아갔다. 두 사람은 진영 앞에서 사오십 합을 넘도록 치열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조홍이 일부러 패하는 척하며 도망치자 하만이 뒤쫓아왔다. 이때 조홍이 칼을 뒤로 돌려 휘두르는 묘수를 써서 몸을 휙 돌려 뛰어오르며 하만을 내리쳤고, 다시 한 번 칼을 휘둘러 그를 죽였다.

이전이 이 기세를 몰아 말을 타고 적진으로 거침없이 돌격했다. 황소가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이전에게 생포되어 끌려왔다. 조조의 군사들이 적들을 몰아치며 공격하자, 수많은 금은보화와 식량을 탈취했다.

하의는 세력이 약해지자 수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갈비로 도망쳤다. 그런데 도망가던 길에 산 뒤편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 선두에 선 장사는 키가 8척에 허리는 열 아름이나 될 정도로 건장했으며, 커다란 칼을 들고 앞길을 가로막았다. 하의가 창을 들고 맞서 싸웠으나 단 한 합 만에 그 장사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남은 병사들도 당황하여 모두 말에서 내려 포로가 되었고, 그 장사에게 끌려 갈비보안으로 모두 몰려 들어갔다.

한편, 전위가 하의를 뒤쫓아 갈비에 이르니, 한 용맹한 장사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가로막았다. 전위가 물었다. "너도 황건적의 무리냐?" 장사가 대답했다. "황건적 기병 수백 명이 모두 내 손에 잡혀 성안에 갇혀 있다!" 전위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놓지 않느냐?" 장사가 말했다. "네가 내 손에 있는 이 보도(寶刀)를 빼앗을 수 있다면, 그때 내놓겠다!" 전위가 크게 분노하여 쌍극을 휘두르며 앞으로 달려나가 싸움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진시부터 오시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서로 실 틈도 없이 맞붙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장사가 다시 나와 싸움을 걸어왔고, 전위 역시 맞서 싸웠다. 해가 저물 때까지 싸움을 이어가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지쳐 잠시 멈추게 되었다. 전위의 부하 군사들이 이 소식을 조조에게 급히 보고하자, 조조는 깜짝 놀라 서둘러 장수들을 이끌고 달려왔다.

다음 날, 그 장사가 다시 나와 싸움을 걸어왔다. 조조는 그자의 기세가 당당한 것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전위에게 오늘 일단 패배하는 척하라고 명령했다. 전위가 명을 받들어 나가 싸우다가 서른 합 정도를 겨루고는 패하여 진영으로 도망치는 척했다. 그 장사가 진영 문 앞까지 쫓아오자, 진영 안에서 활과 노를 쏘아 그를 돌려보냈다. 조조는 급히 군사를 이끌고 5리쯤 물러난 뒤, 몰래 사람을 시켜 땅을 파서 함정을 만들고 갈고리를 든 병사들을 숨겨 두었다.

이튿날, 조조는 다시 전위에게 기병 백여 명을 거느리고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 장사가 웃으며 "패배한 장수가 어찌 감히 다시 나타났느냐!"라고 외치며 말을 달려 달려들었다. 전위가 몇 합을 겨루다가 얼른 말을 돌려 달아났다. 그 장사는 앞만 보고 쫓아오느라 방비할 겨를도 없이 말과 함께 함정 속으로 빠져들었고, 갈고리를 든 병사들에게 붙잡혀 조조에게 끌려왔다. 조조는 장막에서 내려와 군사들을 물리고 직접 결박을 풀어준 뒤, 급히 옷을 입혀 앓힌 다음 고향과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허저가 말했다. "저는 초국 초현 사람입니다. 성은 허이고 이름은 저는, 자는 중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도적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종족 수백 명을 모아 성벽을 튼튼히 쌓고 우둔 속에서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어느 날 도적들이 들이닥치자, 제가 사람들에게 돌맹이를 많이 준비하게 한 뒤 직접 돌을 던져 공격했는데 하나도 빗나가는 법이 없으니 도적들이 물러갔습니다. 또 다른 날 도적들이 다시 왔을 때는 우둔 안에 식량이 떨어져, 결국 그들과 화친하고 농사짓는 소를 주는 대신 쌀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쌀이 도착했을 때 도적들이 소를 몰고 우둔

밖으로 나갔는데, 소들이 모두 겁을 먹고 도망치려 하기에 제가 직접 양손으로 소 두 마리의 꼬리를 붙잡고 백여 걸음을 거꾸로 끌고 갔습니다. 도적들이 이를 보고 크게 놀라 소를 가져가지도 못하고 도망쳤으니, 덕분에 이곳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당신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익히 들었소. 내게 항복 하겠소?"

허저가 대답했다. "본래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종족 수백 명을 불러 모아 모두 항복시켰다. 조조는 허저를 도위로 임명하고 아주 두텁게 상을 내렸다. 이어 하의와 황소를 잡아 처형하니, 여남과 영천 지역이 모두 평정되었다.

조조가 군사를 돌려 돌아오자 조인과 하후돈이 그를 맞이하며 보고했다. "최근 첩자의 보고에 따르면, 연주의 설란과 이봉이 이끄는 군사들이 모두 약탈을 하러 나가 성 안이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승전의 기세를 몰아 공격한다면 단번에 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연주로 직행했다. 설란과 이봉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히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때 허저가 말했다. "제가 저 두 놈을 잡아 처음 뵈는 예물로 바치겠습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출전 명령을 내리자, 이봉이 화극을 휘두르며 앞으로 달려와 맞섰다. 그러나 말 위에서 두 차례 합을 겨루기도 전에 허저가 이봉을 말 아래로 베어 넘겼다. 설란이 급히 진영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조교 근처에서 이전이 길을 막아섰다. 설란은 감히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군사를 이끌고 거야로 달아나려 했으나, 여건이 말

을 타고 쫓아와 화살을 쏘아 말 아래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군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조조가 연주를 다시 장악하자, 정욱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복양을 공격하자고 건의했다. 조조는 허저와 전위를 선봉으로 삼고, 하후돈과 하후연을 좌군으로, 이전과 낙진을 우군으로 배치했다. 조조 자신은 중군을 이끌었으며, 우금과 여건이 후방을 지키게 했다.

군대가 복양에 이르자 여포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맞서려 했다. 그러자 진궁이 간언했다. "직접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장수들이 모두 모인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포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며 진궁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포는 곧장 군사를 이끌고 나가 창을 가로로 쥐고는 크게 호통을 쳤다.

이에 허저가 먼저 나아가 맞붙었다. 두 장수가 스무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조조가 "여포는 혼자서는 이기기 힘든 자다"라고 말하며 전위를 보내 지원하게 하니, 두 장수가 양옆에서 협공을 펼쳤다. 이어 왼쪽에서는 하후돈과 하후연이, 오른쪽에서는 이전과 낙진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여섯 장수가 한꺼번에 여포를 몰아붙이자, 여포는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어 말을 돌려 성 안으로 도망쳤다.

성 위의 전씨는 여포가 패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급히 사람을 시켜 조교를 들어 올리게 했다. 여포가 크게 소리치며 "문을 열어라!"라고 외쳤으나, 전씨는 "나는 이미 조조 장군에게 항복했다"라고 대답했다.

여포는 크게 욕설을 내뱉으며 군사를 이끌고 정도를 향해 달려갔다. 진궁은 급히 동문을 열어 여포의 가족과 가솔들을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조조는 마침내 복양을 차지했으나, 예전에 전씨가 저질렀던 잘못은 굳이 묻지 않고 용서해 주었다. 유엽이 말했다. "여포는 마치 맹호와 같으니, 지금 비록 기세가 꺾였다 해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조는 유엽 등에게 복양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정도까지 달려갔다. 당시 여포는 장막, 장초와 함께 모두 성 안에 머물고 있었고, 고순, 장료, 장패, 후성은 군량을 구하기 위해 주변을 정찰하러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조조의 군대가 정도에 도착했으나 며칠 동안 싸우지 않자,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40리쯤 물러나 진을 쳤다. 마침 제군 지역의 보리가 익어갈 때라, 조조는 즉시 군사들에게 보리를 베어 식량으로 삼게 했다. 이때 첩자가 여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여포는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다. 여포가 조조의 진영 근처에 이르렀을 때, 왼쪽을 보니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혹시 매복한 병사가 있을까 두려워하며 발길을 돌렸다.

조조는 여포의 군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장수들에게 말했다. "여포는 숲속에 매복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 숲속 여기저기에 깃발을 많이 꽂아두어 여포를 혼란스럽게 만들자. 진영 서쪽의 긴 독은 물이 없으니, 그곳에 정예병을 모두 매복시켜라. 내일 여포가 반드시 숲에 불을 지르러 올 텐데, 그때 독에 숨어 있던 군사들이 뒤를 끊어버리면 여포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말을 마친 조조는 진영 안에 북 치는 사람 50명만 남겨 계속 북을 울리게 했고, 마을에서 잡아 온 남녀들을 진영 안에 풀어놓아 소리를 지르게 했다. 정예병들은 대부분 독 속에 매복해 있었다.

한편, 여포가 돌아와 진궁에게 보고했다. 진궁이 말했다. “조조는 궤계가 많으니 결코 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포가 말했다. “내가 화공을 쓰면 매복한 적들을 깨뜨릴 수 있소.” 여포는 진궁과 고순에게 성을 지키게 한 뒤, 다음 날 대군을 이끌고 나아갔다. 멀리 숲속에 깃발이 보이는 것을 보고 여포는 군사를 몰아 크게 진격하며 사방에 불을 질렀으나, 정작 적은 한 명도 없었다. 여포가 막 진영 안으로 뛰어들려 할 때, 갑자기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여포가 의아해하며 갈팡질팡하는 사이, 갑자기 진영 뒤편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튀어나왔고 여포도 말을 달려 뒤쫓았다.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제방 안에서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하후돈, 하후연, 허저, 전위, 이진, 악진이 말을 달려 돌격해 왔다. 여포는 상대가 되지 않음을 직감하고 황급히 도망쳤다. 그를 따르던 장수 성렴은 악진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여포의 군사 세 부대 중 두 부대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진궁에게 전해졌다. 진궁이 말했다. “빈 성은 지키기 어려우니 차라리 서둘러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진궁은 고순과 함께 여포의 노약자들을 데리고 정도를 버려둔 채 달아났다. 조조는 승리한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이닥쳤는데, 그 기세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듯 거침이 없었다. 장초는 스스로 불을 질러 자결했고, 장막은 원술에게로 도망쳤다. 산동 일대의 땅은 모두 조조의 손에 들어갔다. 백성을 안심시키고 성을 수축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편, 여포가 막 물러나려는데 장수들이 모두 돌아왔고, 진궁 또한 이미 찾아왔다. 여포가 말했다. "우리 군사가 비록 적으나, 아직 조조를 격파할 수는 있다." 그러고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물러왔다.

정말로 이러하니,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니, 갑옷을 다시 갖춰 입고 돌아온 지금 승패를 어찌 알겠는가."

여포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결국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